

우리 歷史에서 본 民族의 統一

第1部：高麗의 後三國統一 研究

第2部：오늘의 視角에서 본 新羅의 三國統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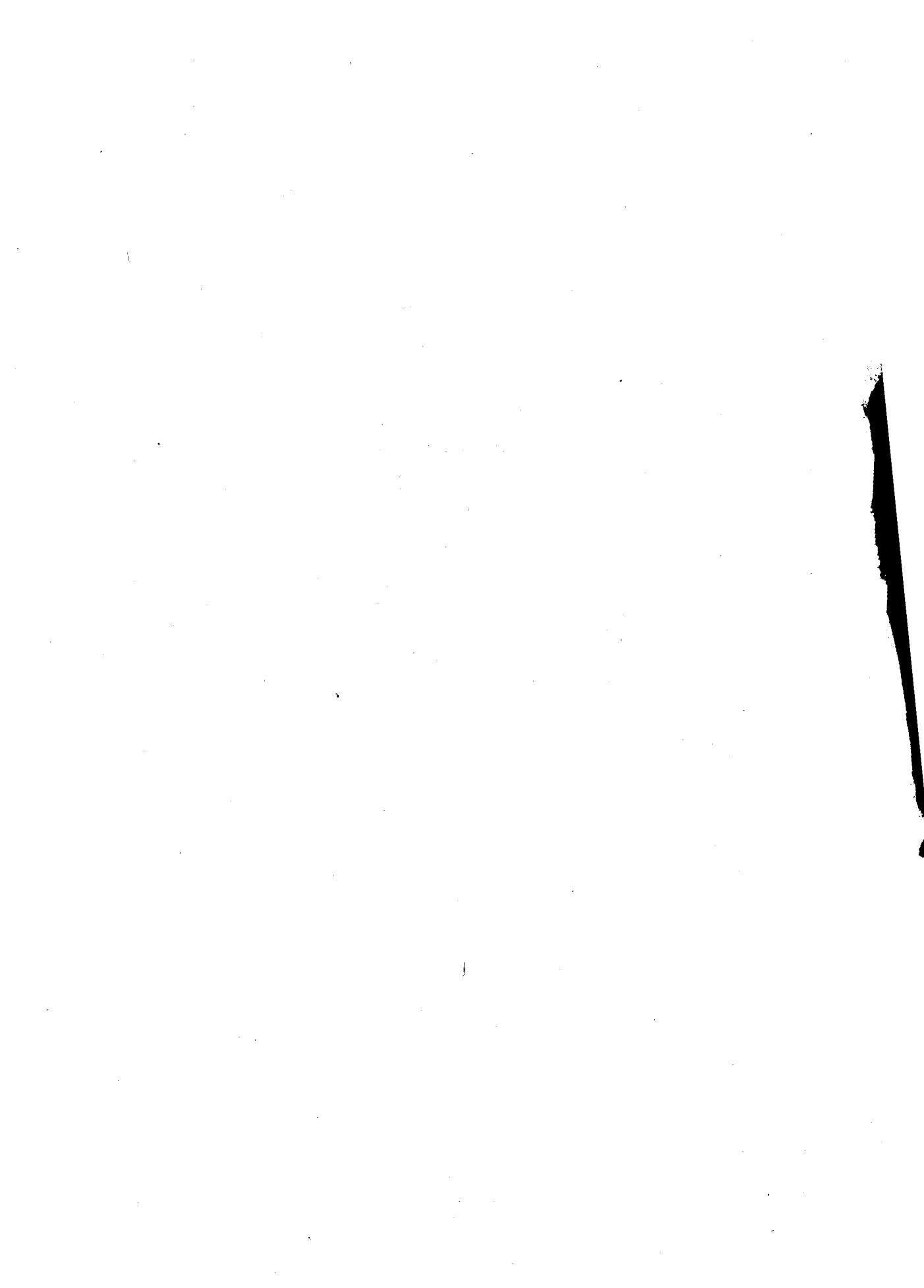
研究執筆責任：金 永 洙
(常任研究委員)

刊行責任：徐 成 雨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第 1 部

高麗의 後三國統一 研究



目 次

第一章 序 論	5
第二章 後三國 分立의 背景	9
1. 新羅末期 王權의 衰弱	11
2. 新羅末期의 社會相	17
가. 貧富의 隔差와 百姓의 生活苦	17
나. 草賊, 群盜의 出現과 農民蜂起	20
3. 甄萱(後百濟), 弓裔(泰封)의 出現	31
가. 甄 萱	31
나. 弓 裔	35
4. 統一新羅 首都의 偏在性	39
第三章 王建의 登場	41
1. 王氏世系와 그 分析	41
2. 弓裔部下 時期 王建의 活動	46
3. 高麗太祖 王建의 後三國統合過程	49
第四章 <u>後三國 人民(百姓)들의 統一指向性</u>	57
1. 王建의 統一意志	57
2. 百姓들의 苦痛과 統一에의 指向	59
3. 讖言, 豫言을 통하여 본 統一指向性	60
第五章 <u>高麗太祖 王建의 統合方略</u>	64
1. 對內政策	64

2. 豪族聯合政策	66
3. 民族의 同質化政策	71
가. 異質性 機能의 視覺에서 본 後三國의 分立問題	71
나. 政略的 結婚政策	75
다. 賜姓政策	77
4. 渤海遺民의 包攝	78
5. 投降者에 대한 處遇	81
6. 海上權의 確保 - 羅州, 康州의 占領	86
가. 羅州 占領	86
나. 康州 占領	89
7. 高麗太祖 王建의 理念과 思想	91
第六章 結語.....	100
원나라 尙書右丞의 辭	104
要約文	107

第 1 章 序 論

그동안 우리는 分斷祖國의 統一문제를 놓고 北韓實態 國際情勢 및 分斷國事例등을 중심으로 研究를 거듭하여 왔다. 世界 碩學들이 우리의 統一研究에 動員되기도 하였다. 물론 高見과 卓論이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생각하여 보면 그간에는 民族과 國土의 統一문제를 남들의 聰明이나 예知에서만 探求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民族은 悠久한 歷史를 지녔다. 그러기에 分斷 40年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南北韓 統一문제도 오랜 歷史經驗과 先祖들의 歷史意識속에서 그 理念과 道程을 探求해 보는 努力도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 歷史에는 千三百年前 新羅에 의한 三國統一과 1千餘年前에 高麗太祖 王建에 의하여 이루어진 後三國統一이라는 빛나는 歷史가 있음을 想起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歷史가 운데는 「統一」의 歷史가 두번이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新羅의 前 三國統一은 當初 세계 王國간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굽기야는 羅唐聯合軍에 의한 軍事的 征服과정을 통하여 이룩된 非平和인 民族의 統一이었다. 이에 反하여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은 三國統一의 畧센 의욕에서 出發하여 自主的 力量으로 이룩한 民族의 再統一이었다. 前三國을 統一한 新羅는 紀元 676年 부터 甄萱이 900년에 後百濟를 세우고 弓裔가 901年 後高麗王을 自稱하기 까지 약 220年間 持續하였음에 比하여, 高麗太祖의 後三國 統一은 高麗朝와 李

氏朝鮮을 거쳐 人爲的 外勢에 의한 1945年의 分斷이 있기까지 1千餘年의 統一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後三國 統一과 오늘의 分斷國 統一과를 견주어 볼 때 허다한 差異點이 있다. 分立과 分斷國(理念과 體制의 차이)의 差異, 時代的 또는 周邊情勢, 統一條件등의 무수한 差異點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共通點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땅에서 이러한 分立. 分斷이오. 같은 이 民族이 解決했고 또 解決하여야 할 民族의 統一임에는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歷史는 반듯이 反覆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땅 위에서는 分裂과 統一, 分立과 統一, 分斷등이 分明이 反覆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後三國의 統合方略이 오늘의 우리에게 그대로 適用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溫古而知新」이란 말이 있기는 하다.

그러면 왜 이 문제를 研究하려고 하는가 지금까지로서는 分斷國家의 統一문제를 平和的인 方法으로 해결한 前例가 없다. 그러기에 萬人의 이해와 슬기를 모아야 할 立場이다. 그리고 後三國統一은 우리 歷史에서 있는 빛나는 歷史事實이다. 그러기에 筆者는 素朴한 생각으로 統一문제 研究를 使命으로 하는 우리들로서는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문제를 한번 쬐은 究明해 보고 比較해 보고 정리해 보고, 덮고 넘어가야만 할 課業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이 課題 研究의 動機이다.

이러한 動機에서 출발하여 일고자 하는 目的은 첫째로 後三國統一과 關聯된 資料들을 整理해 보자는 것이다. 그것도 순수 史學의 立場이 아니라 오늘 南北韓 統一이라는 視角에서이다. 後三國時期의 歷史사실이라 하더라도 統一에 影響을 미친 바 없고 이와 關係가 없는 史料들은 考察의 對象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本稿에서 취급될 時期는 일반

적으로 史料의 인멸이 심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歷史家들의 觀心이 그렇게 많이 둘러지지 못한 時期로 되어 있다. 따라서 至難한 作業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많은 條件의 差異는 있다 하더라도 高麗太祖의 統合方略중 오늘 우리가 適用可能한 方略이 없겠느냐는 점이다. 王建은 우리 民族이 낳은 偉대한 武人 政治家로 알려져 있다. 무엇인가 있지 않겠느냐는 期待를 걸고 출발하는 것이다.

研究對象시기는 新羅 下代 부터이다. 三國分立의 背景을 遠因부터 究明하자면 王權爭奪戰이 벌어지고 이로 因하여 社會 經濟的 혼란이 거듭되기 시작한 下代직전의 第36代 惠恭王 때로 遡及. 考察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時期는 다만 三國分裂 背景에서만 취급하기로 한다. 研究對象시기로서 重點을 둔 것은 弓裔가 登場하고 甄萱이 武珍州를 攻略하는 890年代 初부터 신라 敬順王이 歸附하고 後百濟가 降伏하여 統一이 成就되는 936年 까지의 약 45年間을 주요 시기로 삼고자 한다.

本 研究는 이 시기의 通史(一般史)의 철저한 理解 위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史實에 충실하면서도 歷史事件의 羅列보다는 그 背景과 統合과의 關聯性을 중시하면서 斯界 學者들의 研究論文등을 蒐集 參考하여야 할 것이다.

研究內容에서 가장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高麗太祖의 統合方略(政策)이다. 弓裔의 政權을 이어받고 甄萱이 來附하고 新羅로 하여금 國土와 千年 杜稷를 바치게 까지 誘導하여 後三國을 統一한 王建의 巧妙한 政策과 偉대한 統率力을 살피려는 것이 첫째다.

이와 관련하여 두번째는 王建과 弓裔와 甄萱이라는 後三國 歷史舞台의 主人公들에 대한 파악이다. 甄萱이 없는 後百濟나 弓裔가 없는 泰封 王建이 없는 後三國 統一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째는 後三國 分裂의 背景을 든다. 新羅末期의 王權의 衰微와 社會의 混亂相 그리고 그 滅亡과정을 통하여 國家와 政權의 興亡, 盛衰의 動因이 무엇이었던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자료정리에 價値도 있다.

네째로 三國人民(百姓)들의 統一指向性, 民族의 同質化라는 視覺에서 본 統合政策등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이는 當時의 歷史현상을 오늘의 統一概念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끝으로 後三國과 周邊情勢와의 관계이다. 新羅의 三國統一이 羅唐聯合과 불가불리의 관계가 있고 오늘의 分斷과 統一 역시 周邊情勢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後三國 統一도 당시의 東洋社會와 어떻게 관계가 있었느냐에 留意하게 된다. 그러나 大陸·海洋세력을 막론하고 後三國 統一에는 外勢의 영향이 그다지 없었다는 점에서 本稿에서는 이점은 重視하지 않기로 한다.

第 2 章 後三國分立的 背景

本稿는 後三國이 分立된 背景으로서 첫째, 新羅末期 王權의 衰微 들
째, 貧富의 隔差와 百姓의 生活苦 群盜 草賊의 橫行과 農民蜂起를 비
롯한 어지러운 社會相 셋째, 弓裔 甄萱의 出現 네째 統一新羅首都의
偏在性등을 들고자 한다.

그런데 그에 앞서 考察되어야 할 것은 當時의 周邊情勢이다.

新羅의 三國統一로 滿洲와 大同江 以北지역을 잃은 후로는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는 後三國 時代에도 오늘과 같이 橋樑위치요 邊境위치요
兵참위치라는 屬性을 면할 수가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大陸세력과
海洋세력의 交叉지점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新羅의 三國統一에 唐의 세력이 介入되었고 오늘의 南
北分斷이 強大國 政治의 所産이며 統一成就 또한 國際的 協力を 필요
로 한다는 점에서 後三國 統一에 있어서도 우선 分立과 統一에 外勢
가 作用하였느냐의 興否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後三國 時期를 대체로 어디서 부터 얼마동안의 期間으로 볼 것인가
하는점에 대하여는 序論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892年 眞聖女王 6
년부터 936年 高麗太祖가 統一을 完遂한 때까지 約45年間으로 삼고자
한다.

이時期 中國方面을 살펴보면 唐나라의 末期도 羅末이상으로 混亂상태
를 거듭하였다. 역시 唐末도 도적의 蜂起와 節度使의 발호가 심하여
後三國 初期에 해당하는 서기 907年에 滅亡하고 말았다. 唐의 滅亡후 50
餘年間은 소위 五代十國의 興亡이 交叉되었다. 五代(梁, 後唐, 普, 漢, 周)

는 대개 開封 洛陽을 中心으로 한 中原에 도읍한 五國을 말하는 것이며 실상은 이 밖에도 四方에서 帝王을 칭하는 者가 十餘國이나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금의 江蘇, 浙江지방에 있던 吳越國은 後百濟 또는 高麗와도 가끔 交涉이 있었으니 太祖 2년에는 吳越國 文士의 歸化가 있었고 927년에는 吳越이 使臣을 後百濟에 보내어 高麗와의 和親을 권할 일도 있었다.

北쪽 滿蒙지방을 살펴보면 東部 蒙古의 契丹族은 唐末 混亂중에 耶律阿保機가 나와 諸部族을 統一하고 北方民族의 강대한 統一國家를 建設하였으나 아직 女眞族의 反抗이 계속되어 全지역이 平定되지 못한 時期였다. 1)

그리고 바다 건너 日本지역 역시 新羅海賊의 빈번한 侵入등으로 그 西部가 不安定하던 時期였다.

이와 같이 東洋의 全社會가 陣痛하고 있던 當時로서는 外部세력의 半島에의 介入이나 干涉은 있을 수 없는 時期였다고 보여 진다.

더욱 分立이나 統一에 影響을 미칠 수 없었음을 말할 것도 없으며 따라서 後三國의 分立은 半島 内部에서 일어난 分裂이었고 그 統一도 外勢와는 전연 관계 없이 自主的으로 이룩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1. 新羅末期 王權의 衰弱

新羅를 크게 세 時期로 나누어, 始初부터 眞興王까지의 28王을 上代라 하고, 29代 太宗武烈王 부터 36代 惠恭王까지의 8王을 中代라고 하며, 제 37代 宣德王부터 56代 敬順王까지의 20王을 下代라고 한다. 2)

上代 28王은 소위 聖骨계통이고 中代 8王은 순수한 武烈王系統이며 下代諸王은 遠代 傍系王族의 出身들이었다. 이른바 이 上·中·下代의 區分은 순전히 王室의 血統(父系) 如何에 의한 區別에 不過한듯 하나 그러나 全體的인, 政治的인 立場에서 보면 國勢의 變遷段階와도 相合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上代는 新羅의 勃興기로 三國時代에 속하고 그 以下는 대체로 統一期에 相當하나 特히 中代는 全盛期, 下代는 衰頹기에 속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신라의 統一기는 中代의 文武王 16.7年頃으로 부터 下代의 眞聖女王 5년에 이르는 약 215년에 不過하고 (그 이후는 分裂시대) 衰頹기는 실상 中代의 末인 제 36代 惠恭王때 부터 시작된 것이다.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자, 國土의 擴大 産業의 增進 外來文物의 수입, 特히 進歩된 大陸制度를 採用하게 되자 新羅는 古來의 傳統과 固有한 美風을 喪失해 가면서, 新羅古俗의 氏族的 團結을 重히 여기는 정신보다도 個人의 힘을 존중하는 風潮에 빠져들어 갔다. 따라서 個人은 自己의 政治的 權力을 획득 혹은 擴張하기에 腐心하였다. 그리하여 貴族의 跋扈, 党爭의 風習이 생기어 王位爭奪을 中心으로 陰謀 叛逆 骨肉相殘의 亂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상태는 中代末의 惠恭王으로 부터 下代의 憲康王(제 49代)까지 계속되다가 眞聖女王에 이르러서는 마

침내 全國的인 動亂을 보게 되었다.

위와 같은 狀況은 결국 王權의 衰弱을 가져오게 되고 극기야에는 亡國으로까지 치닫게 되는데 그 過程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上代末의 제 36代 惠恭王은 王族 全志貞등의 반란에 의하여 被殺되고 志貞등의 亂은 上大等 金良相 伊淪 金敬信등의 擧兵에 의하여 즉시 平定되었다.

그러나 王位는 平定에 功이 큰 良相 敬信에 의하여 차례로 王位가 계승되어 갔다.

제 37代 宣德王이 즉 前記의 良相이오,

제 38代 元聖王이 또한 金志貞의 반란진압에 功이 있던 金敬信이다.

제 39代 昭聖王은 在位期間이 一年에 不過하였고

제 40代 哀莊王은 叔父 彥昇에 依하여 殺害되고

제 41代 憲德王은 조카 哀莊王을 죽이고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憲德王 때의 王族으로 大臣의 직에서 地方長官으로 轉出된 熊川州都督 金憲昌은 그父 周元이 일찌기 國王에 被選되지 못함을 恨스럽게 여기던바 憲德王 14年(822)에 드디어 亂을 일으켜 國號를 長安, 年號를 慶雲元年이라 하고 한때 氣勢를 올리다가 官軍에게 敗滅하였고 同王 17年에는 그憲昌의 아들 梵文이 高達山의敵 壽神등 百餘人과 함께 謀叛하여 都邑을 지금 「서울」附近에 定하려 하여 北漢山城을 치다가 역시 失敗하였다.

제 42代 興德王은 前王의 아우로 뒤를 이었으나 無子한데다가 後繼者를 지정하지않고 돌아가니 從弟 均貞과 從姪 悌隆과의 사이에 치열한 王位계승 쟁탈전이 벌어졌다. 마침내 均貞派가 패배하여 均貞은 살해되

고 悌隆이 즉위하게 되니 이가 僖康王이다.

제 43代로 僖康王이 즉위하였으나 僖康王을 即位케 한 金明은 上大等 이 되고 그党派인 劉弘을 侍中에 任命한 다음 實權은 모두 이들이 장악하였다. 그 후 金明은 利弘과 함께 다시 군사를 일으켜 僖康王의 측근들을 殺害함으로써 王을 自縊케 하고 스스로 자립하여 王이 되니 이가 곧

제 44代 閔哀王이다. 한편 均貞의 아들 祐徵은 王位爭奪戰에서 失敗하여 僖康王이 즉위하자 金明一派의 禍를 두려워하여 그家族을 이끌고 中央政府의 統治權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던 淸海鎮으로 피난하여 張保臯에게 의탁하게 되었다. 뒤이어 같은 党派인 禮徵 良順 金陽까지 淸海鎮에 모이게 되어 派閥세력의 集結中心地가 되었다.

祐徵등은 金明(閔哀王)이 王位를 찬탈한 것을 口實로 삼아 張保臯의 힘을 빌어 慶州에 侵入하여 閔哀王의 族閥세력과 王마저 殺害하였다.

그리고 祐徵이 그 一派의 추대를 받아 即位하게 되니 그가

제 45代 神武王이다. 在位 6개월만에 돌아가고 그 아들이 즉위하였는데 이가

제 46代 文聖王이다. 侍中에는 義琮에 이어 良順 上大等에는 禮徵을 任命함으로써 자신의 一派에서 權力을 독점하였다. 神武王에 이어 文聖王으로 王位가 계승되면서 이제 王位는 均貞直系에서 獨占하게 되어 表面上으로는 王權은 安定되는듯 하였으나 中央貴族들간의 內紛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었다. 張保臯의 亂이 있기 전에도 文聖王 3年(841)에 一吉 滄 弘弼의 謀叛사건이 있었으며 張保臯의 세력이 제거된 다음에는 文聖王 9年(847)에 伊 滄 良順, 波珍 滄 興宗의 謀叛 등 11年(849)

에 伊滄 金武 大昕의 謀叛등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들의 官等으로 보아 같은 中央貴族들간의 對立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중에도 伊滄 良順은 앞서 禮徵과 함께 神武王의 王位쟁탈전에 가담하여 주요 역할을 하였고 文聖王 즉위뒤에는 侍中까지 역임한 사람이었다. 이로써 神武王 一派가 왕위쟁탈전에서 勝利한 다음에는 다시 그 一派안에서 分裂되어 對立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大昕은 앞서 金明과 祐徵의 王位쟁탈전에서 金明派에 가담하였던 者로써 그일파의 세력이 一部는 뒤에게서도 남아서 다시 挑戰하였던 것으로 본다.

제 47代 王으로 文聖王을 이어 憲安王이 즉위하였는데 在位 4年만에 아들이 없이 돌아가자

제 48代 王으로 景文王이 즉위하였는데 이는 前王의 사위이다. 景文王의 즉위사정에 대하여 三國史記, 三國遺事등은 順調롭게 이루어진것 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었다. 이는 崔致遠이 찬술한 大崇福寺碑文으로 알 수가 있다.³⁾ 또한 景文王의 即位時的 나이가 불과 16세였으니 그의 父親 金啓明이 文聖王 10年 부터 侍中으로 在職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實權은 金啓明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景文王의 父親 金啓明은 僖康王의 아들이자 憲安王의 四寸으로써 文聖王 末年부터 侍中으로 實權을 장악하고 있다가 憲安王의 死亡을 계기로하여 實力으로 그의 아들인 景文王을 즉위케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景文王의 즉위 후에도 또 다른 派閥세력에 의한 王權도전은 계속되기 마련이었다. 동王 6年の 伊滄 金銳, 金鉉 등의 謀叛伏誅, 동 14年の 伊滄 近宗의 謀叛伏誅등이 그것이다.

제 49代 憲康王 5年(880)에는 一吉滄 信弘의 謀叛伏誅사건이 있었

고

제 50代 定康王 2年(889)에는 伊淪 金堯의 謀叛伏誅등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던 것이다. 金堯의 반란은 그가 漢州에서 일으켰다는 것으로 보아 金憲昌의 亂과 같은 性格을 띠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地方세력과의 연결이 추측되는 것이다.

제 51代 眞聖女王은 定康王의 女弟로서 無子한 定康王이 돌아갈때에 善德, 眞德女王的 古事에 따라서 그女를 세우라는 遺詔가 있었음에 기인한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 女王의 즉위자체가 王室內의 복잡한 사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지리하게 계속되어 온 中央貴族들의 王位쟁탈전에서 온 政治的 不安은 國家體制의 해이를 초래하였고 그에 比例하여 地方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가혹하여 갔던 것인데 그위에 女王이 即位하고 失政까지 겹치자 “울積되어 가던 矛盾은 마침내 全國的인 반란으로 폭발하고 말았다. 이러한 全國的인 반란의 導火線은 地方農民들의 納稅反抗이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新羅下代의 王系를 정리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新羅 下代의 王系

即位年 (서기)	代數	王號	姓 諱	在位	系	摘要
765	36	憲恭王	金乾運	15	景德王太子, 母滿月 夫人 金氏	良相弑王
780	37	宣德王	金良相	5	奈勿王10世孫 父孝芳 母 聖德王女 四妃夫人金氏	
785	38	元聖王	金敬信	14	奈勿王12世孫 文孝讓 母 昌道女 繼島夫人朴氏	

即位年 (서기)	代數	王 號	姓 諱	在 位	系	摘 要
799	39	昭聖王	金俊昌	1	元聖王孫 父惠忠太子仁謙 母聖穆后 金氏	
800	40	哀莊王	金清明	9	昭聖王太子 母桂化 夫人	彥昇弒王
809	41	憲德王	金彥昇	17	昭聖王 同母弟	
826	42	興德王	金秀宗	10	憲德王 同母弟	
836	43	僖康王	金悌隆	2	元聖王孫 父憲貞 母包道 夫人	金明弒王
838	44	閔哀王	金 明	1	元聖王曾孫 父 _는 均貞 母朴 氏	祐徵弒王
839	45	神武王	金祐徵	1	元聖王曾孫 僖康王從弟 父均貞 母朴氏	
839	46	文聖王	金慶膺	18	神武王太子 母貞繼夫人	
857	47	憲安王	金誼清	4	神武王弟 母忠恭女	
861	48	景文王	金膺廉	14	僖康王孫 父啓明 母朴氏	
875	49	憲康王	金 晟	11	景文王太子 母文 王后	
886	50	定康王	金 晃	1		
887	51	眞聖王	金 曼	10	憲康王 女弟	弓裔甄萱叛
897	52	孝恭王	金 峽	15	憲康王庶子 母金氏	
912	53	神德王	朴景暉	5	阿達羅王遠孫 父又謙 母 貞和夫人	
917	54	景明王	朴昇英	7	神德王太子 母義成王后	
924	55	景哀王	朴魏膺	3	景明王, 同母弟	甄萱弒王
927	56	敬順王	金 傳	9	文聖王裔孫 父孝宗 母 憲康王女, 桂女我太后	고려王建 에降附 (935)

※ 36代 惠恭王은 中代에 속하나 이때 이미 下代의 王權쟁탈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위와 같이 36代 惠恭王에서 부터 51代 眞聖王까지의 王位계승쟁탈상황을 中心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가운데 卮王이 殺害되었고 甄萱에 의한 제 55代 景哀王까지를 합한다면 다섯王이 殺害된 것이다. 50代 景文王 즉위元年부터 眞聖王 즉위년까지 불과 29년간에는 三國史記에 기록된 謀叛사건만도 5회에 이르렀던 것이니 얼마나 王權이 不安한 상태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眞聖女王的 極度の 失政은 百姓들의 원망을 샀고 그다음을 이은 孝恭王도 賤妻에게 마음을 두고 政事를 돌보지 않자 大臣 殷影이 諫하여도 듣지 않으니 그女子를 죽이고 말았다.⁹⁾

王的 愛妻를 臣下가 죽여버릴 정도였으니 王權의 衰弱이 어느정도였는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王權쟁탈전과 王權의 不安은 經濟조직의 無秩序를 갖어오게 되고 또 그結果는 草賊 群盜와 農民의 蜂起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結局 王權의 衰弱은 신라 滅亡의 遠因이오 根本原因이 되기도 한다.

2. 新羅末期의 社會相

가. 貧富의 隔差와 百姓의 生活苦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王權의 衰微는 결국 王公貴族을 中心으로 한 社會 經濟의 허다한 결함과 混亂을 갖어 오게 된다. 經濟조직의 缺陷은 貧富의 隔差를 심하게 하였고 이는 또한 社會의 混亂을 불

러 일으켰다.

통일新羅의 領土의 擴大와 農業生産力의 발전 내지 商業자본의 축적은 오로지 王公貴族, 官僚, 豪族, 大刹, 富商등의 富의 축적을 가져오게 하는 反面에 一般 百姓들은 더욱 貧苦에 허덕이는 결과를 招來케 하였다. 신라는 그間 中國의 均田制를 채용하여 一般 丁年者에게는 一定한 면적의 丁田을 給與하였지만 貴族 官僚등 특수계급에 대하여는 地位에 相應한 給田외에 別賜田이 支給되고 기타 功勳者 篤行者에게도 따로 賜租 혹은 賜田을 주었다. 특히 免稅의 혜택을 입는 寺刹에는 寺田외에 王公貴族 기타로 부터 기부, 희사 되는 土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新唐書 新羅傳>이 잘 傳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宰相家不絶祿 奴僕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 畜牧海中山 須食乃射 息穀米千人 償不滿庸爲奴婢 王姓金 貴人姓朴 民無氏有名」이란 기록이 보인다.

여기의 宰相家是 官職을 가진 眞骨貴族 이었을 것이고 「奴僕三千人」은 私兵的인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⁷⁾

「息穀米千人 償不滿庸爲奴婢」로서 당시 社會의 平民들이 負債노예로서 전락하고 있었음을 대략 짐작 할 수 있다. 당초의 순수한 奴婢보다는 일반 平民이 몰락하여 貴族의 私兵구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貴族들은 이외에 元來부터 食邑과 田장등을 所有하였으니 3千여명의 私兵的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經濟的 기반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富와 權力을 갖인자는 少數에 불과했다. 이들

이 더욱 더 強하고 富裕해진 만큼 더욱 貧困하고 굶주려가는 사람이 많아져 갔던 것을 否定할 수 없다. 그래서 憲德王 13年에는 『民饑賣子孫自活』의 기록이 보이고

高麗太祖가 즉위한 후에 내린 詔書중에 『至使齊民賣身 ○子爲人奴婢……』의 기사로 보아 신라 下代에는 子息을 팔아 生計를 이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良民도 이 정도였으니 鄉, 部曲의 百姓들은 이보다 더 심하였을 것은 不問可知이다. 이것은 後期에 갈수록 貧富의 격차가 심하여 갔던 것이다.

더욱 看過할 수 없는 것은 寺院의 橫暴였다. 하나의 敎團세력을 形成한 各地의 禪宗寺院들은 地方豪族으로 부터 기부된 土地와 奴婢를 소유하여 免稅의 특권을 누리면서 商業은 물론 高利貸金業까지 행할 뿐 아니라 寺院 자체가 農民의 土地를 약탈하여 田庄을 擴大시킴으로써 각처에서 커다란 地方寺院의 莊園을 形成하여 가고 있었다.

한편 敎宗寺院도 이보다 못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伽耶山海印寺古蹟』에 의하면 哀莊王때에 開創된 海印寺는 同3年 王이 여기에 親幸하여 田 二千五百結을 施納하고 慶讚會를 성대하게 베풀고 還幸하였다 한다. 그러니 海印寺의 經濟的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海印寺뿐 아니라 다른 有名한 敎宗系의 寺院도 막대한 土地와 奴婢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僧侶와 寺院奴婢는 戰亂時에는 寺刹과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의 僧兵으로 化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眞聖女王때에 이르러 급속히 惡化되어 신라는 全國的이고 恒久的인 內亂의 도가니 속으로 휩쓸려 들어 가게 되었다.

즉 신라 제 51代 王인 眞聖女王은 不貞한데다가 간신배들을 가까이

하여 이들에게 國政을 一任함으로 뇌물이 盛行하고 官吏의 任免이 公正치 못하여 政治가 극도로 혼란하여 졌다.

여기에다 凶年으로 기근까지 겹치게 되니 百姓들이 流浪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民心이 동요되고, 地方의 여러 州郡에서는 租稅를 내지 않아 國家財政이 궁핍하였다. 이에 中央에서는 官吏를 파견하여 納稅를 독촉하였으나 이미 中央政府의 命令이 地方에서 施行될 수는 없었다.

地方에서는 政府의 명령에 不腹從할 뿐 아니라 오히려 政府에 對抗하는 叛亂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全國的인 內亂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農民이었다. 이들 地方의 農民들이 豪族 또는 群盜와 힘을 합칠 때에는 것잡을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을 것이다.

나. 草賊 群盜의 出現과 農民蜂起

新羅의 解體를 촉진시킨 커다란 理由 가운데 하나가 草賊 群盜의 出現과 農民暴動이라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는 9世紀 後半期가 絶頂이었지만 9世紀 前半期에도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新羅末期 農民들의 첫 대규모적인 民擾를 실증해 주는 史料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9세기 前半期の 農民暴動

資料順	年 代	事 件 內 容
자료(1)	元聖王 4年 (서기 788)	가을에 나라西쪽지방이 가물고 누리가 생기고 도적이 많이 일어나므로 王이 使臣을 보내어 위무하여 安定시켰다.

資料順	年 代	事 件 內 容
자료(2)	元聖王代 (785 - 798)	僧 영재는……늘어서 南岳에 들어가 은거하고 자 길을 가던차 大峴嶺에 이르렀더니 도적 60 여명을 만났다:……도적들은 그의 弟子가 되어 지리산에 숨어 다시 나오지 않았으니 元聖大 王시대였다.
자료(3)	憲德王 7 年 (815)	가을 8 月 西쪽 변방의 州와 郡에 큰 기근이 들어 도적이 봉기하므로 軍士를 보내어 이를 토벌하였다.
(4)	憲德王 11 年 (819)	3 月 草賊들이 四方에서 일어남으로 모든州와 郡의 都督과 太守에게 명령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
(5)	憲德王 17 年 (825)	봄正月에 憲昌의 子 法文이 고달산의 賊党百 餘名과 함께 謀叛하여 평양(지금의楊州)에 도움을 세우려고 北漢山州를 치므로 都督총명 이 가서 이를 붓잡아 죽였다.
(6)	興德王 7 年 (832)	8 月에 凶年이 들어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났 다. 겨울 10 月에 王이 사람을 시켜 百姓들을 위무하였다.

이 상 단편적인 史料들을 통하여 9世紀 前半期에 계속된 신라末期
農民들의 신라王朝의 타도와 貴族 寺院의 가혹한 租稅收奪을 반대한 草
賊 群盜들이 8世紀末 9世紀初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인용한 史料 (1), (3), (6)에서와 같이 草賊 群盜의 대규모적인 暴動時期는 대개 가을철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農民들의 어려운 시기는 봄 春窮期인데 草賊, 群盜의 대부분이 秋收期로 되어있는 것은 秋收期の 가혹한 租稅收奪 穀物수탈이 農民들을 刺戟하는 動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9世紀 전반기의 대규모적인 農民蜂起는 위 資料들에서와 같이 주로 新羅王都와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일어났고 그것도 農業生産이 가장 발달했던 西部平野지대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新羅정부가 自己힘으로 이를 鎮壓할 수 있고 또 州郡의 備蓄穀으로 百姓들을 救恤할 수 있었다.

이시기 新羅政府와 農民蜂起와의 力量의 對比는 아직 政府의 힘이 율 등하다고 하겠지만 農民蜂起는 新羅 國家의 統治기반을 더욱 弱化시켰으며 新羅王族의 뿌리를 뒤흔드는 격이 되었다.

農民蜂起가 그 絶頂에 이르렀던 9世紀 後半期の 狀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9世紀 後半期の 農民暴動

자료순	年 代	事 件 内 容
(1)	眞聖王 3年 (889)	國內 여러 州 郡에서 納稅를 하지않아…… 왕이 使臣을 파견하여 독촉하였더니 이로 말미 아마 到處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에 元宗 哀奴등이 沙伐州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 으켰다. 왕이 나마 령기에 명령하여 도적을 잡게 하였더니 령기는 도적들의 보루를 바라보고 겁

		이 나서 나가지 못하여 村主 우련이 힘껏 싸우다가 여기서 죽었다. 王이 勅命을 내려 령기의 목을 베었다.
(2)	眞聖王 5 年 (891)	궁에……대순 2 年 辛亥에 竹州 반란군의 괴수 기훤에게로 가니 기훤이 오만무례하므로…… 기훤의 部下인 元會 신훤등과 비밀히 결탁하여 벗을 삼았다.
(3)	眞聖王 5 年 (891)	겨울 10 月에 北原의 적 두목 梁吉이 그의 부하 궁예를 시켜 백여명을 거느리고 北原東쪽부락과 溟州 관내 주천등 10 여 郡縣을 습격하였다.
(4)	(892)	궁예……원복元年 壬子에 北原의 반란군 梁吉에게로 가니 환영하고 軍士를 논아주어 東쪽으로 신라領土를 침략하게 하였다. 이에 善宗이 치악山 석남사에 묵으면서 주천……등 고을을 습격하여 모두 항복시켰다.
(5)	眞聖王 6 年 (892)	이때 신라에는 王의 총애를 받는자들이 政權을 통락하매 法令이 문란한데 凶年까지 들어 百姓들은 四方으로 흩어지고 반란군이 별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견훤이 野心을 품고……한달동안 무리들이 5 천명에 달하였다.
(6)		……이때에 崔致遠이 富城郡太守로 있었는데 마침 新年을 祝賀하는 사신으로 소환되었으나 每年 凶年이 들고 따라서 도적이 四方에서 일어

(7)	(894)	<p>나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가지 못하였다. 궁예……명주로 들어가서 무리 3천5백명을 모집하여 그들을 14개 隊伍로 편성하였다.……그를 將軍으로 추대하였다.</p>
(8)	(896)	<p>궁예……건영 3年 丙辰에 승령, 립강 두고을을 쳐서 빼앗았으며……드디어 松嶽 郡으로 도읍을 정하고……먼저 양길을 쳐서 크게 깨트렸다.</p>
(9)	眞聖王 10 (896)	<p>적들이 나라 西南쪽에 일어나서……赤袴賊 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州縣들을 도륙하고 서울 西部 모량리까지 이르러 人家들을 위협하여 략탈하여 갔다.</p>
(10)	眞聖王 11 (897)	<p>여름 8 月에 王이 측근자들에게 말하기를<최초 百姓들이 궁하여지고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니 내가 德이 없기때문이다. 어진자에게 자리를 사양할 뜻이 결정되었노라>……王位를 太子 요에게 전하였다.</p>
(11)	孝恭王 4 (900)	<p>겨울 10 月에 국원, 청주, 괴양 등지의 적 두목 청길과 신훤 등이 궁예에게 城을 바치고 귀속하였다.</p>
(12)	(905)	<p>5년에 궁예가 王이라 일컬었다. 궁예……천우 2년(905)에 서울로 들어가서……年號 武泰을 고쳐 聖冊元年이라 하였다. 평양 城主인 將軍 김용이 항복하였고 증성의 赤衣賊과 황의</p>

(13)	(909)	<p>적 명귀등이 항복하여 왔다.</p> <p>……그때에 壓海縣 반란군의 두령 能昌이 섬에서 일어났는데 水戰을 잘하여 「수달」이라고 불리었다. 그는 망명한 꺾들을 모으고 葛草島에 있는 소수의 반란군들과도 서로 연계를 맺어 太祖를 해치려고 하였다.</p>
(14)	<p>太祖元年 (918)</p>	<p>6月 기졸 태평으로 수군랑중을 삼았다. 평은書史를 많이 읽었고 실무에 밝았다. 처음 鹽州賊의 두령 유금순의 기실이 되었다. 궁예가 금순을 격파하니 태평도 항복하였다.……드디어 太祖를 도와 나라를 세울때 크게 도움이 되었다.</p>
(15)	<p>景明王 2年 (918)</p>	<p>가을 7월에 尙州의 적 頭目 아자개가 사람을 보내어 太祖에게 항복하였다.</p>
(16)		<p>……定康大王이 前期에 못지않게 佛敎를 숭상하여 자주 사람을 보내어 멀리 大師의 學問과 德望을 받들고 찬양하였다. 이때에 나라운명이 亂을 만나 世上은 어려워 졌고 世上의 어려움이 無亂지계였으며 곳곳에 싸움터의 검은 연기가 일어나고 별안간 재앙이 일어나 화가 절에 미칠 두려움이 있었다.</p> <p>대순 2년 (891)대사가 尙州 南쪽으로 피신하여 잠시 조령에 머물렀는데 本山(사자산)은 兵火를 만나 절간이 全燒되었으나 대사는 미리 吉</p>

		<p>凶을 점쳐서 같이 불타버림을 면하였다.</p> <p>드디어 (대사가) 무리를 거느리고 進禮郡지경으로 들어갔는데 별안간 적의 무리를 만나 길이 끊어지고 중들은 길을 잃게 되었는데…… 적들은 놀래고 두려워 모조리 도망하고 말았다.</p> <p>이리하여 대사와 一行 중들은 賊들의 竊탈행동으로 부터 免할 수 있었는데……恨되는바는 全國各處 草賊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었다. 이때에 晝夜로 길은 재촉하여 멀리 무부에 이르렀다.</p>
(17)	<p>합통 5년 (864)</p>	<p><합통元年 4月5日에 탄생 하였다. 나이 8세에 불교에 뜻을두고……옛산(무주동리산 - 현재全南谷城部)으로 돌아와 겨우 이틀을 지났는데 갑자기 山賊이 절에 들어와 의물을 竊탈하고 바로 四方일으니 大師가 움직이지 않고…… 禪坐하고 있었다.</p>
(18)		<p><……신라末에 잠간 총지란 자가 있어 금관의 고성을 쳐서 城主로 장군이 되었더니 이때에 야간 영규란 자가 장군의 위세를 빌려 사당을 빼앗아 잡신의당 집으로 만들고……또 도적떼들이 이 사당 안에 寶物이 많이 있는 줄알고 여기와서 도적질을 하게 되었는데 첫번 왔을때는 몸에 갑옷을 입고 화살을 차고 활버틴 勇士 한명이 사당으로 부터 나와 四方으로 활을 쏘아 7 - 8명 도적을 맞</p>

		혀 죽이니 도적떼가 달아나 버렸다.
(19)		<p><반등산은 縣의 東쪽 5리에 있는 진산이다. 신라에 도적이 크게 일어나 이산에 근거하여 良家の子女들이 약취되어 갔는데 장일현의 어떤女子도 그중에 섞어 있었다. 이女子는 자기 男便이 이곳에와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풍자하여 노래를 지었는데 曲名을 「방등산」이라 하였다.</p> <p>이것이 와전되어 반등이 되었다. 장일현은 장성에 해당한다.</p>
(20)		<p><폐성은 郡의 東쪽 5리지점에 있다……고려 太祖가 東쪽을 쳤으나 山賊들이 이城에 모여 항복하지 않았는데 太祖가 봉성사의 중보양에게 물으니 「……」太祖가 이말을 좃으니 賊은 과연 패하였다.</p>
(21)		<p>정읍은 全州의 屬縣이다. 縣人이 行商이 되어 오래동안 歸家하지 않았다. 그妻가山에 올라 바라보면서 그 男便이 밤에 해를 입지 않을가 두려워 하면서 진흙물에 비유하여 노래를 불렀다. 고개에 올라가면 望夫石이 있다고 世上에 傳한다.</p>

이상 列學한 史料들을 통하여서도 889년 元宗 哀奴의 蜂起를 필두로 9세기末 全國各地에는 실로 數 많은 暴動軍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當時에 亂舞하던 暴動군들은 地域的으로 概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료(7), (12), 를 통하여 오늘 평양일대에서의 폭동군의 활동 특히 江西지방에서는 明貴를 두목으로 하는 暴徒들을 비롯하여 수 개의 暴動軍의 활동을 볼 수 있다.

2. 鱓州(黃海道 延安)지방에는 궁예의 세력과도 相當기간 대적할 수 있었던 유궁순이 지도하는 폭동군의 활동이 있었으며(자료(14)에근거)

3. 오늘 京畿지역에는 竹州(竹山)를 중심으로 箕萱이 지도하는 조직된 폭동군 부대의 활동과 一摩下元會中煊等爲友-의 내용으로 보아 京畿道の 광범한 지역을 포괄한 궁예 폭동군의 활동을 볼 수 있으며(자료 8)

4. 오늘의 忠北지방에서는 國原(忠州) 淸州, 槐壤(괴산) 등 당시 그 지방의 군사 정치적 中心地를 장악한 淸吉 莘萱등에 의하여 주도되는 폭동군들의 활동과 梁吉의 활동을 볼 수 있으며(자료 8. 11에 근거)

5. 오늘 江原도 일대에는 梁吉 궁예폭동군의 대규모적인 활동을 볼 수 있으며(자료 3, 4, 16에 근거)

6. 오늘 慶尙南北道에서는 尙州일대에서의 元宗 哀奴의 폭동, 역시 尙州에서의 阿茲盖의 활동, 淸道일대에서의 폭동군의 활동, 金官高城(지금의 金海)지방에서의 폭동군의 활동을 볼 수 있으며(자료 1, 15, 18, 20)

7. 오늘 全羅南北道에서는 고창, 반등산 일대와 完山州일대에서의 甄萱의 활동, 금산지방에서의 폭동군의 활동, 全南谷城일대에서의 폭동군의 활동, 羅州일대섬들을 중심한 能昌등을 지도자로 하는 폭동군의 활동, 유

명한 赤袴 農民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자료 5, 9, 13, 17, 19, 21)

上述한 단편적인 자료를 통하여 신라 全地域을 포괄하는 적어도 19개 계통이상⁸⁾의 폭도무리의 활동을 볼 수 있다.

그 수많은 暴動무리들의 活動중에서도 元宗, 哀奴, 赤고농민군 梁吉 궁예의 폭동군 甄萱의 폭동군등의 활동이 차지한 地域, 조직면에서 가장 강력한 暴動軍이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前記한 자료 (1)에서와 같이 納稅를 반대하여 889년에 쫓겨간 元宗 哀奴의 집압을 위하여 位階 11 등급에 해당하는 奈麻 命奇를 지휘자로 하는 武力을 동원하였다. 이에 동원된 武力은 적어도 수천명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서도 신라정부軍은 도적들에게 제압당하여 감히 전투도 못 하였다니 그 도적의 무리가 얼마나 강성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다.

처음 百餘기로 출발한 궁예의 부대는 자료(7)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894년에는 벌써 14개의 편대에 3500명의 대부대로 장성하여 오늘의 溟州, 인제 華川 金化 鐵圓 등지를 장악함으로써 궁예군은 오늘 江原道の 全域을 手下에 넣게 되었다. 이는 이곳 폭동군들이 적지 않게 궁예군에게 吸收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자료(5)에서와 같이 신라北方에서 梁吉 궁예의 무리가 한창 自己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892년에 신라 西南方에서는 甄萱이 지도하는 農民軍이 큰 세력으로 登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과 수십일만에 5,000여명의 부대를 形成하여 오늘의 全南 光州와 全北 全州를 장악 하였다. 건원 의 활동과 관련하여 「所至響應」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혹한 약탈로 인하여 百姓들로 부터 극도의 증오를 받고 있던 신라王朝의 타도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신라末期 農民들의 大衆적인 騷亂이 최고조에 達하였던 896년 옛百濟지역에서 일어난 赤袴농민군은 수다한 州縣을 습격하면서 한때 慶州 서부 무량리까지 進出하여 그곳 弘孝寺를 비롯한 寺院과 貴族의 저택들을 습격 소탕하였다. 이때 신라政府는 赤袴농민군을 소탕하기 위한 出兵도 못하였다고 한다.

이상 各地 농민폭동의 狀況을 概括할때 政府의 가혹한 租稅, 貢納, 수탈에 抗拒하여 또 中央 地方의 貴族들과 富豪들 불교 寺院들 이들과 결탁된 商人들의 온갖 억압을 반대하여 大衆적으로 騷亂한 신라末期 農民들의 투쟁은 890년을 前後한 약 10년간에 그 최고 絶頂期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草賊 群盜 農民軍의 발호는 官員들의 來往이 어려울 정도였다. 崔致遠이 唐에갈 使臣으로 選任되었으나 草賊 群盜들의 橫行으로 길이 막혀 富城郡에서 서울에 오지 못할 정도였다.(자료(6))

농민들의 계속되는 투쟁은 마침내 眞聖女王을 退位케 하는데 까지 물고개 累百年間 계속된 신라王朝의 根底를 뒤흔들어 놓았다.

신라末 폭동군의 構成을 말해 주는 資料로서는 (5)의 「嘯聚徒侶」와 衆至五千人, (7)의 有衆三千五百人, 衆心畏愛, (8)의 地廣民衆, (13)의 嘯聚亡命, (18)의 賊盜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때의 도적들이 특수한 옷차림을 하여 赤袴, 赤衣, 黃衣농민군등의 表現은 저들의 단결의 표식으로도 볼 수 있다.⁹⁾

이러한 混亂속에서 各地에서 반란을 主導한 賊將들을 百姓들은 어떻게 보았는가 아마도 그들은 한낱 도적이 아니라 無政府상태의 혼란속에서 國家再建의 꿈을 갖게 하는 開國創業의 지도자로 비치었을 것이다.¹⁰⁾

물론 그 중에는 生存의 수단으로 作黨한 자들도 있었겠으나 百姓들은 이에 다투어 呼應했고 그들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졌다.

894년(진성왕 8년) 崔致遠은 그 수습策으로서 「時務策十條」를 상소했고 897년에는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眞聖女王이 引責退位하여 그 뒤를 이은 孝恭王이 國政을 바로잡으려 애썼으나 별로 實効를 거두지 못했다. 역시 한두 사람의 努力으로는 歷史의 큰 물줄기를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었다.

3. 甄萱(後百濟), 弓裔(後高麗)의 出現

歷史의 수레바퀴는 分裂과 統一을 순환시킨다고 할 수 있다. 甄萱과 弓裔가 歷史舞臺에 등장하여 各其 나라를 세움으로써 統一신라는 三國으로 分裂된다. 다시 말하여 甄萱 弓裔의 出現은 後三國展開의 직접적인 要因이 된다. 이들의 生成過程과 理念등을 살핀다는 것은 後三國의 分立과 王建에 의한 高麗統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빠트릴 수 없는 必須課題이다.

가. 甄萱 - 後百濟王

甄萱의 出生年代는 신라 景文王 7年(867)이 된다.¹¹⁾ 그의 出生地에 대하여서는 尙州加恩縣 出身이라고 하나 全羅道地方이 더욱 有力視된다.¹²⁾

甄萱의 父가 「以農自活」했다는 것을 보면 農民出身임을 알 수 있다. 그의 父가 「阿慈介」라던가, 「견원」이란 當初부터의 이름이 있고 「甄

이런 姓은 당시 없었던 것으로 平民出身임이 틀림 없다. 李氏라는 說도 있지만 信빙할만한 根據는 없다.

三國史記 甄萱列傳에서 「及壯體貌雄奇 志氣倜儻不凡」이라 한 甄萱은 武將으로 출발하였다. 그가 武力을 세워 그 地位가 신라 西南方面 武將으로 있을 當時 政治는 極度로 어지러워 凶年과 기근은 겹치고 流民 群盜들이 到處에서 일어났다.

그가 옛 百濟지역에서 또는 張保臯가 討伐당한 湖南지방에서 百濟의 원수를 갚기 위해 義旗를 들었다고 했을 때 쉽게 커다란 呼應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旬月之間 衆至五千人」이라 한 것으로 잘 알 수가 있다. 그는 武珍州(오늘의 全南光州)를 습격하여 스스로 王이 되었으나 감히 王이라고 稱하지는 못하였다. 이때가 眞聖女王 6年(892)이고 甄萱의 나이 25歲의 青年期였다.

北原에서 梁吉¹³⁾의 세력이 强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게 「裨將」직을 遥授하기도 하였다. 甄萱이 西巡하여 完山(지금 全州)에 이르렀을 때 百姓들의 熱烈한 환영을 받았다. 孝恭王 4年(900)完山에 都邑하고 後百濟王을 自稱하면서 設官 分職했다. 設官 分職을 함에 있어서는 대체로 新羅의 制度를 그대로 襲用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34세 때였다. 집을 나선지 불과 십수년 만에 거둔 이러한 成功으로 미루어 그는 역시 비상한 才能의 소유자인듯 하다. 甄萱이 後百濟를 建國한 武珍州 全州등은 앞서 張保臯가 海上세력을 퍼던 곳이고 그후 淸海鎮 세력을 徙민한 곳도 오늘의 金堤地方이었다.

그는 對中國뿐만 아니라 日本 契丹에까지도 활발한 外交關係를 展開하였다.

半島의 一隅에는 新羅가 千年 杜稷을 근근히 지키며 있었고 北쪽에는 弓裔의 뒤를 이은 王建의 高麗가 民心을 얻고 착착 기초를 구축하여갔다. 그중에서 甄萱의 後百濟가 가장 공격적이어서 자주 新羅를 侵犯하고 高麗를 견제하여 나갔다.

934년 運州(지금 洪城)싸움에 大敗한 甄萱은 다음해인 935년 3월 아들 神劍에 의하여 金山寺에 유폐되었다가 同年 6월에 羅州로 脱出한 뒤 王建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太祖 19년(936) 9월 8일 그의 나이 70에 黃山(金山)佛舍에서 死去하였다. 파란만장의 戰진속에 50여년을 살아온 甄萱은 前進하는 歷史의 물결과 함께 허무하게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甄萱의 발자취를 통하여 그人間과 後百濟의 滅亡을 다시 한번 評價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出身은 以農自活하는 中農의 良人 上층에 속하는 집안으로서 大土地所有者가 된 新羅 貴族들로 부터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處地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바로 新羅王朝 타도의 口號를 내걸고 한때 農民蜂起의 先頭에 나설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甄萱의 後百濟 建國名分은 百濟 義慈王의 원수를 갚는다는데 있었다. 甄萱이 이르기를 「내가 三國始初 일을 상고하여 볼 때 馬韓이 먼저 일어났고 뒤에 赫居世가 일어났음으로 辰韓과 유韓이 따라서 일어났다. 이때에 百濟는 나라를 全馬山에 創設하여 그의 歷史가 600년 되었는데 唐高宗이 장군 蘇定方을 보내어 水軍 13萬을 거느리고 바다로 건너오고 新羅가 군사實力을 정비하여 黃山을 지나 泗沘에 이르러 羅唐

聯合하여 百濟를 격멸하였으니 어찌 서울을 完山에 定하여 義慈王의 오랜 원수를 잡지 않을 수 있겠는가?」이것이 甄萱의 後百濟 建國의 口實이었다. 이것은 名分일뿐 眞意는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한낱 百姓들을 自己주위에 集結시키려고 한것에 불과하다. 羅唐聯合으로 百濟를 친것을 격렬히 非難했으면서도 그가 政權을 잡게 되자 吳越國에 使臣을 보내어 연계를 피하기 까지 하였다. 「신라의 옛知慧」를 배우려 하였지만 當時 中國자체가 심한 混亂상태에 빠져(第2章 참조) 現實的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甄萱의 外交活動을 자세히 정리하여보면 ①甄萱이 세력을 잡자 弓裔의 主人이었던 梁吉에게 裨將직을 遥授하여 示威하였으며

② 925년에는 入唐 稱藩하여 「檢校大尉兼侍中 半百濟軍事……百濟王 食邑二千五百戶」라는 策授를 받아 中國측의 外交的 承認을 받은 것

③ 926년 吳越에 使臣을 보내어 吳越王으로 하여금 고려太祖 王建을 견제하는 外交文書를 쓰게하여 그것을 고려에 보내어 自己立場을 강화한 점

④ 927년 발해가 亡하고 뒤이은 契丹의 使臣이 百濟에 온 일이 있으니 이 契丹의 사신이 귀국할 적에는 回伴使 崔堅을 보낸 사실(途中 後唐에게 잡혀 被殺됨) 日本과도 外交關係를 열고자 하다가 失敗하기도 했다.

契丹과 外交關係를 열고자한 것은 高麗를 背後로 부터 威脅하는 세력을 形成하고자 한 것이었다. 어쨌던 견훤은 國際關係 變動에 커다란 關心을 갖어 이에 機敏하게 對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外交活動에 기민하였던 까닭은 그가 본래 武將으로서 西南海를 방위할때

國家의 對中무역 또는 地方호족의 對中 私貿易이 빈번하던 것을 본 데서 왔고 이때 신라政府도 자주 中國에 使臣을 보내고 있어 이와 경쟁할 必要에서도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國際관계에는 機敏하고 活動的이었으나 그는 너무도 攻撃的이고 人和力과 포용力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洞察力이 결핍되어 있었던것 같다. 여기에 그의 沒落의 필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弓裔-泰封의 出現

三國史記 弓裔傳에 의하면 弓裔는 신라 47代 憲安王 誼靖의 後宮 所生으로 그姓名과 태어 난때도 잘 알 수 없다고 한다. 혹 48代 景文王의 아들 이라고도 한다. 어쨌던 後妃소생으로 王室內의 猜忌와 暗투가 심한 가운데 태어나 出生時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된다. 弓裔가 出生한 날이 重午日(五月, 五日)인데다가 나오면서 이(齒)가 있고 光彩가 이상하여 장차 國家에 不利하다 하여 죽이려 하였다는 것이다.

뒤에 世達寺¹⁴⁾의 승려가 되어 스스로 善宗이라 稱하고 자라면서 戒律에 억매지 않고 膽氣가 있었다. 어느때 재를 올리러 가는데 까마귀가 「王」字를 쓴 뱀 조각을 주발에 띠러뜨렸는데 이때부터 스스로 投機를 품고 自負했다고 한다. 당시 신라가 衰弱하고 四方에서 群盜가 蜂起하니 이 亂世를 타서 무리를 모아 뜻을 펴 보고자 하였다.

891년 眞聖女王 5년에 竹州의 箕萱에게 投身하였으나 용납되지 않으므로 그 揮下에 있던 元會등 몇사람과 共謀한 끝에 곧 北原의 梁吉에게로 갔다.

895年 眞聖女王 9년에는 인제 華川, 金化, 鐵原, 金城 등지를 격파하였는데 이때 來降者의 무리가 많아지므로 弓裔는 鐵原地方을 점령하면서 梁吉에게서 獨立한것 같다.

그후 弓裔는 세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開國 稱君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처음으로 内外官職을 베풀었다. 이때 王隆이 松嶽郡 沙梁으로 있었는데 896년 眞聖女王 10년에 弓裔에게 來投하였으며 弓裔는 크게 기뻐하여 金城太守를 삼았다. 901年 孝恭王 5년에는 드디어 王을 稱했다. 「전날 고구려가 신라에 의해 滅亡당하고 平壤이 폐허가 된것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었다. 新羅王族으로 버림 받은데 대한 원한으로 浮石寺에 있는 新羅 前王의 画像을 칼로 치기도 하였다.

孝恭王 8年 904년에 國號를 摩震, 年號를 武泰라 하고 百官의 制度를 설치하였다.

地方 반란세력 도적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建國하는데 成功한 弓裔는 國家創建을 合理化하는 理念設定에 苦心한 것 같다. 自稱 미륵佛이라 하고 長子를 靑廣보살 次子를 神廣보살이라 하였다. 外出時에는 항상 白馬를 타고 童男 童女로 하여금 幡盡香衣를 받들고 앞에 인도하여 比兵 二百餘人으로 梵唄를 부르며 뒤를 따르도록 하였다. 궁예 自身이 經 20餘卷을 自述하였는데 僧 釋聰이 이를 邪說 怪談이라고 하였다가 打殺되었다.

궁예가 고구려의 원수를 갚는다 하고 한편으로는 自稱 救世의 미륵불이라 하여 신라 官制를 버리고 泰封官制를 만들었으며 年號를 자주 바꾼것 등은 弓裔의 獨自的 所見이라기 보다는 當時 地方社會의 여론에 迎合하기 위한 標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別 表

弓 裔 年 譜

- 891 投 竹州賊 箕萱
- 892 投 北原賊 梁吉
- 894 入溟州 自稱將軍 據鐵圓
- 898 據 松嶽
- 901 稱王 國號 後高麗
- 904 還都鐵原 國號摩震 年號武泰
- 905 改武泰爲聖冊
- 911 改國號爲泰封 改聖冊爲水德萬歲
- 914 改水德萬歲爲 政開
- 918 被殺

이제 편의上 弓裔의 大略의 年譜를 만들어 보면 別表와 같거니와 이 年譜에 나타난 弓裔의 活動을 보면 地理圖識의 迷信에서 온 것이지만 年號와 國號에 많은 關心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國號를 後高麗에서 摩震, 泰封으로 3次나 고치고 年號를 武泰, 聖冊, 水德萬歲, 政開등 4次나 고쳤다.

弓裔가 가진 政治的 제스처로서 唯一한 것은 自稱 미륵불이라 하고 그 아들들을 보살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國號를 세번 年號를 네번 고친 그의 迷信面과 一脈相通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自身の 位置를 合理化하거나 強化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제스처도 그가 중이 되어 善宗이라 이름하던 當時에 얻은 佛敎지식이랄까 僧侶의 경험을 살린 것이라 하겠으나 그것도 僧侶층의 同調조차 얻지 못하였다.¹⁶⁾

〈又自述經二十餘卷其言妖妄 皆不經之事……僧釋聰謂曰 皆邪說怪談 不可以訓 善宗聞之怒 鐵椎打殺之〉

마지막으로 金哲俊교수의 所論으로 弓裔에 대한 評價를 내려볼까한다. 外交관계나 政略에 기민했던 甄萱에 비교하면 弓裔는 너무나 단순하여 賊黨의 首로서는 能力도 있었고 人望도 얻을 수 있었으나 일단 王이 된 이후에도 將軍이상의 景運을 못가졌다. 그가 옛날의 高句麗지역에서 일어났던 關係로 唐軍을 引入하여 高句麗를 滅亡시킨 新羅에 怨을 갚는다고 표방하였지만 그 자신 新羅王族의 出身이었다. 이것은 그의 傳記에서 이른바와 같이 蓋怨生時 見棄 故有此言」이상의 것이 없었다. 또 新羅를 滅都라 부르고 新羅에서의 來投者를 誅殺하는 따위의 稚氣는 버릴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王子로 태어났으면서도 宮廷內粉으로 희생당하고 애꾸눈이된 그의 怨心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한 어두운 過去와 賊師로서 가진 武力에서 오는 것이기도 했지만 곰곰히 생각하여 보면 王族出身이라는 身分에 대한 自覺과 宮中음모의 犧牲이었다는 事實과 賊黨으로서 抬頭하였다는 經歷은 그로 하여금 性格分裂症을 일으키게 하였을 것이다. 그는 古代社會의 解體과정을 내다볼 수 있는 前進하는 위치에 설 수도 없었고 뒤로 물러서서 이미 낡아진 王族身分을 가지고 保守세력으로 自處할 수도 없게 만든 것이었다. 또한 政治理念의 결여와 過去에 대한 復讐의 執着이 드디어 그로 하여금 破壞주의자로 나서게 하여 新羅社會의 傳統에 대하여 打擊을 가하는 것으로 滿足하고 새로운 秩序의 呼吸은 생각지도 못한 것 같다. 물론 弓裔의 세력의 礎기반이 賊黨的 性格이 짙은 것이어서 마지막까지 그러한 性格에서 이탈하지 못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政治的 제스처로 내세운 미륵佛이라는 自稱도 神通力을 빙자하여 臣下들을 공갈하기 일수였으니, 요컨대 그의 政治手段과 政治理念으로서는 새로 대두하고 있는 豪族세력이나 能力있는 臣下들을 조정하든가 포섭하는 精神的 自信이 없었던 데서 나온 것에 不過하다.

이리하여 將軍의 자격은 있으나 王者의 政治能力을 못가진 稚氣가 득한 弓裔나 事態收拾에는 敏活하나 앞을 내다보는 洞察力이 不足하고 이렇다할 경륜을 못 가졌던 甄萱은 그들의 一生을 허비하여 舊新羅의 傳統的인 세력에 打擊을 加하여 王建이 대두할 수 있는 基盤을 준비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¹⁷⁾

4. 新羅 首都의 偏在的 缺陷性

後三國의 鼎立과 角逐의 형세는 마치 前三國時代의 그것을 그대로 再現시킴과 같은 感이 있다. 三國시기 新羅의 首都 慶州를 統一후에도 그대로 삼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不合理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首都圈의 東南 한 구석에 偏在되어 있었다는 缺陷이 신라 崩壞의 직접적인 原因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崩壞에 이르는 過程을 促進시킨 間接的인 原因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統一新羅는 강력한 中央集權下에 全國의 行政區劃을 5小京, 9州 117郡 293縣으로 나누고 軍事조직網을 6停 10停 9誓幢, 5州誓, 3邊守幢으로 改編강화한 바 있다. 마치 거미줄 치듯 몇 겹으로 쳐놓아 鐵桶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同時에 그 僞政者들의 用意周到함을 감탄케 한다.

그러나 首都를 韓半島의 東南쪽 一隅에 位置케 한 것은 統一신라의 큰 缺陷이었다. 北쪽과 西쪽의 交通의 均형을 너무도 잃은 首都의 偏在는 그것이 韓半島 全體를 管轄하는데 있어서 그 機能을 민활케 하기 어려운 결함이었다는 점을 누구도 否定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首都偏在의 不便함을 느끼기는 하였던 것 같다. 統一初期인 神文王 9年(689)에 遷都를 계획하여 候補地를 겨우 達句伐(오늘의 大邱)로 定하였다가 實行에 옮기지 못한 일이 있다. 아마 安逸을 일삼고 進取性이 약한 停滯性으로 因하며 遷都目的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首都 偏在의 缺陷性은 왕왕 멀리 떨어진 北쪽 지역과 西쪽지역을 근거로 中央政府에 對하여 反旗를 드는 反亂行爲를 誘發케 하는 間接적인 要因을 이루었던 것이다.

神文王 4年(684) 報德國(오늘의 益山) 遺民의 반란, 憲德王 14年(822)에 熊川州(지금의 公州) 都督 王族인 金憲昌이 任地를 근거로 하여 일으킨 반란, 同王 17年(825)에 그아들 梵文이 高達山(지금 驪州?)의 賊 壽神등과 謀叛하여 都邑을 지금 「서울」 부근에 定하려고 北漢山城을 치다가 失敗한 반란, 또 定康王初年(886) 漢州(지금의 廣州)의 伊滄 金堯의 반란등은 모두 成功하지는 못하였지만 후일 西南쪽 北쪽에서 일어난 甄萱 弓裔의 二大反動세력에 대한 前奏曲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前後의 遠西 遠北의 反旗가 首都의 偏在的 결함성을 如實히 代辯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만일 신라의 首都가 統一에 수반하여 훨씬 中央지대로 올라와 지금의 天安이나 稷山부근으로 移都하였다면 末期에 있어서의 그 分裂의 樣相은 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며 各地에서 蜂起하는 草賊 群盜들을 어느정도 진압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第3章 王建的 登場

우리 나라 歷史發展 過程에서 一時的으로 나타났던 後三國의 分裂은 當時 百姓들의 統一指向을 받아들여 具體的으로는 王建에 의하여 統一이 成就되었다. 王建을 빼 놓고 後三國統一을 이해할 수가 없다. 때문에 그가 當時 어떤 계층을 대표하고 있었으며 어떤 過程을 거쳐 王位에 까지 올르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本章에서는 王氏世系와, 弓裔 밑에서의 王建, 그리고 王建의 後三國統合과정 등으로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1. 王氏 世系와 그 分析

王建的 家系는 金寬毅의 編年通錄을 引用한 高麗史 序頭の 〈高麗王室의 世系〉를 통하여 그 來歷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다.¹⁸⁾ 고려사 序頭に 실린 〈高麗王室의 世系〉는 하나의 說話로서 허황한 內容들이 많으나 現存하는 資料로서는 唯一無二한 것인 만큼 王建의 歷史的 性格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이를 研究, 分析하는 도리 밖에 없다.

우선 그 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聖骨將軍을 자칭하는 虎景이 白頭山으로 부터 扶蘇山으로 와 妻를 얻어 살았다. 財産은 많았으나 아들이 없었고, 사냥으로 일을 삼았다. 하루는 9人的 동리사람과 같이 平那山으로 사냥을 갔다가 不幸을 만나 오직 虎景만이 범의 도움으로 살아 남아 扶蘇山 과부 山神과 結婚하였다.

虎景은 그후에도 本妻를 잊지 않았고 本妻의 몸에서 康忠이란 아들을 낳았다.

康忠은 西江永安村 富者の 딸 具置義를 얻어 五冠山摩訶岬에 살았다. 하루는 신라의 風水가 와서 郡을 扶蘇山 南쪽으로 옮기고 扶菴山에 솔(松)을 심어 岩石이 露出되지 않게 하면 三韓을 統合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康忠은 그의 말대로 하였으며 후에 千金을 물었고 두 아들을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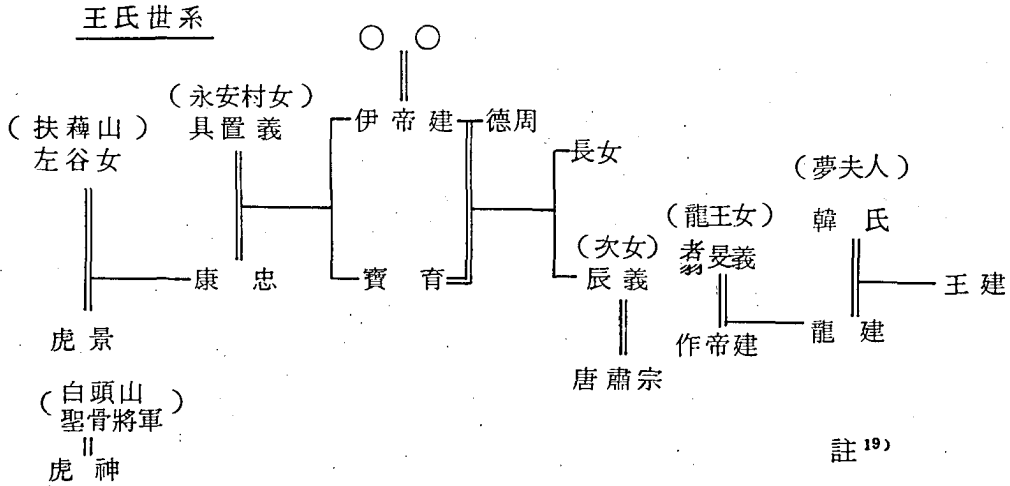
康忠의 季子 寶育이 일찌기 鵠嶺에 올라 오줌을 누니 그것이 三韓山川을 뒤덮는 꿈을 꾸었다. 寶育의 兄 伊帝建은 이 말을 듣고 동생이 반드시 훌륭한 子息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딸 德周와 結婚시켰다.

寶育은 딸 兄弟를 낳았다. 후일(753) 次女 辰義는 天下를 유람하는 唐나라 肅宗皇帝와 緣分이 맺어져 作帝建을 낳았다.

作帝建은 16세때 그 父를 찾아 黃海를 건너다가 西海 龍王의 請을 들어 龍王을 괴롭히는 악마를 射殺하였다. 西海龍王은 作帝建에게 自己 딸 翫旻義를 안해로 삼게 하고 많은 寶物을 주어 돌려 보냈다.

作帝建과 翫旻義의 사이에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長子가 龍建이다. 龍建은 꿈에 본 바가 있는 어떤 女子와 結婚하여 松嶽 옛집에 살았고 그 南쪽에 새로 집을 지었다. 이때 有名한 風水 道詵이 龍建의 집에 와서 明堂을 잡아주고 새로 36間 집을 지으면 來年에 반드시 聖人을 出産할 것이라 하였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高麗太祖 王建이었다》 이것이 〈高麗王室의 世系〉에 실린 說話의 줄거리다.

이것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 說話의 내용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說話에 나오는 地名들이 白頭山, 扶菴山(후에 松嶽山), 扶菴郡(후, 송악군), 平那山(성거산, 구룡산이라고도 하며 長端北 30里 지점), 西江永安村(西江은 禮成江), 五冠山 摩訶岬(長端西쪽 12 Km 지점), 智異山, 鵠嶺, 白州(白川), 開州(開城), 貞州(開城근방 어느 지점) 鹽州(延安), 江華, 喬洞 河陰(江華 西쪽에 하음 고현이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

王氏의 出發點으로 되어 있는 白頭山과, 寶育의 修道處로 되어 있는 智異山을 제외하면 이 說話에 나오는 地名들은 例外없이 오늘의 開城, 長端 一帶를 中心으로 한 中部 西海岸 지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新羅末 王氏의 活動舞臺가 바로 開城 長端등지를 중심한 우리나라 中部 西海岸의 肥沃한 平野지대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둘째로 〈부유하였으나 아들이 없었다〉, 〈西江永安村 富者の 딸 具置義에게 장가를 들었다〉, 〈累千金의 재산을 모았다〉, 〈… 많은 寶物을 주어 보냈다〉 등으로 보아 王建의 祖上들은 일찍부터 中部 西海岸一帶에 살면서 많은 財産을 모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說話에 나오는 王建의 祖上들은 姓을 가지고 있지않고 王建 즉위후 王字를 떼서 姓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또 〈平那山の 과부 山神과 결혼〉, 〈西海龍王의 딸과 결혼〉 등 허황한 內容이 많다. 이는 바로 新羅의 名門大族이 아니라 身分的으로 보잘것 없는 家門이었기 때문에 王建이 高麗王朝 創建者가 된 후 그 王統의 神聖함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荒唐한 內容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는 생각되지 않는다.

네째로 說話중 作帝建은 그 父를 찾으려고 西海를 건느다가 西海龍王의 원수를 갚아준 공으로 더욱 큰 財富를 얻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왜 作帝建의 活動舞台를 海上으로 끌고 갔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王建의 祖上和 관련되는 어떤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것은 眞聖女王 씨의 居陀知²⁰⁾의 說話에서 좀더 明白한 바와 같이 이상 說話들은 당시 海賊과 어떤 關聯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作帝建은 王建의 祖父이다. 따라서 作帝建이 活動하던 시기는 王建으로 부터 50~60年前일 것이 分明하며 이는 9世紀 初. 中葉에 해당하는 시기로 된다.

張保臯가 西海에 橫行하는 海賊을 막기 위하여 青海鎮을 건설한 것

이 828年이었다는 事實을 고려하면 作帝建이 西海 龍王의 원수를 갚았다는 說話는 그가 海賊과 싸워 이긴 사실을 反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說話의 내용중 作帝建의 妻가 늘 西海龍宮에 出入하였다는 것, 또 후일 王建이 유명한 海軍 장군으로서 弓裔에게 服務하면서 궁예에게 舟楫之利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한 사실등을 綜合하여 생각한다면 王氏는 新羅末期에 西海上에 상당한 海軍力을 가지고 海賊도 제어하면서 海上 무역으로 많은 富를 축적하였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섯째로 康忠은 <상사찬>의 위계를 自稱하고 마음대로 郡을 옮기었으며, 作帝建과 유상희등은 자의로 郡縣의 百姓들을 동원하여 城과 宮室등을 건축하여 그곳을 자기 근거지로 하는 정도로 完全히 國家主權으로 부터 獨立한 存在로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全國의 支配를 꿈꾸고 있는 存在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王氏의 活動舞台가 高句麗領域이었던 오늘 開城지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王室의 世系>에는 그 祖上의 첫 출발점이 白頭山으로 되고 있다. 또 作帝建을 高麗人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 王建이 國號를 高麗로 宣布한 사실등을 綜合하면 王建의 조상은 옛 고구려人이었으리라고 생각되며, 王建이 卽位후 고구려 故地 收復에 힘을 기울이는 데는 까닭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상 모든 사실을 綜合할 때, 高句麗의 遺民으로, 처음 그 身分은 寒微한 存在였으며, 新羅 近方인 中部 西海岸 一帶에 살면서 점차 致富하였고 新羅末 西海上에 상당한 海上세력까지 가지고, 西海貿易에 종사하여 더욱 致富하였으며 新羅의 세력이 더욱 衰退해 가면서 新興세력

으로 登場하여 갔음을 알 수 있다.

2. 弓裔 部下時期 王建의 活動

여기서는 王建이 弓裔의 部下가 된 때로부터 弓裔의 暴政이 날로 거듭되어 그는 마침내 逐出되고, 王建이 王位에 오르기까지의 活動狀을 주로 考察하고자 한다.

建의 少年時節을 傳해 주는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弓裔의 軍隊가 漢江地域 一帶로 北進해 올때까지 王建은 比較的 平탄한 環境속에서 成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弓裔의 勢力이 침투해 들어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王建도 戰亂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즉 궁예가 政府體制를 갖추던 895년에 禮成江 一帶의 다른 勢力家들과 함께 그의 父 龍建을 따라 弓裔의 部下가 되었는데 그때 建의 나이 19세였다. 이때 弓裔는 王建을 鐵原郡 太守로 삼았다고도 하고 혹은 龍建을 金城太守로 삼고 王建으로는 松嶽에 救禦 塹城을 쌓게 하고 그 城主로 삼았다고도 하며 文獻上의 記錄이 一致하지 않는다. 하여튼 王建은 이때부터 궁예의 部下가 되었다.

弓裔의 部將으로서 王建은 여러 戰爭터를 東奔西走하여 많은 功을 세웠다. 이러한 建의 活動은 주로 다음의 세 方面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京畿道 및 忠淸道 地方에 대한 攻略이었다. 王建은 898年 精騎大監에 任命되어 軍士를 거느리고 高陽을 쳐서 오늘의 서울 一帶를 차지하였고, 900년에는 軍隊를 더욱 漢江 以南으로 南下시켜 廣州, 淸

州, 忠州, 唐津, 槐山 등지를 攻略하여 忠清道 地方에 까지 힘을 펼치
었다.

이리하여 漢江上流지방세 국한되던 弓裔의 領土가 漢江 下流의 넓은
平野지대에 까지 擴大되었던 것이다.

둘째는 慶尙道方面에서의 活動이었다. 弓裔와 甄萱의 세력이 直接 마
주쳐서 싸우는 慶尙道の 北部와 西部, 즉 小白山脈의 기슭이었다. 그것
은 그들의 공격目標가 모두 新羅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相對方이 신라
로 進出하는 通路를 차단하려고 하였다.

王建이 906년에 尙州에서 甄萱의 軍과 싸워 여러 차례 勝利를 거둔 것
은 이러한 作戰에 의한 것이었다.

세째는 海軍에 의한 全羅道 方面에서의 作戰이었다. 全羅道の 羅州지
방을 經략한 軍事的 目的은 전횡을 後方에서 攻擊하여 그의 다른 方
面에서의 作戰을 견제하는 한편 바다를 거쳐 中國과 通하는 것을 막
으려는 데에 있었다. 王建이 海軍의 動員에 着眼한 것은 그가 일찍부
터 海上活動에 친숙하여 왔기 때문이었을 것은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
다.

王建의 羅州 경영은 前後 5회에 걸쳐 行하여졌다. 第1次는 903년
이었는데 이때에 그는 羅州와 그 附近의 10餘郡을 攻擊하고 거기에 軍隊를
주둔시키고 回軍했다.

그뒤 909년에 재차 羅州에 出動하였는데 이때에는 軍事的인 目的이
외에 교만해 진 弓裔의 시기심으로 因하여 害를 입을까 두려워한 나
머지 그의 安全을 岬하려는 理由도 곁들여 있었다고 한다. 이 第2次
攻擊에서 王建은 甄萱이 中國으로 派遣하는 船舶을 나포함으로써 甄萱

의 對中外交를 방해하였다. 이해에 王建은 또 다시 珍島를 비롯한 附近 여러 島서까지 攻略하였고, 전환이 直接 지휘하고 나선 後百濟의 大海軍과 接戰하여 이를 거위 섬멸시키는 大戰果를 거두었다. 또 「水獺」라는 別名을 듣는 海賊의 頭目 能昌을 붙잡아 죽이었다.

이 結果 重要하던 羅州 지방의 人心이 安定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큰 功勞로 인하여 王建은 弓裔로 부터 最高의 官職인 侍中에 任命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暴惡한 弓裔의 側近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 王建은 侍中の 벼슬을 버리고 다시 2次나 羅州로 갔던 것이니 914년의 일이었다. 이 같이 수次的 海上作戰을 함에 있어서 훌륭한 戰艦이 必要함을 느껴 많은 艦船을 建造하기도 하였다. 建造된 艦船중에는 四方이 十六步로서 그 위를 말이 달릴 수 있고 높은 樓를 세워 堂堂한 모양을 한 것들도 있었다고 한다. 王建의 海上作戰은 그의 많은 軍事活動중에서도 特記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將軍으로서뿐 아니라 戰略家 내지는 政治家로서도 弓裔 때 부터 적지 않은 功을 세운것 같다. 例컨대 그가 弓裔에게 進의했다는 安邊拓境策은 비록 그 內容은 알 수는 없으나 邊境지방을 平安케 하고 領土를 擴大하자는 方策이었을 것이다. 이 建議를 받은 궁예는 꼭 기특히 생각하였고 左右의 臣下들도 또한 王建의 人物에 注目하게 되었다고 한다.

王建은 온건한 性格의 소유자로서 시기심 많고 포악한 弓裔 밑에서도 自重해서 無事함을 얻었다. 만일 弓裔가 지나치게 暴惡하지 않았던들 王建은 한 사람의 有能하고 忠直한 臣下로서 그의 一生을 마치지 않았

을까 하고 생각될 정도다. 禍가 미칠까 두려워 하며 되도록이면 궁에
가 있는 鐵原을 떠나서 一線에 나가기를 自願한 사실, 또는 羅州의 먼
곳에 出征한 部下들이 不平하는 것을 무마하여 勤王의 정신을 다할 것
을 타이른 사실등은 이러한 면을 설명해 준다.

古鏡識의 豫言이 생기게 된 경로를 분명히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
러나 弓裔의 포악함이 그 亡할 징조를 나타내고 王建의 德望이 높아
人心이 그리로 쏠리게 되자 弓裔를 逐出하고 王建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一部에서 태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王建을 추대하는데 主動이 된 人物은 洪儒, 裴玄慶, 申崇謙, 卜智謙 등
네 사람이었는데 이들의 권고를 받은 王建은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으
나 부인 柳氏가 손수 감옥을 입혀 죽에 이르러 王建도 드디어 決心
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런 마음의 準備가 없이 갑자기 決心이 설
수 있을까만은 王建의 人品의 一面을 엿보게 하는 逸話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現實化되어서 918년에 王建은 弓裔를 내쫓고 代身 王
위에 올랐다. 當時 그의 나이 42세였다.

3. 高麗王建의 後三國 統合過程

王建은 王位에 오르자 國號를 高麗, 年號를 天授라 하였다.

王建은 또 首都를 자기의 本據地인 松嶽으로 옮겼다. 弓裔가 新羅王
族出身으로서 賊黨에 投身한 根據地 없는 人物이었음에 대하여 王建은
地方의 豪族出身으로서 自己의 몇몇한 勢力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王建은 松嶽이 故鄉이라는 장점외에 風水地理說에 의한 人心의 收拾이라는 또 하나의 利點을 얻은 셈이다.

本章에서는 松嶽에 都邑을 옮긴 후부터 三國間的 對立 충돌과 服屬 過程을 살피고자 한다. 그러나 後三國이라고는 하지만 新羅는 이미 겨를 힘을 喪失한 處地였기 때문에 後三國의 統一過程은 주로 高麗와 後百濟 사이에서 展開된 것이 一般的이었다.

太祖가 즉위한 후 삼국의 外交는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로 使臣을 교환하고 太祖의 즉위를 치하하기도 하였다. 太祖 3年(920) 10月 陝川, 金海地方을 ²¹⁾ 甄萱이 침략하면서 新羅에 대한 影響力 行事的 確保를 위하여 싸운다는 새로운 一面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太祖 4年 2月에는 達姑狄 ²²⁾ 171人의 新羅侵入에 王建은 將軍 堅權으로 邀擊하여 大敗시키니 新羅王이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謝意를 表했다. 5年 7月에는 江陵의 豪族 順式이 아들을 보내어 降附해 오고 11月에는 慶北地方의 眞寶城主 洪術이 來降해 왔다. 6年 8月에는 碧珍郡將軍(慶北 星州) 良文이 甥姪 圭奭을 보내어 來降했다. 이 뒤 7年과 8년에는 甄萱軍과 慶北 安東地方, 忠南의 公州地方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太祖 8年(925) 甄萱과 和議가 이루어져 太祖는 堂弟 王信을, 甄萱은 外甥 眞虎를 交質하고 甄萱이 10年이 年上이므로 尙父로 稱하였다. 이 때 新羅의 景哀王은 이를 듣고 甄萱이 反復多詐하여 和親할 수 없다 하였다. 이는 이 두나라의 和親이 新羅에 가하는 壓力을 증대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9年 4月에 眞虎가 高麗에서 病死함에 故意로 죽었다고 의심하여 王信을 옥에 가두어 곧 죽이고 公州로 進軍

했다. 이때 景哀王은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甄萱이 盟約을 어기고 군사를 일으키니 하늘이 반드시 돕지 않으리니 大王은 한번 威勇을 보이면 甄萱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고 하였다.²³⁾ 이것은 高麗와 後百濟와의 戰爭을 일으키어 新羅의 安全을 그만큼 延長시키려는 苦衷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이때부터 後三國時代는 더욱더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太祖 10年(927)은 多事多難했던 해로 역사상 보기 드문 큰 사건이 發生한 해이다. 甄萱이 慶州를 急襲하여 景哀王이 慘變을 당하기도 했지만 高麗 太祖는 九死一生으로 살아 남기도 하는 한편 1年の 반 이상을 戰場에서 보낸 해가 아닌가 한다.

太祖는 1월에 醴泉地方을 쳐서 항복시켰는데 이때 新羅가 원병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3월에는 洪城을 쳐서 城主 兢俊을 降服받았다. 또 聞慶地方을 쳐서 함락시키고 海軍으로 慶尙道 南海地方의 여러 섬을 攻陷하였다. 7월에는 金樂 등으로 陝川을 攻破하였다. 太祖가 慶南地方에 가다 聞慶을 지날 때 城主 興達이 아들을 보내어 항복했다.

甄萱은 太祖 10年 1월부터 8월까지의 싸움에서 雌雄을 결할 수 없게 되매 新羅와 高麗의 連絡을 破壞하면서 一舉에 優位를 確保하고자 10월에 慶州에 侵入하게 된 것이었다. 甄萱이 聞慶地方에서 永川을 거쳐 慶州를 위협하니 新羅는 太祖에게 救援을 要請하게 되었다. 太祖는 公萱 등에게 兵一萬을 주어 떠나게 하였으나 도착하기 전에 甄萱이 慶州에 突入하였다. 景哀王이 鮑石亭에서 宴樂에 精神이 빠져 있어 이를 죽이고 掠奪을 恣行한 뒤 景哀王의 表弟 金傳을 王으로 삼고 王族 및 珍寶를 취하여 돌아갔다. 太祖가 精騎 五千을 이끌고 大

邱公山에서 邀擊하다가 大將 申崇謙과 金樂이 戰死하고 太祖는 간신히 목숨을 구할 정도로 大敗하고 말았다.

甄萱의 慶州襲擊은 完全히 突發的인 것이었다. 景哀王이 甄萱을 자극한 것이었다. 甄萱이 慶州를 襲擊하여 威勢를 떨쳤지만 이것이 新羅人의 向背를 定하게 하여 얻은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결과를 낳았다. 당시 新羅勢力은 겨우 慶州一帶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東北 慶尙道地方에 있는 群小豪族들이 獨立해 있으면서 後三國의 어느 한쪽에 歸附하려 觀望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甄萱의 慶州奇襲은 太祖 13年 蔚山以北의 110餘城이 高麗에 항복하는 등 이들 豪族들이 결국 高麗로 돌아가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甄萱의 慶州襲擊 以後에는 高麗와 後百濟의 勢力다툼은 더욱 激烈해진다. 甄萱이 大邱公山 싸움에서 大勝한 후 10.11월에 걸쳐 慶尙道 西部一帶, 漆谷, 星州 등을 攻掠하였다. 그해 12월에 甄萱은 太祖에게 長文의 外交文書를 보내고 太祖는 1월에 答書를 보냈다. 이 글은 崔承祐와 崔彥摛가 쓴 것으로 추측된다.²⁴⁾ 이것은 두나라 사이의 관계와 太祖와 甄萱의 政治的 性格을 아는 중요한 것이다.

甄萱과 王建이 外交文書를 交換하고 난뒤 兩國間의 戰爭의 趨移와 變貌는 대단히 복잡하게 나타난다. 史料에 나타난 것을 中心으로 列舉하여 살펴본다. 太祖 11年 1월에 江陵의 將軍順式이 來朝하니 王氏 姓을 下賜하고 大匡을 삼았다. 高麗의 金相과 直良 등이 晉州를 구하려 草溪를 지나다 城主 興宗에게 敗하여 金相을 잃은 것을 보고, 5월에 南海固城地方에 食糧을 運送하다 甄萱에게 습격당하여 300여명이 죽은 것을 보면 甄萱이 慶州襲擊 이후에 高麗의 勢力圈에 있는 晉州地方을

攻略하여 점령한 것으로 알 수 있다. 7月에는 報恩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淸州에 행차했다. 後百濟軍이 淸州를 攻擊하였으나 庾黔弼이 湯井郡(濫陽)에서 來援하여 격퇴했다. 8月에는 後百濟 將軍官昕이 永同地方에 城을 쌓을 때 太祖가 王忠으로 軍士를 이끌고 追擊하여 官昕이 慶尙道로 후퇴하도록 했다. 11月에는 甄萱이 軍士를 선발하여 安東地方을 攻擊하여 烏於谷城을 빼앗고 戊卒 1천인을 죽이고 將軍楊志, 明式 등이 後百濟에 항복했다. 太祖 12年 7月 甄萱이 甲卒 5千으로 義城府를 侵略하여 城主將軍洪術이 전사했다. 또 甄萱이 榮州地方을 侵略하여 將軍元奉이 逃走했다. 10月 後百濟 甄萱이 聞慶地方을 攻擊하여 高思葛伊城主 興達이 戰死하고 尙州加恩縣을 包圍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와 같이 곳곳에서 甄萱이 高麗를 攻擊하여 威勢를 떨치고 있었으나 결정적인 타격은 주지 못했다. 12年 12月 甄萱이 安東을 包圍하여 太祖가 이를 구하려고 禮安鎮에 이르러 庾黔弼의 주장으로 古昌郡(安東)을 攻擊하여 승리하였다. 太祖 12年 12月부터 13年 2月까지 3個月에 걸친 慶尙道北部, 즉 安東地方에서의 古昌郡 瓶山戰鬪는 後三國時代의 가장 큰 戰鬪였다고 할 수 있다.

이 戰鬪에서 8千餘人을 사로잡는 大勝을 거두어 앞선 公山敗戰을 雪辱한 셈이다. 이후 甄萱은 安東地方에 더 이상 侵入을 하지 못하고 東海岸地域의 모든 郡縣이 太祖에게 來降하게 되었다.

安東戰鬪가 끝나자 太祖가 天安地方에 행차하여 天安府로 만들고 都督을 둔 것은 戰爭이 새로운 段階로 들어감을 말하는 것이며 이 地域을 後百濟 攻略의 中心基地로 삼았음을 알게 한다. 이에 앞서 禮山

鎭을 만들어 徙民하였고, 湯井郡(溫陽)에 城을 쌓은 것도 이 地域을 後百濟 攻擊基地로 삼으려는 하나의 준비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후에 後百濟를 最後로 攻略할 때도 이곳에서 軍士를 정비하여 出征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한편 後百濟는 古昌瓶山戰鬪 이후 羅州地方을 攻略한 것 같고 海軍으로 京畿道 西海岸地方을 奇襲했다. 또 太祖 16年에 後百濟 神劍이 慶州를 다시 奇襲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²⁵⁾ 그것은 庾黔弼이 80명으로 물리쳤다는 것으로 보아 小規模의 기습작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太祖 17年 9月の 洪城戰鬪는 高麗와 後百濟의 大勢를 完全히 결정한 듯한 것이다. 이때 太祖는 戰爭을 피하여 和親하고자 하였으나 庾黔弼이 싸우기를 주장하고 後百濟軍의 陣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勁騎 수천으로 突擊하여 3천여급을 斬獲하고 勇將들을 사로잡고 大勝하여 熊津以北 30餘城이 이를 듣고 스스로 降服해 왔다. 이때의 勝利로 錦江以北의 땅이 모두 高麗의 領土로 된것 같다.

古昌瓶山戰鬪 以後 羅州地方이나 西海岸地方이 後百濟의 勢力圈에 있었음은 太祖 18年(935) 4月 諸將을 모아 놓고 「羅州 40餘郡이 우리 울타리가 된지 오래인데 最近에 後百濟가 劫掠하여 6年間이나 海路가 不通하였다.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이를 鎮撫하겠는가?」라고 말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公卿들이 庾黔弼을 천거하며 이를 都統大將軍으로 삼아 禮城江에서 출발케 하였다. 庾黔弼이 羅州에 가서 經略하여 성공하고 돌아오니 太祖가 禮城江에 행차하여 그 勞苦를 致賀하였다. 이와 같이 羅州地方이 잠시동안 甄萱의 支配下에 있었던 것 같지만 대체로 羅州, 晉州 등 南海岸의 諸島嶼는 高麗가 장악하여 後百

濟를 양면으로 위협할 수 있었고 海上活動에 있어 壓倒的인 優勢를 보였던 것이다.

洪城戰鬪 以後 長子神劍에 의해서 金山寺에 幽閉되었던 甄萱은 3個月만에 脫出하여 羅州를 거쳐 高麗에 投降하게 되었다. 甄萱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네째 金剛을 총애하였는데 이를 시기한 二子, 三子 良劍, 龍劍 등이 神劍과 共謀하여 金剛을 죽이고 父王을 몰아낸 것이다. 太祖王建은 庾黔弼 등으로 海路를 經由하여 開京으로 맞아들였다. 太祖는 甄萱을 尙父라 稱하고 南宮에 머물고 位는 百官의 上에 두어 楊州를 食邑으로 주고 金帛과 奴婢 40口와 말 10匹을 주어 융성한 대접을 하였다.

같은 해 10月 敬順王이 侍郎 金封休를 보내어 歸順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太祖 14年 王建은 新羅를 親善訪問하여 新羅人의 환심을 샀다. 이때 慶州의 男女들이 「앞서 甄萱이 왔을 적에는 늑대와 호랑이가 온 것 같더니 지금 王公이 온것은 부모를 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新羅人의 動向이 그 뒤 後三國의 形勢를 바꿔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甄萱까지 高麗에 歸順한 이상 敬順王이 이름만의 王座를 지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麻衣太子와 같은 사람의 반대도 있었으나 高麗에 의 歸順을 決行하게 된 것이다.

甄萱이 投降하고 敬順王이 來附한 이상 後百濟의 運命은 時間問題로 남게 되었다. 甄萱의 사위이며 順天地方의 豪族으로 추측되는 朴英規가 高麗에 歸順한다. 甄萱이 神劍을 討伐할 것을 청하여 太祖는 太子 武와 朴述希로 하여금 步騎 1萬으로 天安府에 나가게 한뒤 太祖도 뒤에 合兵하여 善山地方으로 進擊하였다. 이때 合勢한 兵力 중에는 江陵

의 王順式과 같은 豪族勢力의 軍士도 많이 參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後百濟의 神劍軍과 對戰하여 勝利하고 이를 追擊하여 黃山에서 最後決戰을 勝利로 이끈 것이다. 天安에서 직접 黃山地方으로 攻擊하지 않고 善山地方으로 進擊한 것은 일종의 示威라고 볼 수 있고 星州 등지의 李愔言과 같은 勢力의 呼應을 받으려 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太祖는 建國한지 18年만에 수많은 戰鬪에 종사하면서 各地의 豪族 勢力을 統合하면서 民族의 再統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것이다.

第 4 章 後三國 人民 (百姓) 들의

統一指向性

統一新羅의 單一體制下에서 安住해 오던 當時 百姓들이 세계의 나라로 分裂되어 갖가지 苦痛을 겪어가면서 40餘年을 살아 오는 동안 統一에의 指向이 어떻하였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편의상 王建의 統一의지, 百姓들의 統一指向性, 隱語 豫言을 통해 본 統一指向性으로 나누어 考察하려 한다.

1. 王建의 統一意志

王建이 弓裔를 계승하기 以前부터 史料에는 三韓統合이라는 用語를 자주 볼 수 있다. 『... 하루는 신라의 風水가 와서 郡을 扶蘇山 南쪽으로 옮기고 扶蘇山에 솔을 심어 岩石이 露出되지 않게 하면 三韓을 統合할 子を 낳을것이라고 말 하였다. 이 말을 들은 康忠은 그대로 하였더니 千金을 모았고 두 아들을 낳았다.』

『康忠은 季子 寶育이 일찌기 鶴嶺에 올라 오즘을 보니 그곳이 三韓山川을 뒤덮는 꿈을 꾸었다. 寶育의 兄 伊帝建은 이 말을 듣고 동생이 반드시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自己 딸 德周와 결혼시켰다.』 (위 王氏世系 참조)

이와 같이 王氏世系는 當初부터 三韓統合의 意志로서 出發되고 있다.

또 王建의 父 隆(龍建)이 아들을 다리고 弓裔의 麾下에 들어갈 때 弓裔를 달래어 『大王이 만일 朝鮮, 속傾 變환의 地에 王하려 할 진대, 먼저 松嶽을 城築하고 나의 長子로써 其主를 삼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니 弓裔는 그말에 좃아 王建으로 하여금 敎禦塹城을 쌓게 하고 城主를 삼았다.』는 것이다.²⁶⁾

王氏世系를 그대로 믿을것인가는 별문제로 하고 어쨌던 王建祖上들의 三韓統속에 대한 念願은 그子孫인 王建에게 그대로 傳承되었을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王建은 그가 王位에 올라 松嶽으로 移都한 후 거기에 法王寺, 王輪寺를 비롯한 많은 寺刹를 建立했다. 이는 말할 것도없이 統一사업에 佛敎의 은혜를 빌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특히 開京의 水德이 順調롭지 못한 것을 稗補하기 위하여 開京을 흐르는 여러 물줄기의 上流나 中流 혹은 合流層등에 절들을 세웠던 것이다.

新羅가 慶州 皇龍寺에 九層塔을 세워서 三國統一을 기원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王建도 이를 본받아서 開京에 七層塔을 西京(평양)에 九層塔을 세워 統一의 所願을 이룩하려고 하였다.²⁷⁾

이와 같이 佛敎의 信仰은 統一意志의 재빠른 定立이오. 그 意志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王建은 弓裔를 계승한후 강한 後百濟와는 戰爭으로 대결하면서도 衰退一路를 걸어 命脈만 유지하고 있는 新羅와는 한번도 싸운일이 없다. 이는 王建이 벌써 三國의 統一者로 되었을 때 國家의 正統性을 계승하였다는 名分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高麗의 建國理念이 名實相符한 舊三國의 統一을 기도하는데 있었다는 表現은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²⁸⁾

2. 百姓들의 生活苦와 統一에의 指向

後三國시기는 新羅下代에서와 같은 農民蜂起나 草賊들의 행패는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惟務聚斂 恣爲割剝』이란 말이 表現하듯 「城主」 「將軍」의 지배아래 있는 百姓들의 형편도 극도의 困境에 뺏어 들어 갔다. 掠奪의 가혹성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百姓들의 절신한 念願은 「速富之術」이란 妖言에도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참을 수 없는 生活苦에서 벗어나 좀 잘 살아 보자는 것이었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新羅王朝의 타도를 目標로 투쟁을 展開하였다. 그러나 後三國의 出現으로 한 때 百姓들은 더욱 곤란한 형편을 체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三國의 百姓들이 더욱 곤란한 형편을 체험하게 된 것은 약탈과 착취뿐 아니라 後三國間의 戰爭이 또한 百姓들을 더욱 참을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계속되는 戰爭은 마음 놓고 農事를 지을 수도 없었고 수확한 農作物도 불타 버리는 수가 허다했으며 家産을 잃고 父母, 兄弟들이 서로 헤어져서 行方生死를 모르는 慘狀이 얼마든지 있었다. 『男盡從戎 婦猶在役』이 當時의 형편이었다.

몇가지 例를 들어 보자

『太祖 10년(927) 9월에 … 甄萱이 新羅 서울로 不意에 쳐 들어갔다. … 子女들과 각종 장인들과 보배들을 모조리 略取하여 가지고 돌아갔다. … 甄萱은 勝利한 기세를 타서 大木郡(安東)을 탈취하고 田野에 쌓인 穀食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²⁹⁾

戰爭으로 인하여 父母 子息間에 생이별하는 다음과 같은 처참한 記錄들도 있다.

『新羅末年 眞聖(926~929)년 간에 眞聖 崔恩함이 오래동안 子息이 없었으므로 이 절을 찾아 觀世音보살 앞에 기도를 올려 아들을 낳았더니... 眞聖이 서울을 습격하여 城안이 크게 혼란하게 되었다.

恩함이 아이를 안고 집에 와서 告하기를 「... 사태가 급박한지라 어린것이 짐이되어 들이 다 禍를 면할 수 없겠어운데... 우리父子가 다시 만나보도록 해 주소서」 재삼 고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부처님 앉은 자리에 간직하고는 몇번이나 뒤를 돌아 보면서 갔다... 』³⁰⁾

또 太祖는 元年(918) 8월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었다.

『이전 眞金(弓裔)이 百姓을 보기를 초개같이 하면서... 곡식값이 폭등하여 細布한한匹값이 겨우 쌀 5升밖에 못 되어 百姓들은 自己 몸과 妻子를 팔아 남의 奴婢로 되는 자가 많았다... 나는 이를 심히 불상히 여기노니...』

이러한 慘狀을 체험하고 있는 後三國 百姓들의 一致한 指向은 가혹한 略取의 除去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200年間 單一한 民族으로 살아 온 처지임으로 나라의 分裂을 반대하였으며 하나로 되기를 절절히 소망하였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3. 讖言 豫言을 통하여 본 統一指向性

우리는 現在까지 傳해지는 史料들 중에서 新羅王朝의 멸망과 고려王朝의 出現을 暗示하는 몇개의 讖言이나 豫言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間接資料를 통하여 當時 百姓들의 統一에의 指向意志를 엿 볼

수 밖에 없다.

(1) 王昌瑾이 산 古鏡識文에

上帝降子於辰馬 先操 鷄後搏鴨，於巳年中二龍見，一則藏身青木中 一則顯形黑金東³¹)이란 글이 거울面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上帝가 아들을 辰馬에 나리시니 먼저는 닭을 잡고, 뒤에는 오리를 잡으리라. 巳年사이에 두 龍이 나타나서 하나는 몸을 푸른 나무 속에 감추고, 하나는 모양을 검은 金 東쪽에 나타냈도다.」하였다. 그 글의 뜻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上帝가 아들을 辰馬에 내렸다는 것은 辰韓과 馬韓을 말하는 것이요, 두 龍이 나타나서 하나는 몸을 푸른 나무 속에 감추고 하나는 검은 숲 속에 나타냈다는것은 푸른 나무는 곧 소나무(松)로 松岳郡 사람으로서 龍으로써 이름字를 한사람의 子孫을 뜻하니 지금 波珍滄 待中(王建)을 말하고 검은 金은 곧 쇠(鐵)로 지금 서울 鐵圓을 말하는 것이니 지금主上(弓裔)이 처음 여기에서 일어나서 여기에서 滅亡한다는 징조이오, 먼저 닭을 잡고 오리를 잡는다는 것은 待中(王建)이 먼저 鷄林(신라)을 얻고 뒤에 鴨綠을 취하여 거둔다는 뜻이라』고 해석하였다.

(2) 高麗史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伏審我太祖 神聖大王御極也… 金鷄自滅之期乘丙鹿再興之運不離鄉井>

삼가 생각컨대 太祖신성대왕이 王位에 오르는데 때는 末世를 당하고 새나라가 일어 날 운수를 띄었다. 처음 太祖가 亂賊들을 平定하고 凶徒들을 처단하니 弓裔왕이 일을 시작했으나 太祖王이 成事하였다. 이리하여 太祖가 王位에 오르니 百姓들은 성덕에 感化되어

따라 왔다. 이와 같이 新羅(金鷄)가 自滅할 때를 당하고 고구려(丙鹿)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어 太祖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³²⁾

(3) 高麗太祖之興 新羅崔致遠 知必受命上書有鷄林黃葉鵠嶺青松之語³³⁾

『高麗太祖가 일어날 때 崔致遠은 (王建)이 반드시 命을 받을 것을 알고 글을 올렸는데 鷄林은 黃葉이 지고 곡령은 푸른 솔이라는 말이 있다.』

위의 자료들중 (1)은 弓裔가 亡하고 王建이 일어나서 먼저 新羅를 統合하고 후에 高句麗 舊地를 收復한다는 讖言이며

(2)는 新羅는 自滅하고 高麗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3)은 鷄林은 신라, 鵠嶺(松岳)은 고려를 가르킨 것으로 (3)의 內容도 신라는 亡하고 고려는 興한다는 뜻이다.

위에 引用한 자료들은 다시 後世의 潤色을 받았겠지만 그 根源은 新羅末期의 社會的인 混亂과 弓裔 治下에서의 生의 恐怖를 反映한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신라王朝의 滅亡과 고려王朝의 成立이라는 두 사실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즉 하나로 부터 分裂에로가 아니라 셋으로 부터 하나에로 즉 當時로 말한다면 後三國의 分裂로 부터 하나에로의 統一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分裂과 계속되는 戰爭에 시달리는 當時 百姓들의 一致한 念願과 指向의 反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 新羅 최후의 敬順王이 고려에 歸依하여 오는 광경을 묘사한 기록은 더욱 이를 實證하고 있다. 『아름답게 꾸민 수레며 말들이 30리에 뻗쳐 길이 메이고 구경꾼들은 담을 쌓듯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과장表現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百姓들이 나라 잃

어 슬퍼한다기 보다 마치 큰 慶事를 구경하는 心情, 응당 있을 것이 있는 것을 환영하는³⁴⁾ 心情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時代에 대하여 留意하여야 할 것은 風水地理說의 새로운 流行이다. 이는 당시의 社會轉換, 文化轉換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의 風水地理說은 慶州가 한나라의 首都로서는 不適當을 강조하고 半島의 中心인 松嶽地方이 有利하게 인식되도록 하게 하였던 것이다.

第五章 高麗太祖 王建의 統合方略

1. 對內政策

後三國 分立 初期에 있어서 弓裔와 甄萱의 파괴적인 활동이 當時 百姓들의 환영을 받은 것은 사실이였으나 戰亂이 계속되고 그에 따르는 無秩序와 掠取가 더욱 흑심하여져 갔다. 따라서 해를 거듭함에 따라 百姓들은 秩序회복을 바라게 되고 더욱 甄萱이 신라의 慶州에 侵入하여 王을 弑害하고 掠奪함에 이르러서는 民意가 포악한 弓裔를 타도하고 또 甄萱과 對立하고 있는 王建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王建의 標榜은 弓裔 甄萱과 같은 파괴적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착실한 秩序의 회복에 그 目標를 두었다. 이는 그 當時의 要請에 무엇보다도 副應하는 바 였다.

이러한 對內秩序 회복의 標榜과 施策은 우선 知識계급의 協贊을 얻을 수 있었고 나아가 後三國을 統一하여 三韓의 主人이 되는 것을 合理化하는 또 하나의 條件을 마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王建의 文臣포섭이나 儒敎理念의 標榜은 새롭고도 커다란 意義를 지니게 된다.

王建의 高麗建國을 前後하여 各地 知識계급의 動向이 王建 前에 有利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王儒는 본 姓名이 朴儒로서 春川사람이었는데 性質이 곧고 經史에 밝아 弓裔를 섬겨 員外 東宮記室이 되었다. 弓裔의 橫暴가 노골화하자 出家하여 山谷間에 隱遁해 있다가 王建이 即位한 뒤 謁見하니

太祖는 禮로서 대하고 要職을 주어 功을 세웠다. 그 뒤 이에게 王氏를 賜姓까지 하였다.

尹瑄은 鹽州人으로 처음 弓裔에 붙어있다가 그가 臣下들을 함부로 誅殺함을 보고 安邊 땅에 가 있었는데 太祖 即位 후 來附하였다.

泰評도 鹽州 사람이었는데 博涉書史 明習吏하여 賦師 柳矜順의 記室이 되었다가 弓裔가 柳矜順을 破할 때에 降服하였다. 弓裔 밑에서는 오랫동안 卒伍로 있었으나 太祖의 開國에 참여하여 循郎中이 되었다.

羅末 新羅에서의 知識계급에 대한 處遇를 보면 當時 大文章인 崔致遠이 唐에서 歸國하여 時務策 10餘條를 올렸더니 嘉納은 하였으나 六頭品 벼슬인 阿滄을 주었다. 얼마 후에 致遠은 入山하여 숨어버렸다.

그러나 高麗初 崔致遠의 弟子들은 高麗에 와서 政治와 文化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崔致遠의 조카인 崔彦擽를 비롯하여 崔承老같은 人物들이 모두 그러하였다.

또한 羅末 知識계급을 代表할 수 있는 세력인 渡慶留學生이나 禪宗 僧侶들도 新羅權에 挑戰하는 세력으로 登場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批判의식으로 成長하고 있는 儒教나 禪宗에 관여한 六頭目以下の 身分들의 動向이 어느 쪽을 支持하였을 것인가는 가히 짐작될 수 있는 일이다.

다음에서 考察하려는 豪族聯合政策도 對內政策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後三國統一의 基本政策으로 되어 있는만치 章을 달리하여 論하고자 한다.

2. 豪族聯合 政策

後三國 統一戰에 있어서 豪族세력의 處遇문제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難事중의 하나였다. 松嶽地方의 一豪族이었던 王建과 같은 性格의 社會, 經濟的 기반을 갖인 對等한 세력들이 많았던바 王建은 이점에 가장 腐心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羅末 麗初의 豪族들의 性格을 明確하게 規定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三國史記나 高麗史등에서 傳하고 있는 人物들을 살펴 보면 相當한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어 이 기반을 背景으로 登場하여 太祖에게 協力하고, 그 뒤에도 계속하여 外戚세력으로서 또는 一般廷臣으로서 政權에 關與하는 主體세력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도 있다.

한편 當時에는 微弱한 豪族이었지만 功臣이 되거나 官僚로서 出世한 者가 있다.

그리고 中央政界에는 進出하지 않았으나 地方에 기반을 갖고 있어, 寺院관계의 金石文이나 東國輿地勝覽등에 이름을 傳하고 있는 부류도 있다. 이들은 대개 地方豪族으로 계속 存在하다가 나중에는 鄉吏계층으로 沒落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當時에는 뛰어난 豪族이었지만 高麗中央執權 體制의 整備과정에서 沒落되어 그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부류도 많았을 것이다.

다음에 太祖王建에게 來附해 온 豪族들은史料에 나타난 順序대로 列擧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太祖에게 包攝된 豪族

順	姓名	根據地(現地名)	稱號	來附時期	기타
1	堅金	青州 (溇州)	領軍將軍	太祖 1年 (918)	
2	阿字蓋	尙州 (尙州)	賊將軍	1 (918)	
3	閨雄	康州 (晉州)	將軍	3 (920)	
4	元奉	下枝縣 (安東)	"	5 (922)	
5	王順式	溟州 (江陵)	"	5 (922)	
6	洪術	眞寶城 (青松)	城主將軍	6 (923)	929年 戰死
7	城達	命眞城 (開慶)	將軍	6 (923)	
8	良文	碧珍郡 (星州)	"	8 (925)	
9	能玄	曹城 (?)	"	8 (925)	新羅首却에 가잡다하여 되돌려 보냄
10	能文	高은部 (永川)	"	8 (925)	
11	競俊	運州 (洪城)	"	10 (927)	
12	興達	高思葛伊城(開慶)	城主	10 (927)	
13	善弼	載岩城 (青松)	將軍	13 (930)	
14	金宣平	古昌郡 (安東)	城主	13 (930)	權卒. 張吉도 降伏
15	萱達	北彌秩夫(迎日)	"	13 (930)	
16	龔直	燕山郡 (文義)	將軍	15 (932)	後百濟에 投降
17	李念吉	碧珍郡 (星州)	"	19 (936)	

주 35)

위의 17명 외에도 駕洛國記, 東國輿地勝覽, 高麗史등에 散見되는 많은 地方, 中央의 豪族들이 있었다.

이러한 豪族들은 대부분 城主, 將軍을 自稱하였다. 그들이 後三國

時代의 歷史무대에 나타났을 때 地方에서의 獨自의인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明白하다. 그 地方 一定지역의 土地나 百姓을 獨自의로 支配하던 者들이다. 城主 將軍은 자기의 土地 統治기구, 兵力까지 갖고 있으며 이런 者들 즉 城主나 將軍의 擴大版이 弓裔, 甄萱이고 반대로 弓裔, 甄萱의 縮少版이 城主 將軍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新羅末期 새로운 社會세력으로 登場한 이 豪族은 그들의 獨自의 세력을 강력히 내세우는 存在였다. 또 中央政府의 支配로 부터 獨立하려는 강한 의욕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行政的으로나 軍事的으로나 一定지역에 대한 支配權을 行使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獨立的인 자세에서 中央政府와 連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新羅로 부터 離脫할 可能性을 항상 지니고 있는 勢力들이었다. 後三國時代는 바로 이 豪族의 存在를 背景으로 하고 展開된 것이다.

統一新羅의 옛땅에 새로히 後百濟와 泰封國이 建設되며 新羅와 합쳐서 後三國이라 부르지만 이것을 단순한 세王國의 鼎立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 時代의 性格을 너무나 皮想的으로 관찰하려는 結果가 된다. 이 세 王國이 分裂하여 併立할 수 있는 社會的 기반은 바로 豪族들의 存在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後三國의 分裂을 清算하고 새로운 統一된 王朝를 建設하는데는 豪族들의 向背가 결정적인 役割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누가 豪族들의 支持를 더 획득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 누가 後三國을 統一하느냐 하는 문제와 直結되었다. 여기에 軍事力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나 軍事力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政治力이었다. 高麗에 의한 統一成就是 결국 王建의 政治的力量이 豪族들의 支持를 보다 광범위하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統一을 前後한 高麗의 豪族과의 連結方式은 크게 關心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太祖王建 당시의 政治型態를 豪族과 關聯하여 規定한다면 豪族聯合政權이라고 할 수가 있다. 王建의 豪族과의 結婚政策, 賜姓政策, 其人制, 事審官制등과 政治기구상에 나타난 特徵들은 모두 그러한 性格을 나타내 주고 있다. 王建과 거의 對等한 세력을 갖인 豪族들이 反抗하고 離脫한다면 統一大業을 完遂하기가 至難하다는 것을 王建은 알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王建은 自己 스스로를 豪族들의 最高責任者로 한 豪族聯合政權을 樹立하려 하였던 것으로 본다. 즉 地方의 豪族들을 武力으로 타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融和 協力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어쩌면 豪族出身인 王建에게는 몸에 배어 있는 生理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豪族과의 鬭은 結束이 王建으로 하여금 드디어 後三國을 統一케 하는 原動力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王建은 어떠한 豪族政策을 썼는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施策을 알아 볼까 한다.

즉위 初期에는 우선 겸허한 자세를 취하였다. 앞서 公州地方의 여러 豪族들이 離脫하여 王建에게 큰 타격을 준 일이 있다. 이러한 事態의 擴大 防止를 위하여 使臣을 파견하여 많은 禮物과 공손한 말로서 和議를 돈독히 할 뜻을 表示하였다. 그 結果 歸附하는자가 많았다.

王建은 後百濟와 高麗의 中間에 처하여 그 向背가 애매하였던 淸州에는 직접 巡視하여 動搖를 막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그때 그때 필요한 政策이외에 豪族들과 鬭은 連結을 위

한 恒久的인 몇가지 政策을 취하기도 하였다. 賜姓政策 結婚政策, 其人制 事審官制度등이 그것이다. 賜姓政策과 結婚政策은 다음의 同質化政策에서 考察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事審官制와 其人制에 한하여 論하기로 한다.

먼저 事審官의 起源은 太祖 18 年에 新羅의 末王 金傳가 항복해 오자 그를 新羅의 故都인 慶州의 事審官으로 삼아 副戶長 이하의 官職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하여 곧 이어 다른 功臣들에게도 각각 그 出身지방의 事審官으로 삼게 되면서 부터 全國적으로 施行되기에 이르렀다. 太祖가 이制度를 施行한 目的은 豪族세력을 무마하고 統制하기 위한 것이었다. 當時의 中央行政力이 地方에 까지 침투할 수가 없었으므로 首都에 거주하는 支配계층을 매개로 하여 間接적으로 地方統制를 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中央의 豪族과 그出身地方과의 關聯性을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其人制度는 太祖年間に 王權과 豪族相互間의 互惠的인 措置로서 시작되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餘地가 없다. 그런데 高麗史 卷 75 選舉地 3 其人條에 서술되어 있는 內容은 그趣意를 달리하고 있다. 同書는 其人의 性格에 대하여 「國初에 鄉里의 子弟를 뽑아 中央에 불모(人質)로 삼고 또한 出身地의 일에 대하여 顧問에 備케 하였는데 이를 其人이라 한다」

그러나 太祖年間の 그內容과는 區別해서 보아야 될 것이다. 물론 其人의 性格이 後代로 내려올수록 변질되어 그 地位도 크게 格下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太祖年間 당시에 있어서는 太祖가 豪族의 子弟

를 우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中央의 필요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其人을 選上할 수 있는 社會的인 要件도 성숙되어 있지 않았던 實情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太祖가 시행한 事審官制度和 其人制度는 自體 內容은 다르지만 그 追求하는 바의 目的은 同一한 動機에서 出發한 것이었다.

즉 太祖가 一方的으로 地方의 豪族세력을 統制할 수 없는 權力的 限界를 인식하고 그 절충方法으로 이 制度를 마련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떻게든 太祖에게 있어서 對內문제중 가장 重大하고 긴급한 과제는 限定된 王權으로 어떻게 強大한 豪族세력을 반발없이 회유하고 포섭하여 새 王朝의 기반을 굳쳐 나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위의 두 制度는 相互 유대와 異質세력간의 和親 連結, 協助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3. 民族의 同質化 政策

(1) 異質性 機能의 視覺에서 본 後三國의 分立문제

앞에서 後三國 分立의 背景으로서 新羅下代 王權의 衰弱과 農民蜂起 賊黨의 頭目으로 立身하여 後百濟와 泰封國을 세운 甄萱과 弓裔의 出現등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後三國 分立의 契機를 異質性의 機能 作用이라는 視角에서 보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前三國의 分裂시기에 造成되었던 民族의 異質化가 統一新羅期에 完全히 同質化되지 못하여 後三國에로의 分立에 作用하지 않았느냐는 視角에서 따져보고 太祖의 同質化政策을 考察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視覺에서 보려고 한다면 前三國時期 즉 新羅 百濟 高句麗

時期的 言語, 文化, 生活 風俗 意識구조등을 살펴 그 各異한 異質性 등을 가려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힘에 겨운 作業 이 아닐 수 없다. 다음 기회에 미르기로 하고 다만 統一新羅가 半島統一후 百濟, 高句麗의 新附民에 대하여 어떠한 統御策을 썼느냐를 관찰하고 이를 同質化政策的 立場에서 檢討한 후 이 前時期에 殘存 하였던 異質化現象 중심으로 後三國 分立을 보고자 한다.

新羅가 羅唐聯合軍에 의하여 百濟, 高句麗를 征服하여 統一한 후 新附民의 處遇문제에 대하여도 되도록 關厚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한다. 麗, 濟 二國의 貴族에 대한 優待는 물론 官吏, 軍人등에 대하여도 適材適所주의로 臨하였다고 한다.

太宗王이 7年 百濟의 國都 泗泚城을 함락하고 돌아와 論功行賞을 할 때 降附한 百濟官員에 대하여도 그 才能을 헤아려 登用하되 佐平 忠常, 常永과 達率 自管에게는 一吉滄(제 7 등)의 位를 주워 摠管職에 任하고 恩率 武守에게는 大奈麻(제 10 등)의 位를 주워 大監職에 任하고 恩率 仁守에게도 大奈麻의 자리를 주워 弟監職에 充任하였다.

또한 文武王은 高句麗의 歸附民과 對唐判衆도 包容하여 특히 高句麗 貴族 安勝에 대하여는 이를 厚優하여 高句麗王을 封하고 그의 部衆과 함께 지금의 益山에 安住케 하였으며

이밖에 중요한 軍隊편성에 있어서도 新附民을 選拔 채용하였다고 한다.

이상은 史料에서 볼 수 있는 統一新羅의 麗, 濟 統御策의 大要인 바 이는 撫摩策은 될 수 있어도 同質化정책은 되지 못한다. 貴族

층과 特權층 몇사람을 一時的으로 회유하는 政策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西記 668年 高句麗가 滅亡한 후 高句麗人들은 數十年에 걸쳐 高句麗復興운동을 展開한 것은 여러資料에 모두 나타나는 바이다. 이러한 渦中에서 그 一部는 唐나라로 移住하게 되고 一部는 新羅로 編入되고 또 一部는 渤海國을 세웠는데 이 渤海의 建國은 高句麗復興운동의 한 成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中國으로 移住한 高句麗人들은 時代가 지남에 따라 中國人으로 同化되었을 것이며 新羅에 편입된 그들은 2백여년 동안 新羅의 支配를 받으며 後三國시대에 이른 것이다.

이 新羅의 支配를 받던 高句麗 遺民은 역시 高句麗의 血統, 高句麗의 言語 高句麗의 風習등 高句麗傳統의 要素를 많이 간직하고 있어서 故國에 대하여 鄉愁를 느끼고 있었던 것은 否認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新羅는 骨品社會로서 같은 新羅人 사이에도 骨品에 따라 그差別이 엄격하였는데 하물며 被征服民인 高句麗遺民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였을까 하는 것은 想像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新羅 北部의 遺民은 新羅王朝에 대하여 反感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또 이와 함께 그 全盛時代에 대한 憧憬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新羅의 統治力이 弱화 붕괴상태에 이르자 故國의 復興에 대한 의욕에 불타게 되었으며 그結果로 나타난 것이 泰封과 高麗의 成立이었던 것이다. 다시말하면 新羅末期에 北部地方에 있어서 民心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方案은 高句麗부흥의 名分이었다.

泰封의 弓裔가 高句麗遺民의 鄉愁를 자극했다고 보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弓裔」라는 이름(姓名)의 문제다. 「弓裔」는 「朱蒙의 後裔」라는 뜻이 되며 또 弓裔는 朱蒙이후 高句麗의 國姓이었던 「高씨」를 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弓裔가 스스로 稱한 것으로서 「高句麗人의 後裔임을 自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三國史記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에서 弓裔는 新羅사람이라 한 기록이 너무나 分明하고 「善宗」이란 僧名 역시 新羅的인 것이었는데 高句麗人의 後裔로 自處한 것은 高句麗遺民들이 統一新羅에서 同質化되지 못한 점을 너무도 잘 이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弓裔가 群盜의 頭目으로 몸을 이르게 泰封國을 세우면서 「高句麗의 원수를 갚는다.」고 한 것 역시 위와 다를바가 없다 하겠다.

高句麗의 復興과 繼承을 표방한 것은 王建도 마찬가지였다.

統一期の 百濟遺民에 대하여서도 前述한 高句麗 遺民에서 찾아 볼 수 있는바와 같은 鄉愁, 復古心理 敵愾心등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더욱 甄萱의 後百建國 理念도 「百濟 義慈王의 원수를 갚고 百濟를 再建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또한 周圍 百姓들로 부터 환영을 받았다.

數百年동안 다른 政治權力 밑에서 生活을 營爲해 온 三國間의 住民들이 異質性이 없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오늘의 南北韓의 경우와 같이 理念上의 異質化는 아니었다하더라도 歷史, 文化, 習俗등에 걸쳐 異質性은 存在하였을 것이고 統一新羅期の 執政者들은 이점에 크게 留意 施策을 강구한 努力의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 前三國의 分立이 없었다면 後三國의 建國者들이 무엇으로 그 理念과 名分을 내

세웠겠는가? 前三國의 分立이 있어서 後三國의 分裂도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視角에서 高麗太祖의 統合政策이 단순한 國土의 統合, 外形上의 政治統合뿐 아니라 民族의 同質化政策이었고, 民族의 和合政策이라는 角度에서 究明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2) 政畧的 結婚政策

高麗太祖 王建이 民族의 同質性 회복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취한 것인지의 與否는 알 길이 없으나 그의 統合政策중 婚姻정책과 賜姓정책등은 國土의 統一 政權의 單一化만을 노린것이 아니라 同質化를 꾀하는데 劃期的인 意義를 갖었다고 볼 수 있다. 순수 史學의 立場에서 보면 異說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統一문제 研究家의 視角에서 보면 이러한 斷案이 가능하다.

王建은 각지방의 有力한 豪族들과 連結하면서 6名의 王妣와 23名의 夫人을 맞아 드렸다. 마치 好色英雄의 표본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王妣 6名의 背景을 살펴 보면 神德王后 柳氏의 父 天弓은 「天弓家大富邑人稱爲長者」라 하였으니 貞州지방의 富豪였음에 틀림 없다. 莊和王後 吳氏는 代代로 木浦지방에 살던 多憐君의 딸이다. 多憐君은 沙干 連位의 딸 德交를 聚하여 王后를 낳았다. 沙干의 위치에 있는 連位의 딸과 婚姻할 정도라면 이 地方의 有力한 豪族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神明順成王后 劉氏의 父 競達은 忠州지방의 豪族이었다. 神靜王太后 皇甫氏의 父 梯公도 黃州지방의 豪族이었고, 神聖王后 金氏는 敬順王의 伯父 億廉의 딸이다.

특히 貞德王后 柳氏는 貞州지방의 豪族의 딸로, 貞州의 地理上 위치로 보아 일찍부터 松嶽豪族인 王氏와는 密接한 관계를 가졌음이 틀림 없다.

王后 6名の 出身地域을 보면 오늘의 京畿 2명, 忠淸 1명, 全羅 1명, 慶尙 1명, 黃海 1명으로 되어 있어 地域的으로 按配된 느낌이 든다.

夫人 23명도 黃海 7명, 慶尙 5명, 江原 3명, 忠淸 2명, 京畿 2명, 全羅 1명, 不明이 3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太祖의 세력기반인 黃海, 京畿에 集中된 것은 당연하고 慶尙道지방이 많은 것은 新羅세력에 대한 同質化에 力點을 둔 所置라고 보겠다.

王建은 新羅 敬順王의 조카딸을 아내로 맞이 했을뿐 아니라 自己 딸 樂浪公主를 주위 敬順王을 사위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新羅의 王室과 高麗의 王室을 끊을 수 없는 血緣關係를 이룬 것이다. 太祖王建은 敬順王의 조카딸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 곧 高麗 顯宗의 父가 된다. 또 후에 景宗은 敬順王의 딸을 王妣로 삼고 敬順王을 尙父令에 封했다.

敬順王이 죽음으로써 新羅시대는 끝났지만 顯宗이후 王位를 계승한 사람은 모두 그 子孫이었다고 보면 新羅는 그 外孫을 통해 高麗를 지배한 結果가 된다. 同質化라는 면에서 보면 高麗라는 이름만 바꾸었을 뿐 新羅의 連結이라 해도 좋지 않을까

이 婚姻政策은 太祖自身뿐만 아니라 投降歸屬한 豪族들 사이에도 적용, 盛行되었다. 一康에게는 卿 行訓의 妹를 妻로 삼게 하고 李念言의 아들 永川에게는 大匡 思道貴의 딸을 妻로 삼게 하는등의 事列도 볼 수 있다. 이는 太祖自身이 豪族生理를 잘 알아 이를 적당

히 조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政畧的 婚姻政策은 豪族의 포섭方法으로 취해 진 것이지만, 民族의 同質化方法, 民族의 和合方案으로서는 이것 외에 더 좋은 方案이 있을 수 없다고 보겠다.

(3) 賜姓政策

同質化政策으로 보는 두번째는 高麗太祖의 賜姓政策이다. <新唐書> 新羅傳에는 「民無氏有名」이란 記事가 보인다. 이로 보아 統一新羅 때 까지도 百姓들은 姓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太祖에게 歸屬한 豪族들중 有力한 자에게는 自己의 姓(王族姓)을 賜한 例가 허다하다. 이렇게 하므로써 그들과 擬制家族的인 關係를 맺으려고 한 것이었다. 당시의 狀況을 보면 地方豪族들이 自己세력근거지를 本貫으로 하여 姓氏를 稱하게 되었고, 그前의 新羅 金姓系, 朴姓系의 親族共同體들로 本貫을 따로 가짐에 이르렀으니 高麗國家는 이들의 本貫에 있는 세력들을 再編成하면서 國家기반을 다져 나갔던 것이다.

賜姓의 대표적인 例는 王順式의 경우다. 원래는 朴儒였는데 江陵지방의 豪族으로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王建에 굴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王建은 그의 父(僧)를 설득시켜 드디어 항복케 하였다고 한다. 이때 王建은 그에게 王姓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渤海의 太子라고 하는 大光顯이 왔을 때에도 그에게 王姓을 준 일이 있다.

廣州지방의 豪族인 王規같은 사람도 太祖로 부터 姓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王氏의 姓을 賜한 기록은 적지만 후대에도 이러한 賜

姓事例가 가끔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많았을 것으로 推測된다.

한편 賜姓이라기 보다 國家가 그地方의 根據的 세력을 承認하는 표시로 本貫의 認定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無氏有名者에게의 賜姓은 忠誠心을 자극하면서 서로의 一切感을 더욱 培養하게 되었을 것이다.

4. 渤海遺民의 包攝

高麗王建이 後三國을 統一함에 있어서 渤海 遺民의 受容은 看過할 수 없는 事項중의 하나이다.

渤海國의 衰亡期 內紛에서 敗한者 또는 契丹에 抵抗하다가 亡命하여 온 高句麗系 渤海人들을 高麗는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이들의 受容으로 戰力을 增強시킨 점은 高麗의 半島 統一에 至大한 기여를 했을리라고 보여 진다.

高句麗系 渤海遺民의 高麗合流는 대체로 4次로 나누어 說明될 수 있다.

1次: 발해 멸망의 1年前인 太祖 天授 8年(925) 9월에 將軍 申德등 5백여명의 來投를 비롯하여 社部卿, 工部鄉, 左右衛將軍등 발해王國의 巨族 顯官들이 一時에 1백여戶가 集團的으로 來投하여 왔다. 當年 12月에는 다시 左首衛小將 冒干과 檢校開國男 朴渙등이 1千戶를 이끌고 來投하였다. 이것은 이미 발해王國內에 대규모의 政治的 混亂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하여 東丹國의 耶律羽之가 너무도 어이 없이 亡國의 신세가 된 渤海王國을 說明하여 「太祖(卿律阿保機)는 그들(渤海國)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틈

을 타서 공격을 하여 싸우지 않고 이겼다.」고 說破한 바 있다.

이는 발해王國內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政爭으로 亡하기에 앞서 高麗에 들어와 合流하게 된 政治的 亡命의 性格을 띤 발해遺民들의 合流였던 것이다. 다만 이들의 合流후의 動態와 그들 子孫들에 관하여 文獻上의 기록은 찾아 보기 힘들다.

2次 : 政治的 亡命의 性格을 띤 合流가 확실해진 뒤를 이어 渤海王國이 亡한 翌年인 天授10年(927) 3月 工部卿 吳興 등 50人, 僧侶 280人을 비롯하여 다음해인 天授11年 3月에는 民間人 金祥 등 60戶, 同年 7月에는 王族 大儒範이 遺民을 이끌고 高麗에 合流하였다. 天授10年에서 12년까지의 이와 같은 民間人을 포함한 발해遺民의 高麗合流는 亡國후의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侵略民에 대한 敵意와 공포心에서의 合流였다.

이번의 合流에는 金神뿐 아니라 11年9월에 隱繼宗 등 그 數가 알려지지 않은 渤海遺民과 더불어 그다음해인 12年6월에는 船舶 20艘에 나누어 타고 合流한 洪見 등과, 다시 同年 9월에 3백여인과 合流한 正近 등 民間人이 多數 포함되어 있었던 점은 亡國前에 合流한 앞에서의 例와 다른 점이였다.

3次 : 天授12年 9월의 正近 등 3백여인의 合流후 잠시 끊기더니 다시 天授17年 7월에 이르러 渤海世子라고 稱하여 數萬戶를 이끌고 高麗에 合流한 大顯과 마치 그 뒤를 따르는듯 同年 12월에는 160人과 더불어 大陳林이 合流하게 된 것은 渤海王國이 亡한 후 鴨綠江 中流에 세워진 後渤海國이 列氏 烏氏 등 權臣의 拔호로 王室 大氏의 支配力이 크게 動搖된 까닭이였다.

이 무렵의 渤海遺民의 高麗合流는 天授 21年(928)에 3千戶와 더불어 合流한 朴昇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規模가 컸던 것이 특징이다.

그후에도 遺民의 合流가 계속되었는데 이것을 4次로 보겠으나 高麗에 의한 後三國시기가 아니므로 畧하기로 한다.

그러면 발해人들의 來投數가 얼마나 될 것인가.<宋史 高麗傳>에 의하면 高麗全盛期の 人口는 「男女 合하여 210萬」으로 概算하고 있을 정도로 극히 희박한 密度의 상태였다. 이 全體 人口數에 比하여 高麗史에 올라있는 발해遺民의 合流는 千명 이상의 것만 간추려 보아도 左首衛小將 冒干등의 「千戶」를 비롯하여 大光顯등 「數萬戶」 朴昇등 「3千戶」景宗 4年의 발해人등 「數萬」이었으며 이밖에 洪見등 民間人이 船 20척으로써 사람과 물건을 싣고 來附하였다」³⁶⁾는등 큰 集團의 合流가 적혀 있다.

이상으로서 全體 合流한 數字를 戶當 5人으로 잡아서 최소한 5萬人은 上廻할 것으로 보인다.³⁷⁾

위 외에도 高麗史에 明記되지 않은 큰 규모의 合流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數에 있어서 큰 比率을 차지하는 발해遺民들이 그들의 特技와 誠實으로써 後三國 統一에 제각기의 活動을 통하여 기여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餘地가 없다.

위와 같이 長期間에 걸쳐 혹은 數千戶 혹은 數萬으로써 合流하였고 그 社會계층도 위로는 王世子 高位官僚에서 부터 아래로는 庶民층과 被支配族인 靺鞨系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征服한 契丹人까지 帶同하고 來投한 이들에 대한 高麗側은 應分の 대접을 하여 원만하게

포섭하였던것 같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高模輪이 作罪하여 契丹으로 逃亡하기前에 王女를 尙하였다는 記事라든가 大光顯에게 前述함과 같이 國姓을 賜하여 宗籍에 넣고 白州를 다스리게 하여 그의 祭祀를 받들게 하고, 또 側近 官僚와 軍士들에게 까지 그身分에 알맞는 田宅을 賜與한 例에 비추어 대체로 그出身계층에 알맞는 應分の 處遇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部曲으로 편성되어 그들이 지녔던 技藝로써 高麗 社會에 이바지 한 業績도 엿보인다.

國難을 맞이하여 목숨을 걸고 統一大業에 心血을 쏟은 渤海遺民들도 後三國統一에 擧놓을 수 없는 役軍들 이었다.

5. 投降者에 대한 待遇

後三國세력이 對立되어 자기 自己세력을 주축으로 攻伐戰이 되풀이되는 동안에 必然的으로 投降 服屬관계가 續出하였음은 위(豪族聯合政策)에서도 보아온 바 있다.

여기에서 王建이 그의 세력을 伸長하여가면서 대체로 그들 來投者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여 포섭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一般的으로 來投者에게 田宅과 祿邑을 주워 그들을 安住시키는 包攝政策을 썼다. 이는 弓裔가 新羅를 滅都라 부르고 新羅에서 來投해 오는 자들을 모조리 誅殺한 것과는 아주 對照的이다.

王建의 來投者 處遇의 例를 들면

- 百濟人官昌, 明權等來投 賜田宅 (고려사 卷1. 太祖4年條)
- 王徇康州行過 高思葛伊城主興達 先遣其子歸疑 於是 百濟新羅守城官吏亦 皆降附 王嘉之 賜興達青州祿其長子珍州祿 二子雄達寒水祿 三子玉達長淺祿 又賜田宅 (고려사 卷1 太祖10年 8月條)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甄萱의 사위 英規(將軍)에게는 授職과 더불어「賜田千頃」이라 傳하여지며 甄萱에게는 楊州를, 金傳(敬順王)에게는 慶州를 食邑으로 주었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이와 같은 待遇와 措置는 그들 원래의 勢力기반을 全的으로 抹殺하지 않고 懷柔包攝하려는 政策에서 나타난 것임은 前述한 바와 같다. 이들 來投者들은 祿邑 勲田과 더불어 或은 官職을 받아 貴族的인 官僚地主로서 新王朝에 包攝되어진 것이다.

둘째, 王建은 金傳 甄萱과 같은 新羅 後百濟의 指導者나 또는 年老한 敵將 來投者중에서 特別한 功勞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優待하였던 것이다. 新羅末王金傳에 대하여서는 이를 政丞公으로 삼아 그 地位가 「太子之上」에 두어졌으며, 甄萱에 대하여서도 「尙父」로서 百官보다 優位한 地位로 厚待하였다. 載岩城將軍 善弼이 來投하여 그후 特殊한 功勞를 세웠음으로 이 投降한 敵將에게도 尙父로서 尊待한 또 하나의 例를 볼 수 있다. 또 耽羅國太子(未老)가 來朝하여서는「星主王子爵」을 주었던 것으로 이도 特別대우의 一例라고 볼 수 있다.

王建은 이들 來附投降者 포섭에 있어서 그들의 從者까지도 寬容策으로 臨하였던 것으로 敬順王來附時의 侍從員將은 모두 起用한 事例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王建의 勢力에 의하여 再統一되어 가는 過程에 있어서 一般城主나 將軍이 投降하였을 때에 具體적으로 어떠한 地位 (官階)로 待遇, 포섭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면 그에 앞서 當時의 官僚體系를 알아야 할 것이다. 官僚體系가 定着되기까지는 여러段階를 거쳤을것이나 대체로 整備된 형태로서 示唆하여 주는것이 高麗史選舉志 鄉職條序頭의 記錄이다. 그에 의하면

一品曰三重大匡. 重大匡. 二品曰大匡. 正匡. 三品曰大丞. 佐丞. 四品曰大相. 元甫. 正品曰正甫. 六品曰元尹. 佐尹. 七品曰正朝. 正位. 八品曰甫尹, 九品曰軍尹. 中尹 으로 되어 있다.

이제 실제로 王建이 投降, 入朝하는자들중 어떤 身分을 가진자에게 어떠한 官階를 授與하였는가를 살펴 보면 다음表와 같다.

授與官階	身 分	根 據
大 匡	古昌郡城主	고려사卷 1, 13 年春正月條
"	溟州將軍	고려사절요卷 1. 太祖 11 年條
大 丞	溟州小將	" 太祖十一年條
佐 丞	甄萱의 사위 (英規)	" 太祖十九年條
大 相	百濟將軍	고 려 사太祖六十入月壬申條
"	城主麾下權行	" 太祖十三年春氏月條
元 甫	溟州將軍의 子	고려사절요太祖十一年條
"	渤海國 世子	고 려 사太祖十九年條
元 尹	眞寶城主의 子	고려사절요太祖六年條

授與官階	身 分	根 據
元 尹	碧珍將軍의 甥	고 려 사 太祖六年條
"	下枝縣將軍	" 太祖六年條
正朝	芋陵島貢使	" 太祖十年條
正 位	"	" "

위에서 우리는 이들 投降勢力에 대한 包攝策에 있어서 어떠한 原則과 格式이 適用되었느냐 하는것을 찾아내기는 어려울듯 싶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說明될 수 있을것 같다.

첫째 (郡)城主나 有力한 地方의 將軍으로서 服屬來附한 者에게는 大匡의 位階를 주었다.

둘째, (郡)城主 또는 甄萱과 같은 對立的인 큰勢力의 部下將軍이나 族戚婿에게는 大丞, 左丞과 같은 位階를 주었다.

셋째, 郡小城主와 같은 一般地方 部下의 將軍 또는 對立的인 큰세력의 子弟(溟州將軍의 子, 渤海國世子)에게는 大相, 元甫의 位階를 주었다.

네째, 一般城主와 (郡)將軍의 子侄 또는 縣將軍에게는 元尹의 位階를 주었다.

다섯째 芋陵島와 같은 地方에서의 入朝貢使에게는 正朝, 正位の 位階를 주었다.

위와 같은 具體的인 事例를 통하여 結論的으로 다음과 같이 區別을 지을수 있을 것이다. 즉 金傳, 甄萱과 같은 舊鼎立세력이나 溟州와 같은 重要한 地方의 將軍이나 城主自身에게 대하여는 적어도 第

二位階인 大匡이상의 待遇를 하였으며 특히 金傳, 甄萱에 대하여서는 「世子之上」「百官之上」으로 最上の 優待를 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편으로 大小세력의 子弟, 侄婿에 대하여서는 郡小城主의 麾下將軍과 같이 大丞, 左丞이하 元尹에까지 미치는 範圍內的 官階로서 待遇하였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겠다. 이같은 대우官階의 범위는 앞서 引用한 高麗史 選舉志에 비추어보면 第三品階에서 第六品階에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 京鄕사이에 單一品階로서 行하여진 것이며 앞서 引用한바와 같이 溟州大匡, 康州元甫, 白州正朝등의 用例로서 地方에는 각기地方名을 붙여서 區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형식상 名儀는 같은 位階名으로 表示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中央과 地方과 사이에는 或種의 差別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은 過渡的인 현상에서 中央의 官制가 새로정비되는데 따라 종래의 것은 그대로 鄕職의 位階로 轉化되어 9品階로 固定된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投降세력의 子弟, 侄, 婿가 中央官吏로 擧用되지않는한 그들은 응당 앞서와 같은 鄕職系列속에 해당되는 地位를 保有하게 마련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太祖당시의 投降者에 대한 구체적인 포섭조치가 王朝의 確立과 더불어 制度化되어 가는것은 其人制度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來投者에게 응분의 官階를 주워 統一大業에 身命을 바치게 하였던 것이다.³⁸⁾

6. 海上權의 確保 - 羅州, 康州의 占領

海上制霸의 意義를 度外視하고 高麗에 의한 後三國 統一을 理解 할 수 없다고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³⁹⁾

最後의 勝利者인 泰封高麗가 後百濟와 자주 충돌한 것은 國境地대인 忠淸道方面에서 보다는 全羅南道 海岸지대에서 初期 弓裔측의 공격으로 격렬하게 展開되었다. 다시 후에는 高麗太祖 王建에 의하여 지금의 慶尙南道 方面까지 交戰舞臺가 擴大되어 갔음을 볼 수 있다.

(가) 羅州 占領

弓裔는 그 泰封建國 3年(902)에 일찌기 水軍(王建)을 파견하여 後百濟의 錦城郡(羅州)을 侵伐하였음은 위에서 말한 바 있다.

그후甄萱이 再奪還의 戰備를 공고히 하자 29年(909)다시 水軍을 보내어 海戰을 하고 익년(910)에는 珍島, 阜衣島(河衣島)등을 攻畧하고 이어 後百濟의 海軍을 擊破한 뒤 錦城땅을 確保하였다.

海戰에서 勝利한 泰封은 위에서 말한 諸島외에도 葛草島 押海島 등을 占據하고 鹽海(영광부근)木浦 德津浦(영암)등의 羅州 諸外港을 服屬하였다. 따라서 全羅南道の 西海岸一帶 및 그 周圍 島嶼는 後百濟의 領域에서 이탈하여 泰封의 領有가 되고 말았다. 弓裔時代의 이러한 勝利는 王建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었다. 王建이 海上과 親近性을 가지고 있음은 위 王家世系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泰封과 後百濟가 制海權을 重視하고 雌雄을 찾고자 死力을 다 했음을 말해 준다. 制海權을 目標로 한 이쟁탈전을 泰封의 勝利로 돌아갔고 그후 高麗도 이制海權을 더욱 強化하여 有利한 戰畧

地點을 確保하여 간 것이다.

이때 殘命을 유지해 가고 있던 新羅는 新興의 고려와 後百濟의 雙方으로 부터 侵畧을 不可避하게 할 運命에 놓여 있었다. 이를 露骨的으로 敢行한 것이 계속해서 東쪽의 領土를 擴大해 나갔다. 즉 후백제는 大耶(俠川)仇史(大邱東쪽)등지에 진격하여 갔다.

이에 比하여 高麗의 戰畧은 아주 巧妙해서 신라를 후백제의 侵畧으로 부터 지킨다는 名分下에 신라와 제휴해 가면서 그 領土內에 兵을 넣어 세력을 侵透시켜 갔다고 보여 진다.

앞서 泰封때 占領한 羅州지방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海軍을 파견하여 轉伊島(南海)平西山(平川浦)突山등의 諸島嶼를 取하고 다시 康州 固自(固城)등을 攻取하여 여기에 까지 勢力을 확립하였다. 太祖 10年(927), 이때까지만 해도 康州一帶는 新羅海上 활동의 가장 중요한 海港지대였던 것이다.

그후 形勢의 優劣은 반복되었으나 나중에 後百濟 지도층 內部에 龜裂이 일어나 甄萱이 그 아들 神敏에 좃기어 投降한 곳도 바로 羅州였다.

弓裔의 暴惡이 심해지자 그 禍를 면하고자 王建이 자주 外地服務를 自請한 곳도 이 羅州였다. 羅州占領은 고려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意義가 있다 하겠다.

當時 東亞 海上史에서 보았을 때 韓半島의 中心은 西海인 黃海方面이었으며 裏面에 해당하는 東海쪽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음은 再言할 필요가 없다.

三國分立시기에 이 黃海쪽의 沿岸을 가장 廣範圍하게 領有했던 것

이 泰封→高麗였으며 運州(洪城)以北의 本土沿岸은 물론 909년 이후에는 全羅南道 西海岸지대 및 諸島嶼를 奪取한 후, 다시 927년 이후부터는 멀리 떨어진 慶州固城등을 장악하였음은 위에서 알아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지대는 모두 後百濟나 新羅에 있어서는 中國과 日本에 통하는 海上交通 貿易의 最大要地였던 것이다. 이러한 諸要地에 대한 飛地的 占領은 高麗의 海軍力이 우세하였다는 점도 있지만 後三國 統一이라는 戰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海上制覇의 태세를 갖춘 高麗가 급기야 半島의 統一者가 된 것은 海上交通이나 海上貿易의 장악이 三國爭覇의 決定的 要素로서 큰 힘을 발휘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중요한 地點을 弓裔, 高麗가 後百濟의 本土를 뛰어 넘어 羅州, 康津을 어떻게 그리도 쉽게 占領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점에 대하여 그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高麗史의 다음 句郎이다.

羅季 甄萱稱後百濟王 盡有其他 未幾郡(羅州即錦城郡)人附 後高麗王 弓裔 弓裔命太祖爲精騎大監, 率舟師 攻取 改爲羅州

라는 記事다. 이에 의하면 泰封의 羅州占領은 전혀 武力으로만 侵伐한 것이 아니라 當地 住民들의 歸屬希望을 受容한 內外相通의 接受로 보여 진다. 이 地域의 長期間에 걸친 確保도 계속된 服屬지역의 擴大도 泰封, 高麗의 軍事力에 의한 勝利라기 보다 오히려 當地住民의 희망에 協力하는 形式으로 받아들여져 비교적 근소한 功業을 가지고 이 地域을 服屬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後三國統一 完成의 前年인 太祖 18년에는 占

領地와 沿岸島嶼를 合하여 羅州의 所管이 40餘郡에 達하였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 이르기까지 高麗는 海上으로 救授軍을 派遣하기도 하였으나 그數는 아주 적은 것이어서 乾化2년에는 兵 2千餘, 4년에는 船舶 70척 兵 2千으로 傳하여지는 것과 같이 絶對數로는 결코 큰 兵力이 아니다.

初期의 羅州占領을 생각해 볼 때 弓裔가 나라를 세운후 3年째 되는 해였는데 이때는 아직 國基도 잡히지 않고 더욱 後百濟와의 爭霸가 弓裔에게 有利한 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後百濟의 背後에 깊숙히 들어가 羅州를 占領하고 다음 康州와 아울러 30年의 長久한 時日 이一帶를 確保했던 것은 當地住民의 自進 呼應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羅州의 高麗에의 歸屬과 그 從屬관계의 오랜 유지는 이地域이 海上세력의 根源地였다는 事實로 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羅州人의 海上交易의 최대市場은 中國의 北部方面이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航路를 확보하기 위한 手段이 아니었을까? 생각컨대 泰封 高麗의 海上封鎖가 심히 엄중하여 그 틈을 뚫고 北方航路를 往來하기가 어려워져서 羅州人들이 高麗에 歸屬해서 沿岸航路의 通行을 보장받으려한 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地方의 船舶들은 아마도 高麗의 商船이라 稱하여 中國北部를 往來했으리라는 推測을 할 수 있게 한다.

나. 康州 占領

高麗가 新羅의 領域인 康州를 占領한 것은 太祖10年 4月부터 8月사이였다. 그런데 이보다 3年앞서 康州의 將軍 閔雄이 質子를 高麗에 보내어 通交한 바가 있으니 康州의 占領도 羅州와 같이 康州

民의 歸屬希望에 따라 內外相應함으로서 成功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후 太祖 7년에는 王逢規가 康州의 城主로서 北方海上 貿易에 盡力하자 高麗와의 接近이 더욱 강력히 推進되어 갔다. 이와同時에 泰封이 高麗로 承繼된 후 對外劣勢로 부터 挽回한 高麗는 康州진격을 서둘러 10년부터 다음해인 11년에 걸쳐 後百濟와의 전투가 展開되는 동안 康州의 擧州的 高麗귀속이 確立되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康州의 船舶들은 高麗船임을 稱하여 渡航하였다. 그러므로 이때의 康州는 新羅에서 전적으로 離脫한 것이 아니라 新羅와 高麗와의 兩屬의 태도를 취하였을 것이라 보여진다.

康州民의 高麗에의 內應은 後百濟軍의 기습으로 高麗의 水軍이 不意의 타격을 받자 海島의 住民들이 스스로 武裝하고 船舶의 修理에 加勢하였다는 史實로서도 잘 알 수가 있다.

後三國시기의 西海海上세력은 고려北부의 西海岸과 羅州中心의 南部 西南海岸 그리고 康州中心인 南部 南海岸등 三群團으로 成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王建이 특히 羅州中心과 康州中心의 海岸지대를 重視하였다는 것은 그후 이地方과의 유대를 強化하기 위하여 王妣 吳氏를 南海 海上세력의 最大 中心地帶인 木浦의 土着民으로 부터 맞이하였다는 것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하겠다.

高麗의 海上霸權장악은 그 地理的 우위와 海上패권이 가지는 중요한 意義를 바르게 인식하고 海上세력의 包容에 온갖 힘을 기울린 王建의 政策的 勝利가 아닐 수 없다.

7. 太祖王建의 政治理念과 思想

지금까지 太祖王建의 統合過程과 그 政策등을 살피느라고 政策의 밑바탕에 깔여있는 政治理念과 思想등을 追究할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論해 볼까 한다.

대체로 새 王朝의 創始者는 東征西鬪의 나날을 보내야 하므로 自己 자신의 政治理念을 가다듬을 餘暇가 없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나 太祖王建의 경우는 파란만장의 生涯속에서도 高麗王朝의 政治理念을 定立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던것 같다. 이점은 王建의 政治家로서의 偉大性의 또 하나의 표현이다.

그의 政治的 理念과 思想은 「政誠1卷」과「誠百察書8篇」, 그리고 「訓要10條」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다.

가. 「政誠」 및 「誠百察書」

政誠1卷과 誠百察書8篇은 王建이 後百濟를 滅하고 開城으로 돌아 오자 스스로 지어서 中外에 반포하였다고 한다.

이 政誠와 誠百察書는 현존하는 것이없어 그 內容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王建이 신하들에게 「禮節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한 것을 보면 새 統一王朝의 政治道義와 신하들이 준수해야 할 節義를 훈계하는 內容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後三國을 統一한 후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중의 하나가 功臣들에게 대한 것이었다. 王建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統一을 쟁취하는데 成功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 私兵을 거느리고 獨自的인 세력을 形成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放置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스러운 일이 아

낼 수 없었다. 후일 王規의 반란과같은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強壓的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危機를 造成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야말로 統一王朝의 君主로서 봉착하게 된 試練이었던 것이다.

政誠와 誠百寮書는 이러한 背景에서 지어졌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었을 것이다.

나. 訓要 10 條

王建이 訓要 10 條를 지은 時期는 그가 高麗를 建國한지 26 年 後 三國을 統一한지 8 年째인 943 年, 67 세 때로 이 世上을 떠나기 몇 달 전이었다.

大匡 朴述熙를 內殿으로 불러들여 訓要 10 條를 親授하면서 그의 後嗣들이 代代로 龜鑑을 삼도록 부탁하였다. 訓要 10 條는 그 全文이 高麗史 또는 高麗史節要에 남아 있어 內容을 잘 알 수가 있다.

새 王朝를 창립하고 後三國을 統一하는데 成功은 하였으나 아직도 未解決의 많은 문제들을 남기고 世上을 떠나는 王建은 착잡한 心境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가 死去하기 직전에 子孫에게 親授한 十訓要是 그러한 心情의 所産이었을 것이다.

十訓要의 序文이라고 할 수 있는 「信書」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信書에서 말하기를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 주위의 추대로 王이 되어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焦身勞思하기 19 年에 三韓을 統一하고 王位에 오른지 25 年에 몸도 이미 늙었다.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後嗣들이 情과 慾을 함부로 하여 綱紀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크게 근심이 되어 이에 訓要를 주는 것이니 이를 後孫에게 傳하여

朝夕으로 열어보아 길이 龜鑑으로 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10個條로 된 教訓을 남겼는데 各條마다 끝에는 中心藏之(마음속 깊이 간직하라)하라는 말을 넣어 이를 준수할것을 당부하였던 것이다. 訓要 10條의 本文內容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⁴⁰⁾

訓要第1條：我國家의 大業은 반드시 諸佛호위의 힘을 입지 않으면 아니되겠으므로 禪教 寺院을 開創하고 住持를 파견하여 그業을 닦게 하였는데 만일 後世의 姦臣들이 政權을 잡고 僧徒의 干請에 따라 각기 寺社를 경영하게 되면 서로 爭奪하는 일이 있을것이니 宜當히 막아야 한다.

第2條：新創한 諸寺院은 모두 道說의 推占한 山水順道의 地理에 依하여 開創한 것이다. 道說이 말하되 내가 占定한 以外の 地에 함부로 寺院을 創造하면 地德을 損薄하고 따라 祚業이 걸지 못하리라 하였다. 後世의 國王公侯, 後妣, 朝臣들이 각기 願當이라 하여 寺院을 增加創造한다면 이는 크게 慮할 일이다. 新羅末葉에 浮屠를 濫造하여 地德을 衰損하였음으로써 마침내 亡한것이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나.

第3條：王位繼承은 嫡子로써 하는 것이 常典이지만 만일 元子가 不肖할때에는 次子에게 또 만일 次子가 그러할때에는 그 兄弟중 衆人의 推薦을 받은자에게 大統을 있게하라

第4條：우리東方은 예로부터 唐風을 崇慕하여 모든 文物禮樂을 그 制度에 좃고 있지만 地理風土에 따라 사람의 習性이 다르므로 반드시 同化할 必要는 없다. 더우기 契丹은 禽獸의 나라로 風俗이 우리와 같지않고 言語도 또한 다르니, 그의 衣服制度를 본받지 말라

第5條：三韓山川의 陰助에 의하여 統一의 大業을 達成하였다. 西京은 水德이 順調하여 我國地脈의 根本을 이루고 있어 萬代나 大業을 누릴만한곳이니 마땅히 四仲(子, 午, 卯, 酉, 年)마다 巡駐하여 百日을 留過하여 安寧을 이루게 하라

第6條：나의所願은 燃燈, 八關에 있는바 燃燈은 佛에 奉事하는것, 人間은 天靈, 五岳, 名山, 大川, 龍神에 奉事하는 것이니 後世의 姦臣이 神低날 儀式의 加減을 建議하는 것을 切禁하라 나도 당초 마음 속에 행여 會日이 國忌(王室의 祭日)를 犯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 君臣同樂하여 이를 경건히 行하라

第7條：人君으로서 人心을 얻는다는것이 가장 어려운일이나, 그要是 諫言을 聽納하고 讒言을 멀리하는데 있는것이니 諫言을 좃으면 聖明한 임금이 될것이고 讒言이 비록 꿀과 같이 달지라도 이를 믿지 않으면 訴는 저절로 그칠것이다. 또 百姓을 부리되 時期를 보아하고 徭役과 賦稅를 가벼히하고 民間稼穡의 간난함을 인식한다면 自然히 民心을 얻고 國富民安할 수가있다. 古人의 말에 芳餌之下에 懸魚가 있고 重賞之下에 良將이 있고 張弓之下에 새가 避하고 垂仁之下에 良民이있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賞罰이 得中하면 陰陽도 順調롭게 된다.

第8條：車峴以南, 公州江外의 地는 山形地勢가 모두 背逆하여 人心도 또한 그러하니 만일 저 下州의 人民이 朝廷에 參與하여 王侯, 國戚과 婚姻을 맺고 國政을 잡게된다면 혹 國家를 擾亂하거나 혹 統攝의 원을 품고 叛逆을 敢行할 것이다. 또 일찌기 官寺奴婢나 津驛難尺에 屬하였던자가 혹 勢力家에 投身하여 役을 免하거나 혹 王侯宮院에 來附하여 姦巧한 말을써 弄權亂政, 變을 일으킬자가 반드시

있을것이니 비록 良民이라 할지라도 登用하지 말라

第9條：무릇 官僚들의 祿俸은 나라의 大小에 比例하여 定制를 삼을것이고 함부로 增減해서는 아니된다. 古典에 祿은 功績으로써 하고 任官은 私情으로써 하지말라고 하였다. 만일 無功人이나 親척, 측근者로써 헛되이 天祿을 받게하면 非但下民들의 원성뿐 아니라 當者역시 福祿을 오래누리지 못할것이니 극히 警戒하여야 한다. 또 이웃에 強暴한 나라가 있으면 편안할 때에도 危急을 잊어서는 아니되나니 항상 兵率을 愛恤하여 搖役을 免除하고 每年 秋期查閱에 成績이 우수한자는 適當 進級을 시키라

第10條：國家를 가진자는 항상 無虞(無事時)를 警戒하여야 하며 널리 經史를 讀覽하여 옛을 거울로 지금을 警戒하라. 周公과 같은 大聖도 「無逸」1篇을 지어 成王에게 進戒하였으니 이(無逸篇)를 써서 붙이고 出入할때마다 觀省하라

(各條頃에는 모두 「中心藏之」의 네글자로 終結을 지었다)

이상 訓要 10條의 內容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우선 太祖王建의 政治理念을 뒷받침하고 있는 思想은 佛敎와 地理圖讖說 그리고 儒學思想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思想이 寄興한 분야는 구별되었던 것 같다. 즉 佛敎와 地理圖讖說은 새 王朝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데 反하여 儒學은 政治의 실제적인 實踐倫理로서 존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政治面에서 한정시켜 본다면 前者는 抽象的이지만 後者는 구체성을 띠고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十訓要를 통해서 알 수 있는 太祖王建의 政治思想과 理念의 主流인 佛敎, 地理圖讖說, 儒學思想을 十訓要和 관련해서 實踐樣式

을 알아 불가 한다.

다. 佛 教

太祖는 十訓要중 제 1條에서 「우리國家의 大業은 반드시 諸佛의 호위하는 힘을 입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제 5條에서 「朕은 三韓山川의 陰佑에 힘입어 大業을 성취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서 佛敎와 陰陽圖讖說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또 다른條目에서 佛敎와 관계가 깊은 燃燈會와 八關會등도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統一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新羅 皇龍寺의 九層塔을 본받아 西京에 七層, 九層塔을 세우려 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있다.

太祖王建은 자신이 독실한 佛敎 信者였다. 그리고 佛敎를 적극 장려하고 育成시켜 나갔다. 開城에 法王, 王輪, 慈雲, 內帝釋, 舍那, 天禪, 新興 文殊, 圓通, 地藏의 10寺를 비롯하여 많은 名刹을 지었다. 특히 최후의 勝利를 거둔 連山에는 開泰寺를 세웠다. 開泰는 太平한 時代를 열었다는 뜻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절을 세운 까닭은 自己로 하여금 統一과業을 이룩하게 한 부처님의 은혜에 報答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그 스스로가 지은 願文속에서 말하고 있다.

한편 國內외의 高僧들을 맞이하여 극진히 禮遇하였다. 法鏡大師 慶猷, 洞眞大師, 慶甫, 眞激大師 利嚴, 靜眞大師 兢讓등과 印度의 僧 摩隄羅 등은 좋은 예이다.

그리고 太祖 11年 8月에 新羅僧 洪慶이 중국 後唐의 閩部로 부터 大藏經 1部를 배에 싣고 禮成江에 들어 올 때에는 太祖가 친히 이를 맞아들여서 帝釋院에 두게 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와같이 王建의 佛敎信仰은 現世에 있어서 王室과 國家가 幸福하기를 비는 現實的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王建이 관계한 僧侶들중에는 秘法에 의하여 적을 격퇴하는 힘을 갖인 神印宗계통이 많이 있었다. 寶壤같은 僧은 그代表的인 人物이다.

그러나 王建은 때로 戰爭에 의한 殺生을 꼭 罪스럽게 생각하면서 고민한것 같다. 그는 禪宗九山の 하나인 須彌山の 開祖 利嚴에게 殺生을 하는 것이 장차 禍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고 물은 적이 있다. 이때 利嚴은 「罪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 어찌 罪 있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랴」고 대답하였다고 傳하는데 이말을 듣고 王建은 勇氣를 얻었던것 같다. 이대답은 新羅 圖光의 殺生有擇과 서로 통하는 것이며 佛敎的인 戰爭倫理를 말하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여튼 王建은 良心에 가책으로 말미암은 동요를 佛敎信仰의 힘으로 지탱하여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弓裔의 佛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기도 하였다.

라. 地理圖讖說

王建의 信仰은 佛敎뿐만 아니라 國家에 利益이 된다고 생각한 모든 信仰을 적당히 배합하여 이를 모두 信奉하였다. 地理圖讖說도 그하나였다. 원래 道詵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傳來되었다는 地理圖讖說은 地形에 의하여 人間의 장래를 점치는 것이었다. 이미 太祖가 出生하기 이전에 그의 家門이 地理圖讖說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太祖의 정신면을 지배하고 있던 思想은 佛敎와 함께 地理圖讖說이었음은 訓要十條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第2條, 第5條, 그

리고 第8條에서는 道說의 말을 引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太祖王建이 西京경영에 깊은 열의를 가진 理由중의 하나도 地理圖識說의 影響이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王建은 道說의 弟子인 慶甫라는 僧侶를 영암에서 맞아들여 스승으로 섬겼고 또 天文과 卜술에 능한 崔知夢을 역시 영암에서 맞아들여 고문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王建 자신이 地理圖識說의 충실한 信者이면서 이들 思想을 政治目標에 적절하게 利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는 寺刹의 濫造금지(第2條)나 人材登用に 있어서의 出身地의 制限(第8條)이유에서 그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思想的인 이유는 當時人들에게는 說得力있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앞에서도 살핀바 있지만 그의 子孫에게 三韓山川의 陰助에 의해 統一大業을 達成하였다던가 開泰寺의 願文에서는 佛聖과 함께 山靈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하여 절을 짓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王建에게는 佛敎와 地理圖識說은 불가불리의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 儒學 思想

太祖王建이 儒學에 얼마나 素養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政誠」, 「誠百寮書」를 친히 지었다는 사실과 十訓要중 第7條, 9條, 10條의 內容을 통해서 그가 儒敎的인 政治理念의 要諦를 터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諫言을 좃고 讒言을 멀리하라」 「百姓을 부리되 때를 가려서 하고, 요役은 가볍게 하고, 賦稅를 적게 하여 農事의 어려움을 알면 저절로 民心을 얻어 나라는 富하고 百姓은 편안해질 것이다」

「어진政治를 베푸는 아래에는 반드시 좋은 百姓이 있다」

「平安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어서는 안된다」

「無功한자와 私情으로 天祿을 받게하면 下民들의 원망이 그치지 않을 뿐더러 그사람도 역시 오래도록 福祿을 누릴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등이 그것이다.

실사 이러한 十訓要의 內容들은 太祖가 모두 儒敎經典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오랜 政治的 經驗에서 터득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와같은 立場이 儒敎的인 政治思想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太祖는 이러한 政治目標를 그의 後嗣들에게 훈계하기에 앞서 自身이 직접 實踐하기도 하였다. 즉 審穀使制 稅制改革, 國家布帛으로의 贖良, 西京에 學寶의 설치, 中國文士(西彥規, 朴岩)들의 收容厚待등을 例로 들 수 있다.

끝으로 太祖王建의 政治的 자세는 傳來의 價値觀의 테두리 속에 있었고 궁극적인 目標는 첫째, 새王朝의 基盤確立과 둘째 民心의 安定이었다고 보여 진다. 太祖는 이 政治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시 社會의 思想面을 지배하고 있던 佛敎, 地理圖讖說 儒學 그리고 民間信仰등을 적절하게 活用한 것이다.

어떻든 太祖王建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後三國 統一이란 榮光스러운 主役이 되고, 새 王朝의 基盤을 구축하게 된것은 여러가지의 努力에 依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思慮 깊은 政治理念의 所産이었다 할 것이다.

第六章 結 語

이상에서 後三國 統一과 관련된 資料들을 정리하고 관계 所論들을 廣範圍하게 모아 보았다.

近半世紀 동안 分裂 動亂中에 있던 對內가 다시 統一되어 民生의 安定과 高麗國家 社會의 발전 기틀을 보게 되었다. 만일에 後三國統一이 이보다 더 遲延되었더라면 그當時 百姓들의 고통등 그 影響이 어떠하였을까 想像하여 남음이 있을 것이다. 統一事業이 이렇게 順調롭게 (오늘의 南北統一에 比하여) 達成된 것은 勿論 三國중에서 高麗의 地政學的 條件이라든지 太陸方面의 혼돈한 情勢라든지 太祖를 둘러싼 文武의 참모 그리고 잘 조직 훈련된 軍隊의 힘에도 기인한 바가 많지만 만일 太祖王建과 같은 偉大한 人格과 度量과 力量의 總指導者가 그 地位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結果는 확실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과연 그는 當時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半島가 낳은 한 天才的 武人政治家였던 것이다. 그의 遠大한 抱負, 寬厚한 度量, 巧妙한 政策, 위대한 統率力등이 결국 後三國統一을 成功케 하였던 것이다.

賊師, 將軍의 자격은 있지만 王者로서의 政治能力을 못가진 稚氣가 득찬 弓裔나 事能收拾에는 敏活하였으나 앞을 내다보는 洞察力이 부족하고 이렇다 할 經論을 못 가졌던 甄萱은 그들의 一生을 허비하여 舊新羅의 傳統的인 勢力에 打擊을 加하여 王建이 抬頭할 수 있는 基盤을 준비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王建의 歷史的 위치는 弓裔, 甄萱으로 하여금 先驅的 役割을 하게 하고 그 다

음에 登場한 것이었다. 本文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당시의 一般의 狀態에서 볼 것 같으면 王建은 확실히 弓裔나 甄萱보다 時間的으로 한時期 뒤에 따라서 歷史的 經驗으로서는 一段階 前進한 位置에 있어서 그의 歷史的 課題는 質的으로 다른 豪族세력의 統合과 새로운 國家的 기반을 擴大정리하는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統合과정을 要約해 보면 高麗에서 羅州를 공격하여 後百濟 背後에 狹攻할 수 있는 橋頭堡를 만들어 後百濟의 對中國 通交까지 控制하였고 甄萱에게 心服하고 있지 않은 新羅의 星州나 晋州方面의 豪族들과 連結하여 이를 포위해서 後百濟의 孤立을 피하였다. 이리하여 이른바 天時와 地理와 人和가 모두 王建에게 有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의 政治人 高級官僚를 비롯한 指導층은 이 太祖王建의 人品과 政策 그리고 統率力등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사람의 人間으로서는 겸양하고 신중하고 野心家이기 보다는 穩健한 現實주의자였다. 王者로서는 그 暴惡한 弓裔를 이어 받고 事態收拾에 기민하였던 甄萱이 스스로 來投하여 오게 하고, 新羅 金傳가 千年社稷을 바치게 까지 誘導한 그 巧妙한 政策과 統率力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當時 世界 노벨賞 제도가 있었다면, 또 오늘 王建이 살아 있었다면 그에게 平和노벨賞을 授與해도 不足함은 있다.

지금 우리나라 到處에는 우리 民族이 낳은 偉人 烈士들의 銅像이 서 있다. 그러나 王建의 銅像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 遺憾스러운 일이다. 愛民政治家요 위대한 戰略家요 分裂된 後三國을 統一한 太祖

王建의 銅像建立은 더욱 分斷時代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가. 또 筆者는 後三國統一을 研究하면서 우리 歷史에서 埋沒되어 가는 新羅최후의 王 敬順王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갖게 되었다.

敬順王은 드디어 935年 10月 一大決斷을 내려 國土를 들어 高麗太祖에게 바친 것이다. 歷史는 가끔 드러머턱한 場面을 이루기도 한 다지만 이 場面은 우리 歷史에 있어서 十大劇的場面の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당시 新羅는 굳이 나라를 지키려 다간 百姓들만 피로 몰드리게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千年社稷을 송두리채 받친 것은 王權보다 百姓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앞선 것이다. 古來로 스스로의 特權을 유지하기 위하여 部下와 百姓의 고통을 짐작하면서도 그들을 희생시켜 사양치 않았던 이른바 英雄들을 생각하면 敬順王의 愛民의 뜻은 높이 評價되어 마땅하다. 結論을 말하면 敬順王의 결단이 百姓을 살렸다. 나라를 없애고 百姓을 살렸다고 고쳐 말 할 수도 있고 앞에서 言及한 結婚政策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이름만 바꾸었을 뿐 다른 方式으로 新羅를 永續시켰다고도 할 수가 있다. 이는 愛民정신뿐 아니라 같은 民族이라는 民族의식이 더 作用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여 보는 것이다.

後三國統一을 新羅의 三國統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分裂時期 또는 統一前後 周변情勢가 달랐고 따라서 後三國 統一은 自主的인 統一이었다는 점. 後三國의 統一에 軍事力이 전혀 加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軍事力보다는 政治力에 의한 統一이었다는 점 등이 큰 특징이다.

또한 南北韓 平和統一의 視覺에서 보았을 때 南北間의 對話가 進
행되고 交流와 協力만 이루어 진다면 高麗太祖의 統合政策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많은 適用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 註 -

- 1) 李丙盡, 韓國史 古代篇, 震檀學會, 726-7면
- 2) 三國史記 卷12, 敬順王9年條末, 金鍾權譯 三國史記, 230면
- 3) 景文王은 일찌기 花郎이었고 太子로 册封되었다가 王位에 올랐으나 即位時의 사정을 말하며 「雖非逐鹿之原 亦有集鳥之苑 然以賢以順 且長且仁 爲民所推 捨我奚適」이라 하였다. 「한국사」卷3, 491면 所收
- 4) 三國史記 羅紀 眞聖王 2年條 「女王은 內行이 不正하여 數3人의 年少美丈夫를 불러들여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에게 要職을 주어 國政을 맡기니 모든 紀綱이 해이되었다」
- 5) 李丙燾 前掲書에 收錄된 「三國王系便覽」에 의거 作成한 것임.
- 6)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本紀 15年條
- 7) 李基白, 新羅私兵考, 歷史學報9, 1974.
- 8) 리용중, 後三國의 출현과 高麗에 의한 그의통일, 북한과학원 출판사. 1963.
- 9) 리용중, 前掲書 63면
- 10) 李瑣根, 大韓國史 2, 新太陽社 1973, 11면
- 11) 三國史記 列傳 甄萱條에 「萱十年之長 尊位尙父」라 하였으니 王建이 憲康王3年 丁酉生(877)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相異함이 없다.
- 12) 金庠基, 「甄萱의 家鄉에 대하여」李秉岐博士 頌壽紀念論文集, 1966. 東方史論叢所收 1974. 서울大出版部
- 13) 三國史記 甄萱列傳에는 「良吉」이라 되어있음.
- 14) 世達寺는 후에 興教寺로 改稱,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에

있다.

- 15) 文秀鎭, 高麗太祖의 後三國 統合過程에 대한 再認識, 서울大學校
學位論文, 1997.
- 16) 三國史記 列傳弓裔條
- 17) 金哲俊, 「後三國時代의 支配세력의 性格」
- 18) 金寬毅는 고려시대의 歷史家이며 그가 지은 編年通錄이라는 丁史書
는 現存하는 것이없고 內容의 一部分가 高麗史 世系에 引用 되어
있다.
- 19) 金哲俊 前掲論文 261 면
- 20) 三國遺事卷 2, 眞聖大王, 居陁知條, 李丙燾譯註 三國遺事 258-60 면
- 21) 池內宏, 新羅末의 進禮城仁 について, 1917 東洋學報 第7卷에서 金海,
清道지방으로 考證하였다.
- 22) 여기의 達姑族은 安邊지방을 경유한것으로 보아 女眞族의 一파였
음을 알수있다.
- 23) 三國史記 新羅本紀, 12, 景哀王 3 年條
- 24) 이文書는 三國史記 甄萱列傳과 三國遺事 後百濟 甄萱條에 代甄萱
寄高麗王書가 崔承祐作으로 되어있고 代高麗王答甄萱書는 無名氏
의 作으로 되어있다. 三國遺事는 崔致遠作이라 하였으나 根據
未祥이고 崔彦搆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 25) 高麗史節要 太祖 16 年條
- 26) 이內容은 三國史記와는 다르다. 三國史記 弓裔傳은 「我太祖自松
嶽郡來投 使授鐵圓太守」
- 27) 高麗史 卷 92, 崔凝傳

- 28) 李丙燾, 前掲書 11 면
- 29) 高麗史 卷 1, 太祖世家 其條
- 30) 三國遺事 卷 3, 三所觀音 衆生寺條
- 31) 三國史記 卷 50. 列傳 弓裔條 前掲書 770-771 면
- 32) 高麗史 卷 93, 列傳 崔承老傳
- 3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1. 慶州山川伽耶山條
- 34) 三國遺事 卷 2. 金傳大王條
- 35) 文秀鎮 前掲論文 72 면
- 36) 高麗史 世家太祖 天授 12 年 6 月 庚申條
- 37) 한국사 4 卷 「李龍範, 高麗와 渤海」 103 면
- 38) 이상은 「韓沽勍, 古代社會 成長過程에 있어서 對服屬民施策, 下
歷史學報 제 13 輯 1960. 歷史學會」
- 39) 日野開三郎, 「羅末三國의 鼎立と 對大陸海上交通貿易」 朝鮮學報 第
 16 輯을 참고로 하였음.
- 40) 李丙燾 前掲書 中世篇 79 ~ 87 면

參 考 文 獻

金富軾著, 金鍾權譯, 三國史記 廣曹出版社, 1976.

李丙燾 譯註, 三國遺事, 東國文化社, 1969.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中世篇, 乙酉文化社, 196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4 卷, 국사편찬위원회, 1974.

李瑄根 大韓國史 2, 新太陽社, 1973.

李基白外 韓國의 人間像 2, 新丘文化社, 1973.

金聲翰 王建 第1, 2, 3부, 東亞日報社, 1981.

리용중 후삼국의 출현과 고려에 의한 그의 통일, 북한과학원 출판사,
1963.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통사, 북한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金哲俊 後三國時代의 支配勢力의 性格, 李相伯回甲紀念論叢, 1964.

金成俊 其人의 性格에 대한 考察(上), 歷史學報 第十輯

韓 ㄱ 古代國家 成長과정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其人制 起源說에
대한 檢討에 붙여서

朴漢高 後百濟 金剛에 關하여

李昊榮, 新羅三國統一에 관한 再檢討 史學志 第15輯, 檀國大, 史學會,
1981.

文秀鎭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에 대한 再認識, 서울大大學院學位論文,
1977.

金光洙 高麗太祖의 三韓功臣, 史學志

丁仲煥 高麗王室의 先代世系說話에 대하여

河炫綱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策

“ 高麗太祖와 開城

李基白 統一新羅期 및 麗初의 儒教的 政治理念

金庠基 中國과 韓國의 王朝交替에 대하여,

“ 羅末地方群雄의 對中通交

日野開三部, 羅末三國의 鼎立と 對大陸海上交通貿易

池田宏 新羅末の 進禮城 について

高麗의 後三國統一 研究

(要約文)

(1)

우리 民族史에는 統一을 實現한 두 차례의 빛나는 歷史가 있다. 新羅의 三國統一과 高麗의 後三國統一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統一實現을 남들의 聰明이나 예지에서만 찾으려하고 있다. 統一條件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오랜 歷史經驗과 祖上들의 歷史意識속에서 그 理念과 途程을 探求해 보는 努力도 해 볼 必要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더욱 高麗의 後三國統一은 統一의 굳센 의욕에서 출발하여 自主적인 力量으로 이룩한 民族의 再統一이었다. 오늘 우리立場에서는 한번쯤은 이 高麗의 後三國統一問題를 究明해 보고, 整理해 보고, 訂고 넘어가야만 할 課業이라 생각된다.

目的하는바는 우선 後三國統一과 關聯되는 資料들을 統一이라는 視角에서 整理하는 일이며, 가장 力點을 두어야 할 分野는 太祖 王建의 그 巧妙한 統合方略이 무엇이었던가를 알아내고 그중 適用可能한 것을 찾아보는 일이다. 이와 關聯하여 後三國 分立의 背景과 後三國 歷史 舞台의 主人公이었던 王建, 弓裔, 甄萱에 대한 分析 그리고 後三國 分立時期 百姓들의 統一指向 의지등이 主要 研究對象이 된다.

研究對象 時期는 農民蜂起가 絶頂이던 9世紀末부터 즉 弓裔가 登場하고 甄萱이 武珍州를 攻略하는 890年代初부터 신라 敬順王이 歸附하고 後百濟가 降伏하여 統一이 成就되는 936년까지의 약 45年間이 된다.

當時의 周邊情勢는 大陸, 海洋勢力을 막론하고 後三國의 分裂이나 統一에 外勢의 影響이 별로 없었던 時期이므로 重視하지 않기로 한다. 이점이 新羅의 三國統一이나 오늘의 南北韓 統一條件과는 다른점이다.

(2)

後三國 出現背景의 첫째는 新羅下代로 들어오면서 王位쟁탈을 중심으로 한 음모 반역, 골육상쟁의 亂이 그치지 않아 王權이 衰弱해졌다는 사실이다. 第36代 惠恭王부터 後三國으로 分裂이 始作되는 第51代 眞聖王때까지 네王이 弑害되었으며 眞聖女王의 極度の 失政은 百姓들의 願望을 샀고 그다음을 이은 孝恭王도 賤妾에게 마음을 두고 政事를 돌보지 않자 大臣이 諫하여도 듣지 않으니 그女子를 죽이고 말았다. 王의 愛妾을 臣下가 죽여버릴 정도였으니 王權의 衰弱이 어느정도였던가를 상상할 수가 있다.

둘째로 위와 같은 王權의 衰弱은 經濟組織의 無秩序를 招來하게 되고 그 結果는 貧益貧 富益富와 百姓들의 生活苦를 가속화 시켰다. 少數의 貴族들은 三千人의 奴僕을 거느릴 食邑과 田庄을 갖었지만 百姓들은 「民錢賣子孫自活」의 참상을 빚었다. 여기에看過할 수 없는 것이 寺院의 橫暴였다. 禪宗寺院들은 免稅特권을 누리면서 商業은 勿論 高利貸金業까지 하고 農民의 土地를 약탈하여 田庄을 擴大시켜나갔다. 여기에서 草賊, 群盜가 일어나고 各地에서 대대적인 農民蜂起가 빈발하였다. 9세기 후반 農民의 蜂起한 回數를 정리하여 보았더니 무려 21회나 되었다. 이러한 混亂속에서 各地에서 반란을 주도한 賊將들을 百姓들은 아마도 그들은 한낱 도적이 아니라 無政

府狀態의 混亂속에서 國家再建의 꿈을 갖게하는 開國創業의 지도자로
비치었던 것이다.

세계 이러한 混亂의 時流를 이용하여 登場한 弓裔는 後高句麗王을
自稱하고 甄萱은 後百濟를 세움으로써 後三國의 分裂歷史가 展開되었
다. 그리고 이 時期 城主 將軍을 표방하는 豪族들이 各地에서 발
호하여 그勢가 王權을 능가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賊將들로서 城主,
將軍의 擴大版이 弓裔, 甄萱이오 弓裔, 甄萱의 縮少版이 城主, 將軍이였
던 것이다.

弓裔와 甄萱이 많은 活動을 하였지만 이를 한마디로 評價한다면 將
軍의 자격은 있으나 王者의 政治能力을 못가진 稚氣 가득한 弓裔나
事態收拾에는 敏活하나 앞을 내다보는 洞察力이 不足하고 이렇다 할
經綸을 못가져던 甄萱은 그들의 一生을 허비하여 舊新羅의 傳統的인
세력에 打擊을 加하여 王建이 抬頭할 수 있는 基盤을 준비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넷째 後三國分立의 직접적인 原因은 아니라 하더라도 新羅를 崩壞에
이르는 過程을 促進시킨 原因의 하나가 新羅首都의 偏在性이다 統一
新羅의 首都가 東南 一隅에 처박혀 있어 遠西, 遠北地方에서 일어나는
農民蜂起를 진압하기에는 그 位置가 너무도 不合理하였다.

위에 列挙한 諸要因이 복합하여 後三國分裂을 맞게 되는데 이는 新
羅滅亡의 原因이기도 하다. 國家나 政權의 興亡盛衰의 要因은 예나
이제나 다를 바가 없는것 같다.

(3)

暴惡한 弓裔를 물리치고 그 政權을 계승한 王建은 어떤 家門에서 태어났는가. 金寬毅의 編年通錄을 引用한 高麗史 序頭の <高麗王室의 世系>를 分析해 보면 王建의 祖上은 高句麗의 遺民으로서 처음 그 身分은 한미한 존재였으며 신라近方인 中部 西海岸 일대에 살면서 점차 致富하였고 新羅末 西海上에 상당한 海上勢力을 가지고 西海貿易에 종사하여 더욱 富를 이룩하였으며 신라王朝가 쇠퇴해 가면서 新興勢力으로 登場하여 冑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開城地方의 豪族이었던 것이다.

王建은 895年 19세때 그의 아버지 龍建을 따라 弓裔의 部下가 되어 東奔西走하였는데 그의 活動은 첫째 京畿道 및 忠淸道 地方에 대한 攻略이었고, 둘째는 慶尙道方面에서의 活動이었으며 세째는 海軍에 의한 全羅道方面에서의 作戰이었다. 특히 羅州地方의 占領은 後三國統一 史上 특기할 的의를 지닌다. 이때부터 王建은 將軍으로서 뿐만 아니라 戰略家 내지는 政治家로서도 周圍의 注目을 끌었다. 또한 王建은 온건한 性格의 소유자로서 시기심 많고 포악한 弓裔 밑에서도 自重해서 無事함을 얻었다. 弓裔가 지나치게 暴惡하지 않았다면 王建은 한사람의 有能하고 忠直한 臣下로서 一生을 마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洪儒 裴玄慶등에 의하여 추대되어 王位에 오른것은 918年, 當時 王建의 나이 42세였다. 國號를 高麗, 年號를 天授라 하고 首都를 자기의 本拠地인 松嶽으로 옮겼다.

太祖의 東征西鬪의 나날은 계속되었다. 그중에서도 太祖 10年

(927) 은 多事多難했던 해로 歷史上 보기드문 사건이 發生한 해이다. 甄萱이 慶州를 급습하여 景哀王이 慘事을 당하기도 했지만 高麗太祖는 九死一生으로 살아남기도 하는 한편 1年의 半以上을 戰場에서 보낸해가 아닌가 한다. 甄萱이 慶州를 습격하여 위세를 떨쳤지만 이것이 新羅人의 向背를 高麗쪽으로 定하게 하여 得보다는 失이 많은 結果를 가져왔다. 太祖 13年 울산以北의 110餘城이 영똥하게도 高麗에 항복하였다.

이때의 形勢를 三國이라 하지만 新羅는 이미 衰殘하여 命脈이나 유지하는 정도였고 争鬪는 주로 高麗와 後百濟사이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軍事活動과는 關係없이 後百濟 指導層 内部에 亀裂이 일어났다. 長子 神劔에 의하여 甄萱이 金山寺에 유폐되고 3個月만에 脱出하여 羅州를 거쳐 高麗에 投降하게 되었다. 太祖는 甄萱을 尚父라 稱하고 百官의 위에 두워 尊崇한 대접을 하였다. 同年 10月 新羅의 敬順王이 來附하게 되었다. 最後로 後百濟의 神劔軍과 對戰하여 黃山에서 最後決戰을 勝利로 이끈 것이다.

太祖는 建國한지 18年만에 수많은 戰鬪에 종사하면서 各地의 豪族세력을 統合하면서 民族의 再統一을 이룩한 것이다.

(4)

後三國을 살아가는 人民(百姓)들의 統一指向性은 어떻하였을까 편의상 王建의 統一意志 百姓들의 統一指向性, 隱語, 豫言을 통해 본 統一指向性等으로 나누서 考察해 볼 수 있다.

王氏家系와 關聯된 說話에는 <三韓統合>이라는 말이 자주 눈에 띈

다. 「三韓을 統合할 아들을 낳을것이다」라든가 「寶育이 鶴嶺에 올라 오즘을 누니 그것이 三韓山川을 뒤덮는 꿈을 꾸었다」라든가 「大王이 만일 朝鮮, 肅慎, 下韓의 地에 王하러 할진대……나의 長子로써 其主를 삼으소서」 이러한 說話의 王氏世系를 그대로 믿을것인가는 別問題로 하고 어쨌던 王建 祖上들의 「三韓統合」에의 念願은 王建에게도 그대로 傳承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王建은 王位에 올라 開京에 많은 寺刹을 지었는데 이는 統一事業에 佛敎의 은혜를 빌자는 것이었고 신라의 皇龍寺 九層塔을 본받아 開京에 七層塔을 西京에 九層塔을 세우려 하였던 것은 모두 統一의 所願을 이룩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王建이 新羅를 치지 않은 것은 王建이 벌써 三國의 統一者로 되었을 때 國家의 正統性을 계승하였다는 名分을 準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가,

三國의 混亂時期 百姓들의 절신한 念願은 참을 수 없는 生活苦에서 벗어나 좀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신라王朝의 타도를 目標로 鬪爭을 展開하였다. 그러나 後三國의 出現으로 百姓들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는데 그것은 약탈과 착취뿐 아니라 戰爭에 또한 참을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참상을 체험하고 있는 百姓들의 一致한 指向은 가혹한 약취의 제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200年間 單一한 民族으로 살아온 처지임으로 나라의 分裂을 반대하였으며 하나로 되기를 절실히 소망하였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現在 傳해지는 史料들 중에는 新羅王朝의 멸망과 高麗王朝의 出現을 暗示하는 여러개의 隱語와 豫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王昌瑾이 산 古鏡讖文은 그 代表的인 것이다. 또한 高麗史 崔承老傳에 나오는 「金鷄(新羅)가 自滅할 때를 當하고 丙鹿(高句麗)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었다……」 등의 破字투의 隱語라던지, 崔致遠이 말했다는 「鷄林黃葉, 鶴嶺青松」은어등이 있다.

위 資料들은 弓裔가 亡하고 王建이 일어나서 新羅는 自滅하고 高麗에 의하여 統合된다는 内容들이다. 즉 하나로 부터 分裂에로가 아니라 셋으로 부터 하나에로 즉 當時로 말한다면 後三國의 分裂로 부터 하나에로의 統一을 그 内容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신라 최후의 敬順王이 고려에 歸附하여 오는 光景을 묘사한 記錄은 이를 實証하고 있다고 보겠다.

특히 이時代의 風水地理說의 새로운 流行은 社會轉換, 文化轉換을 뒷받침하면서 慶州가 한나라의 首都로서의 位置가 不適當을 강조하고 半島의 中心인 松嶽地方이 有利하게 인식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5)

弓裔의 政權을 이어받고 甄萱이 來附하고 新羅로 하여금 千年杜稷을 바치게까지 유도하여 後三國을 統一한 高麗太祖 王建의 巧妙한 政策과 偉大한 統率力,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첫째 王建이 王位에 오르자 弓裔, 甄萱의 파괴활동과는 달리 착실한 秩序회복에 力點을 두었으며 文臣들을 포섭하고 儒敎理念을 표방하였다. 羅末의 知識계급과 비관세력이었던 渡唐留學生, 禪宗僧侶들이 高麗太祖를 支持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 後三國 統一戰에서 가장 심각한 難事중의 하나가 豪族들의 처우문제였다. 本稿에는 太祖에 포섭된 17명의 城主 將軍을 정리해 본 바 있지만 이 豪族들은 獨自의 세력을 강력히 내세우는 存在로 中央

政府의 支配로 부터는 独立的이며 行政的으로나 軍事的으로는 一定地域을 장악하고 언제든지 機會를 보아가며 新羅로 부터 離脱할 可能性을 항상 지니고 있는 세력이었다. 後三國時代는 바로 이 豪族의 存在를 배경으로 하여 展開된 것이다. 세 王國으로 分裂하여 併立할 수 있는 社會的 기반은 바로 豪族들의 存在였던 것이다. 太祖의 이들에 대한 포섭은 軍事力보다도 政治力의 行使였다. 당시의 政治型態를 豪族과 관련지어 規定한다면 豪族聯合政權이라 할 수 있다.

地方豪族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으며 親히 訪問하여 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事審官制度和 其人制의 實施로 豪族들의 생리에 맞는 政治를 行하였다. 이는 또한 初期 太祖가 一方的으로 地方의 豪族세력을 統制할 수 없는 權力の 限界를 인식한 절충方法이 었는지도 모른다.

셋째 高麗太祖의 豪族政策중 政略的 結婚政策과 賜姓政策은 오늘의 用語로 表現한다면 民族의 同質化政策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王建은 各地方의 有力한 豪族들과 連結하면서 6名의 王妣와 23名의 夫人을 맞아 들였는데 이 29名이 地域的으로 잘 암배가 되어 있다.

이 政略的 婚姻政策은 豪族의 포섭方法으로 취해진 것이지만 民族의 同質化方法, 民族의 和合方案으로서는 더 좋은 方案이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高麗太祖는 自己의 姓(王族姓)을 有力한 豪族들에게 賜하여 擬制家族的인 關係를 맺으려고 하였다. 이 無氏有名者들에게의 賜姓政策은 그들에게 忠誠心을 자극하면서 서로의 一切感이 더욱 培養되었을 것이다.

넷째 5萬名에 가까운 渤海遺民을 포섭 受容하여 半島統一에 至大한

기여를 하게 하였다.

다섯째 來投者들에게 대한 處遇問題이다. 그前 弓裔가 新羅를 滅都라 부르고 來投者들을 誅殺한 것과는 달리 太祖는 그들에게 田宅과 祿邑을 주워 安住시켰다. 또한 應分の 官職과 食邑을 나렸다. 이렇게 하여 來投者들로 하여금 統一大業에 身命을 바치도록 한 것이다.

여섯째 高麗가 급기야 半島의 統一者가 된 것은 海上權의 確保를 위하여 羅州, 康州를 占領하여 經略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後百濟를 狹攻할 수 있고 海上交通과 海上貿易을 장악할 수 있으며 그 地方의 豪族과 聯合할 수가 있었다. 暴惡한 弓裔를 피하여 한때는 王建이 避身處로도 이용했고 後百濟의 甄萱은 이 羅州를 통하여 降伏해 오기도 하였다.

또 王建의 巧妙한 政策을 엿볼수 있는 것은 이 地方民들이 自進하여 高麗에 예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끝으로 대체로 새王朝의 創始者는 東征西鬪의 나날을 보내야 하므로 自己 자신의 政治理念을 가다듬을 여가가 없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나 王建의 경우는 파란만장의 生涯속에서도 高麗王朝의 政治理念을 定立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王建의 政治家로서의 偉大性은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政誠」와 「誠百寮書」「訓要十條」가 바로 그것이다.

王建이 十訓要를 지은 시기는 그가 高麗를 建國한지 26年 後三國을 統一한지 8年째인 943年 67세때로 이 世上을 떠나기 몇달전이었다. 앞날을 걱정하면서 子孫에게 親授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太祖 王建의 政治理念을 뒷받침하고 있는 思想은 佛敎와 地理圖참說 그리고 儒學思想이다. 즉 佛敎와 地理圖참說은 새王朝의 精

神的 기반으로 儒學은 政治의 實際的인 實踐倫理로서 존중되고 있다.

어떻든 太祖王建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後三國統一이란 榮光스러운 主役이 되고 새王朝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것은 여러가지의 努力에 依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思慮깊은 政治理念의 所産이었다 할 것이다.

(6)

高麗太祖 王建은 當時에 있어서 과연 偉大한 指導者였다. 半島가 낳은 天才的 武人政治家였던 것이다. 그의 遠大한 抱負, 寬厚한 度量, 巧妙한 政策, 偉大한 統率力등이 결국 後三國統一을 成功케 하였다. 한사람의 人間으로서는 겸양하고 신중하고 野心家이기 보다는 隱健한 現實主義者였다.

오늘 우리의 政治人 高級官僚를 비롯한 指導層은 이 太祖王建의 人品과 政策 그리고 統率力, 愛民思想등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當時에 世界노벨平和賞 制度가 있었다면 또 오늘 王建이 살아있었다면 그에게 平和노벨賞을 授與해도 不足함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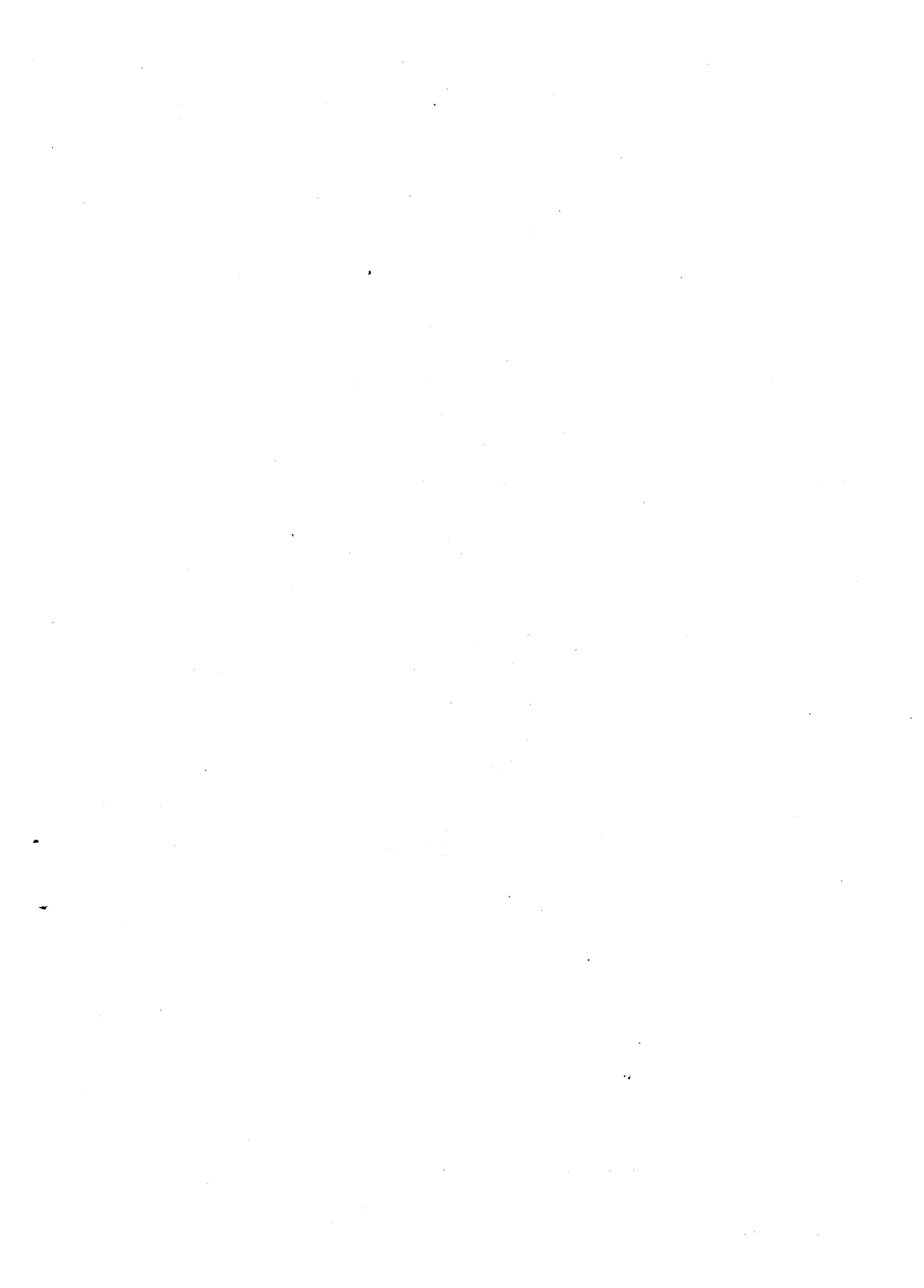
지금 우리나라 到處에는 民族이 낳은 偉人 烈士들의 銅像이 서있다. 그러나 王建의 銅像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 愛民政治家요 偉大한 戰略家요 더욱 分裂된 後三國을 統一한 太祖 王建의 銅像建立은 더욱 分斷時代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南北韓 民族統一의 視角에서 太祖의 政策을 보았을 때 北韓社會를 開放하여 對話와 交流만 이루어진다면 오늘의 우리에게도 當時의 統合政策은 많은 適用可能性을 示唆해 주고 있다.

新羅의 三國統一

오늘의 視角에서 본

第2部



目 次

1. 序 論	121
2. 統一期 三國間の 國勢	125
가. 高句麗의 國力	125
나. 百濟의 國力	129
다. 新羅의 社會, 經濟的 力量	132
3. <u>三國間の 軍事侵略과 抗唐을 통한 統一 實現</u>	135
가. 高句麗의 大挈南侵과 그의 南界	135
나. 百濟, 新羅의 接近	138
다. 濟, 羅의 漢江流域 再奪還	139
라. 新羅의 漢江全流域의 独占과 党頃城의 構築	140
마. 高句麗, 百濟二國의 新羅侵攻	143
바. 金春秋의 事大外交와 羅唐聯合軍에 의한 百濟의 滅亡	147
사. 高句麗의 最後	149
아. 百濟, 高句麗의 復興運動	151
자. 羅, 唐戰爭과 統一實現	153
4. <u>新羅 三國統一의 否定要素와 肯定 要素</u>	156
가. 歷史學者들의 所論	156
나. 否定要素	160
다. 肯定要素 - 歷史的 意義	163
5. <u>新羅의 統一이 오늘의 南北韓 平和統一에 주는 教訓</u>	165
가. 新羅의 勝利가 주는 教訓	165
1) 統一의 굳센 意志와 使命意識	165

2) 護國佛敎와 國民思想	169
3) 統一期 新羅 指導者들의 力量	172
4) 漢江全流域과 党頃城의 確保	175
5) 聯唐策의 成功	177
나. 百濟 滅亡에서 얻는 敎訓	177
1) 百濟 지도층의 豪奢와 遊興	179
2) 偽計에 놀아나는 百濟 諸王	180
다. 高句麗의 敗亡이 주는 敎訓	181
1) 好戰性으로 인한 國力消耗	181
2) 指導層 内部의 分裂	182
6. 結 論	183

1. 序 論

우리 民族史의 暗黒期인 日帝 植民統治 36年과 맞먹는 分斷 36年도 歲暮에 접어 들었다. 그동안 國土와 民族의 統一問題를 놓고 우리는 多方面으로 研究 調査를 거듭해 왔다. 國際政治學者는 世界情勢面에서 北韓問題 專門家는 北韓의 動態를 놓고 調査 分析和 그 추적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經濟學者는 兩側의 國力추세를 통하여 優劣를 놓고 比較研究도 하였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民族의 至上命題인 統一實現에 대하여서는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한편 世界 여러 碩學들을 불러 多方面에 걸쳐 數없는 意見交換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高見과 卓論이 統一의 基本的인 方向과 指標를 提示하거나 啓導해 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나는 우리 民族의 至上課題를 解決할 수 있는 基本方向과 意志와 道程을 남들의 聰明이나 술기에 依存해서 探求할 것이 아니라, 또한 現實속에서만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先祖들의 오랜 經驗과 歷史意識 속에서 찾을 바가 없겠는가를 생각하여 보았다. 이같이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고마운 일은 우리의 祖上들이 이미 1千數百年前에 三國統一의 大業을 成就한 그 빛나는 歷史를 우리들에게 물려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 新羅의 三國統一과 오늘 統一課題를 건주어 考究를 試圖한 바가 없다. 「溫故知新」이란 말이 있음이 생각난다. 韓半島의 東南구석에 자리했던 小國 新羅가 三國統一의 大業을 成就한 原動力은 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 오늘의 教訓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新羅의 三國統一과 오늘 우리가 達成하고자 하는 統一課題사이에는

勿論 많은 相異點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일에 있어 「군은意志」는 先行條件이다. 「意志가 있는곳에 길은 열린다」는 格言이 있듯이 新羅人들은 어떠한 統一意志를 가졌던가 더욱 알고 싶다.

우리가 統一을 이룩해야겠다고 외치는 當爲性的 첫째는 民族史의 要請인 것인바 그러나 이에는 두가지 相異한 側面이 있음을 看過할 수가 없다. 하나는 民族史의 內面에서 보는 立場이며 또 하나는 外側에서 보는 立場이다. 우리 民族史의 內面에서 볼 때 우리의 國土와 民族의 統一은 絶對的인 要請이지만 그 歷史를 떠나서 볼 때에는 統一은 여러 價値중의 하나에 不過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價値와 比較해서 「利」가 있으면 選擇하고 그렇지 않으면 統一을 버려도 좋다는 相對的 價値가 되어 버린다. 그리하기 때문에 統一의 當爲性的 根柢는 「우리들이 民族史의 繼承者이며 擔當者라고 하는 自覺과 보람」 바로 여기에서 찾게 된다. 이 自覺과 보람을 떠나서 超然하고 客觀的인 立場에서 論할 수 있는 統一의 當爲性은 存在할 수가 없다. 그러나 反面 우리 民族史의 밖에서 우리의 統一을 바라본다면 現在로서는 非現實的인 것으로 비추어질지도 모른다. 가령 美國市民에게 「힘겨운 大戰爭을 거쳐 美國의 南部와 北部의 統一을 維持하려고 한 것이 正當한가?」고 묻는다면 그들은 서슴 없이 그 正當性을 강조할 것이다. 이 대답은 바로 美國의 南北統合을 그들 歷史의 內面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統一의 當爲性이 民族史的인 要請인 同時에 우리가 이룩해야 할 統一은 實質的인 民族의 統一인 것이다. 民族要件을 흔히 血緣, 言語, 歷史, 利害關係의 一致, 地理的條件등을 들고 있지만 學者에 따라서는 이에 더하여 「民族構成員들의 歷史的融合이 民族形成의 關鍵」이라고

強調하기도 한다. 이 融合은 하나의 集團이 「같이 苦難을 겪고, 같이 즐기고, 같이 希望을 나누어 왔다」는 事實, 그중에서도 「共同으로 겪은 苦難의 記憶」에서 民族의 要件이 成立된다고 한다. 回顧해보면 過去의 數千年동안 우리 民族이 얼마나 쓰라린 苦難을 克服하여 왔으며 또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것들을 形成하여 왔던가?

이와같은 民族史와 民族國家의 形成이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었는가, 韓半島에서 統一된 民族國家을 形成한 歷史過程의 始發은 新羅의 統一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더하여 三國의 競争을 克服한 新羅의 統一國家形成이 우리의 民族主義의 始源이며 民族國家形成의 始初라고 볼 수 있다. (閔丙天, <統一理念에서의 韓國的 民族主義에 관한 理念 定立>), 여기에 新羅統一의 意義가 있으며 民族史의 要請으로 民族을 統一하려는 오늘의 우리가 新羅의 三國統一을 바라다 보게되는 커다란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新羅의 三國統一에 대하여 學者들間에서도 見解의 差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肯定要素보다는 否定要素를 強調하는 경향이 없는것이 아니다. 이의 餘波는 國民들간에는 新羅의 三國統一을매도하는 沒知覺한 分子까지 있는 형편이니 이점에 대하여도 냉엄한 考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本研究가 三國의 一般史의 철저한 理解로 부터 出發되어야 할 것은 말할것도 없으나 留意하고자 하는 점은 歷史的 事件의 羅列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늘의 南北韓의 統一이라는 視角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方向設定은 必然的으로 當時 三國間의 國力の 比較와 武力충돌過程도 살펴 보게 되고 新羅의 三國統一과 오늘 우리가 達成하려는 統一과의 性格도 比較해 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本研究의 核心은 이에서 무엇인가의 示唆와 教訓을 찾아보
자는 것이다.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原動力과 大國 高句麗의 敗亡과
百濟의 滅亡要因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좋은 教訓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統一期 三國間的 國勢

우리 民族은 歷史이래로 強大한 外國勢力의 위협과 侵入을 물리쳐 가면서 萬全不敗의 民族國家를 形成하기 위하여 古朝鮮의 分散 亂立에 서 統一 獨立의 길을 志向하는 끈질긴 努力을 계속해 왔다. 그 結果 1世紀 中葉에는 10餘개의 部族國家들이 어느덧 新羅, 高句麗, 百濟의 三國으로 定立되어 鼎立의 기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三國은 또 다시 제각기 進一步하여 「會三歸一」하는 統合의 方途를 摸索하게 되었으니 이에는 무엇보다도 着實한 國力의 培養이 隨伴될 것이다. 이 理致는 예나 이제나 다를바가 없으리라. 따라서 먼저 高句麗, 百濟, 新羅 三國의 社會, 經濟面에서의 國勢부터 考察해 보기로 한다.

가. 高句麗의 國力

五部族間의 勢力消長이 되풀이 되다가 桂婁部에 의한 王權이 굳어져 비로소 政治的인 安定이 싹뻗던 高句麗는 3世紀 中葉까지만 해도 大山幽谷에 둘러쌓여 食糧의 自給조차 힘겨운 冬佳江 中心의 三萬戶 정도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 없는 나라였다(魏志 東夷傳)

이 冬佳江流域의 小王國이 東洋史의 表面에서 極東政局의 主導的 지반을 구축하게 된것은 4世紀後半인 故國壤王의 遼東, 玄菟, 徑略後부터 였다.

南滿洲의 심장부로 漢代이래 번창을 거듭한 遼東城을 확보하게 된 것은 南滿洲 一帶를 支配하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現在까지도 滿

洲政治와 經濟의 中心인 瀋陽(奉天)이 高句麗에 의하여 처음으로 세워지고 吉林까지 高句麗式의 山城이 절비하게 남아있는바 이는 모두가 遼東城 經略後부터 였다.

고구려領土가 東南은 오늘의 德源까지 미쳐 東西 2千里, 南北 1千餘里로서 滿洲의 分水嶺을 이루고 있는 옛 夫餘의 中心地인 長春 農安까지 包含하고 西으로는 遼河西岸에 미치는 廣大한 地域을 차지하게 된 大王國으로 成長하였던 것이다(高句麗 興起 三韓比定圖 參照) 이때 4世紀末에는 民戶도 3世紀때의 3倍로 늘어 났다고 한다.

(長壽王때의 北魏使臣 李敷의 高句麗見聞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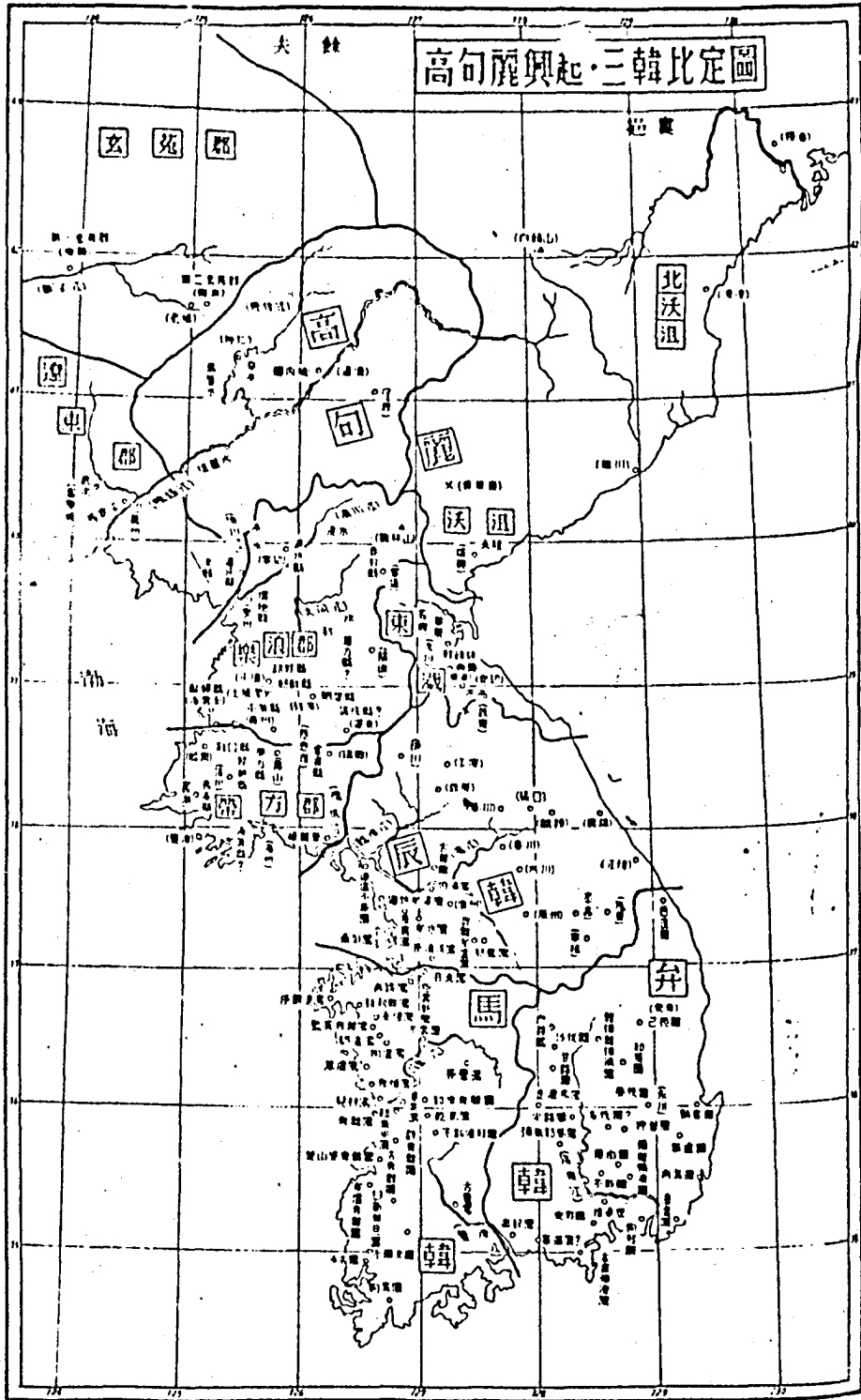
고구려의 이와같은 飛躍的인 發展과 더불어 政治的인 安定期를 누리면서 刮目할 정도로 産業의 발전을 이루었다.

古來부터 그 生産과 技術이 널리 알려진 豆滿江流域의 鐵은 일찍부터 고구려에 의하여 開發되어 4世紀初에는 東海를 건너 日本에 까지 輸出되었다. 이鐵의 利用을 배경으로 漢代이래 鐵의 우수한 生産地로 알려진 遼東城과 安東城 一帶를 徑略한 후의 고구려 製鐵은 능히 極東의 政局을 주름잡을만한 經濟力을 갖추게 하였던 것이다.

遼東의 鐵 資源과 고구려의 능숙한 製鍊技術로서 製鍊된 고구려의 鐵은 當時 멀리 興安嶺 東쪽 기슭의 未開發인 「室韋」에 까지 輸出되었던 것은 中國史書에도 뚜렷이 밝혀져 있다.

豊富한 製鍊技術의 뒷받침으로 고구려의 生産力은 다시 夫餘땅인 長春, 農安을 徑略하게 되고 여기에서 豊富한 農産品과 그 特産으로 널리 알려진 말(馬) 天然眞珠를 얻게 되며 급기야는 漢江流域에 까지 進出하여 多濕溫暖한 農耕地帶의 占拠로 까지 急成長하였던 것이다.

6世紀初의 고구려가 吉林方面의 靺鞨族을 또는 巨酋 突地稽를 遼河



로 몰아내고 松花江一帶의 土族들에게 위협을 加할뿐 아니라 西로 遼河를 넘어 폭발적으로 南下하던 突厥과 契丹族의 支配權을 놓고 對立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生産力의 뒷받침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 全盛期에 30萬의 大軍을 保有하였던 것도 生産力의 底力이 없이는 想像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왕성한 生産力을 배경으로 한 고구려의 成長은 中國을 統一한 隋帝國으로서도 위협적인 存在였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오늘날 피로 얼룩진 受難의 歷史를 잇고 고구려에 대한 回想에 잠길 때에 民族의 矜持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말굽으로 시라 무렌下流에서 北으로 松花江까지 짓밟고 隋의 百萬大軍을 두차례나 完破하여 그 帝國의 瓦解를 촉진시킨 快事에 이어 強硬한 對外政策의 成功으로 唐帝國 최대의 君主로 손꼽히는 李世民의 唐軍을 完破한 國力에 있다는데 누구도 異議가 없을 것이다.

고구려의 이와 같은 國勢는 外觀上으로 보아서는 成長一路를 밟았던 長壽王 15年(427)에 首都를 韓半島內의 平壤으로 옮긴것이 곧 고구려의 末路를 豫想하는 듯한 不吉한 징조일뿐 아니라 우리民族의 退縮을 의미하는 첫걸음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아마도 北部中國을 統一하여 國外蒙古를 包含하는 大帝國인 鮮卑族 拓跋氏의 위력을 意識하였던 것도 그하나의 原因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어쨌던 그 旺盛한 鬪爭力을 넓은 大陸에서 비좁은 韓半島內로 돌렸던 것은 그후의 우리國史가 韓半島의 歷史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主因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이점에 대하여 李瑄根 大韓國史 p.178는 「그當時 우리民族의 領域을 遼河와 松花江의 東南岸에서 濟州島까지로 생각하고 三國統一을 전제로 한 首都의 地政學的인 位置를 생각할 때 長壽王의 平壤遷都는

정말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어 천도의 의도에 대하여 「長壽王의 平壤遷都는 北進經略에 힘썼던 廣開土王과는 달리 南進經略에 치중한 長壽王의 政策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百濟의 國力

統一이전의 百濟의 國力에 대하여는 史料面에서 疎忽한 점이 많다는 것이 一般的 論議이다. 이는 三國史記의 撰者의 不注意 또는 百濟史料의 保存이 너무나 허술하였던 까닭으로 因한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百濟國力의 弱勢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百濟의 絶頂期로 알려지고 있는 近肖古王때 (346 ~ 374)에는 西로 楊子江南의 東晉과 통하고 東으로는 많은 百濟民이 日本으로 건너가 日本으로서는 最初의 古代國家인 이른바 大和朝廷의 主體를 이룩하였던 찬란한 文化를 가진 王國이었다. 이점에 대하여 「三韓之中 百濟最強 最文」이라고 까지 表現한바가 있다(丁若鏞 「疆域考」중 弁辰考)

百濟國의 強盛과 그 文明은 300年間 東北亞에서 冠絶했다.

첫째 百濟는 韓半島에서는 가장 기름진 穀倉이요, 또한 漁産이 豊富한 京畿, 忠淸, 全羅의 6道를 차지하고 있으니 실인즉 13道の 약 절반을 차지한 셈이 된다.

둘째는 百濟는 中國本土에서는 北은 그넓은 韓半島의 $\frac{2}{3}$ 가 넘는 河北省地區를 가졌고, 南은 楊子江 入口 廣大한 面積의 吳, 越지대를 차지하였으며 그中部에 있어서는 中國茅二로 広漠한 黃淮平原의 大部分을 占領하였고 다시 東쪽으로 山東半島를 占領하고 있었다(이점 文定昌씨의 所論이나 學者間에 異論이 있음)

셋째, 東南海를 건너 倭王·武의 나라와 應神祖 倭國을 分國으로 하여 日本列島를 그 勢力圈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 모든 領域을 합하면 그 넓음이 東西古今 어느帝國에 比해도 손색이 없다. 韓半島 西南海岸에 位置한 百濟國의 韓·中·日 三國의 地域에 걸친 그 찬란한 歷史活動은 伊太利半島에 자리 잡았던 古代 로마帝國의 그것과 比較史的으로 联想하게 된다(文定昌 百濟史 p.311)

더욱 4世紀부터 8世紀까지의 日本文化가 韓半島의 植民文化였던 것이며 「日本書紀」나 기타의 日本古代文化의 主流는 실로 百濟文化였던 것이다(松本清張의 學術강연 內容 1973.6 “古事記의 수수꺼기를 푼다”) 이러한 사실들은 안탐잡게도 우리 史料에서 찾아 볼 수 없는 百濟文化의 자취가 當時 日本에 傳達된 百濟적 文化를 檢出함으로써 어느程度까지는 原形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不幸중 다행한 일이다.

阿直岐 王仁 등이 日本에 漢學을 傳한것을 비롯하여 億仁을 비롯한 많은 百濟人들이 醫術과 曆法, 繪畫, 彫刻鑄, 紡績, 音樂, 染色, 建築, 業, 金屬工業, 土木기술에 이르기까지 百濟文化의 扶植이 아닌것이 없을 정도다. 現在 日本最大를 자랑하는 奈良大佛의 鑄造總責任者가 國君 磨呂라는 百濟人이었을 뿐 아니라 日本에서 國寶로 지정된 이무렵의 佛像과 美術品이 또 거의 百濟人의 숨씨가 스며있는 것으로 보아 百濟文化는 當時에 있어서는 新羅文化에 比해 훨씬 先進的인 것이었다.

이 全盛期의 百濟가 一時나마 그 勢力을 遼西地方에 까지 뻗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것도 百濟의 이와같은 文化와 이 文化를 뒷받침한 生産力에 있을 것이며 또 南下의 氣勢를 보이게 된 高句麗를 자주 괴롭힐 수 있었던 底力도 그 源泉은 역시 生産力을 배경으로 한 國力充實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平和時代가 아닌 三國의 鼎立이라는 殘忍한 힘의 對決에 있어서 是는 찬란한 百濟文化의 長點이 도리어 脆弱點化하였고 이것이 그 國勢에 까지 致命的인 打擊을 받게 되었다는 事實은 今後 충분히 研究가 되고 留意하여야 할 일이라 하겠다 (5에서 상술하겠음)

이러 高句麗 長壽王 63年에 있었던 百濟蓋鹵王의 被殺은 韓半島의 政治版圖를 結定짓는 契機가 된다. 百濟는 漢江流域의 角逐戰에서 물러나 그 首都를 熊津(公州)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것은 그 文化와 生産力의 취약성을 露呈하는 것이 되며 韓半島의 支配權 쟁탈戰의 前面에서 살아질 運命을 결머지게 한 不吉한 退縮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여도 지금의 忠淸, 全羅 兩道의 天惠的인 生産條件과 海上을 통한 中國과의 交通의 便이 있어 아직도 失地회복의 業을 이룰 힘이 4世紀에서 5世紀初에 걸쳐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一時나마 그 威力이 山東半島에 미쳤고 또 武王때에는 新羅와 合力하여 漢江流域의 失地를 회복한바도 있었다. 이와함께 新羅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적 攻擊力의 原動力은 바로 그 활발한 生産力에 힘 입었던바 컸던 것이다. 自然的 팽창에 의한 平和的 植民地 古代日本에도 新知識을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었던 것도 海上을 통한 中國 南朝와 의 끊임없는 交流에서 얻는 活力素가 밑바탕이 되었을 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漢江流域의 角逐戰에서 물러난 百濟의 國力은 이미 그 全盛期가 지난 老衰作用을 加重시켜 文化王國이란 이름만 남긴 채 韓半島의 主導權 쟁탈은 新羅와 高句麗의 對立으로 그 形勢는 굳어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 新羅의 社會, 經濟的 力量

新羅가 百濟, 高句麗에 비하여 後進적이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다. 이 신라의 後進성을 立証한 것이 梁의 正史인 「梁書 新羅傳」이다. 그에 의하면 신라가 百濟使臣의 案内를 받아 法興王8年 (521)에 처음으로 中國 南朝의 梁과 國交를 맺게 되었으나 「百濟의 使臣이 中國的 素養을 깊이 體得한 洗練된 行動과는 對照的으로 新羅使臣의 行動은 淸없이 素朴하며 아직 文字조차 없는 後進社會였으며 言語도 百濟의 도움을 받아 겨우 意思를 나누게 된다」고 過少評價하고 있다. 이것이 어느정도 誇張記錄되어 素朴한 行위에 대한 酷評이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高句麗나 百濟에 비하면 極東의 政治, 外交 文物交流面에 있어서 新羅는 孤立性を 띠고 있었던것은 숨길 수가 없다.

極東의 政治外交, 軍事, 經濟社會에서 初期新羅가 겪었던 이와 같은 孤立은 이 王國이 短時日內에 急成長을 이루는 길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反面에 느리기는 하지만 着實한 自力에 의한 社會와 經濟展開의 기회를 갖았던 것이다.

즉 初期의 신라가 先進社會였던 百濟와 高句麗의 猛攻앞에서 능히 버티고 그 國土를 守護할 수 있었던 經濟的인 기반은 東海의 魚, 鹽과 豊富한 農産物에 있었던 것이나 특히 蔚山을 비롯한 慶州, 永川, 陝川, 迎月, 安東등의 鉄과 砂金의 착실한 開發 또한 裨益을 수가 없다.

三國史記의 新羅本記에는 炤知王 12年 (490)에 처음으로 慶州에 市場을 세워 四方의 物貨交流를 꾀한 것으로 보아 5世紀末에 이르러

서는 地方産業의 비약적인 成長을 바탕으로 한 全國的 經濟의 流通體系가 國策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분명하다. 신라經濟의 점차적인 成長은 次代인 智證王 6年(505) 11월에 全國的인 海上, 河川交通의 整備가 이루어지는 무렵부터 실로 눈부신바 있다.

이 무렵(512)에 있었던 于山國(울릉도) 經略은 極東의 政治, 經濟, 社會에서 차단되어 있던 신라가 끊임없는 自己發展을 꾀한 經濟的 功果의 成果이다.

한편 和尓制를 통한 建建한 貴族政治의 發展 및 土俗宗教까지도 모두 體系세워 國利民福에 至上目標을 두는 境地에 까지 昇化시켜 나갔다(이것은 年號를 「開國」에서 「大昌」, 「鴻濟」, 「建福」으로 바꾼 것이 잘 立証한다).

그러나 신라가 北方의 強大國인 高句麗는 말할 것도 없고, 漢江流域의 角逐戰에서 退縮한 百濟에 까지도 正面으로 겨눌 수 있는 國力으로 까지 成長하는 것은 5世紀에 들어선 法興, 眞興의 兩王이후 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法興王 15年(528)의 佛敎 公許에 이어 同王 19年(538)의 伽羅併合 및 다음 眞興王의 漢江流域 進出과 乙未, 辰의 完全 占有은 신라의 國力을 비약적으로 強化시킨 획기적인 事件들이었다. 먼저 法興王의 伽羅併合에 이어 眞興王의 大伽那 등의 征討는 신라가 慶州, 烏山중심의 小國에서 洛東江流域을 完全히 장악한 것이며 비록 이 무렵 漢江流域에서의 退縮은 하였으나 신라에 위협적인 存在였던 그 百濟와 비로소 對決할 수 있는 形勢에 까지 뒤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眞興王代에 있었던 漢江進出은 그후의 신라의 國運을 試練과 躍進의 길로 이끌었던 계기가 된 것이다. 즉 이 漢江進

出로 신라는 名實 共히 三國鼎立의 치열한 싸움에서 고구려와 피나는 對決이 不可避하게 되어 이것은 未曾有의 試鍊이긴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南陽灣의 党頂城을 구축하여 水原부근의 海岸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仲介 없이 西海를 통하여 직접 中國大陸의 文物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던것은 신라의 成長에는 펴 다행한 일이었다.

그 成長은 완만하였으나 착실한 自己發展을 거듭하여 쌓아올린 國家發展의 成果인 것이다. 이것을 정리한것이 유명한 真興王의 巡境碑에 나타난 신라의 領土인것이나 (新羅真興王 拓境經略圖 參照) 統一이전의 신라가 이와같은 領土擴張을 이루는것은 결코 그 經濟的 기반의 힘만이 아니었다. 法興王의 佛教公許로 부터 佛教를 통한 國家觀의 宗教的 醇化는 신라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없어서 안될 또 하나의 큰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신라의 國家發展은 착실한 成長을 이룩한 生産力과 佛教로 體系化된 崇教 國家意識으로서 끈덕지게 侵攻하는 百濟와 고구려의 銳鋒을 막아내면서 統一을 志向했던 것이다.

3. 三國間의 軍事 侵略과 抗唐을 통한 統一實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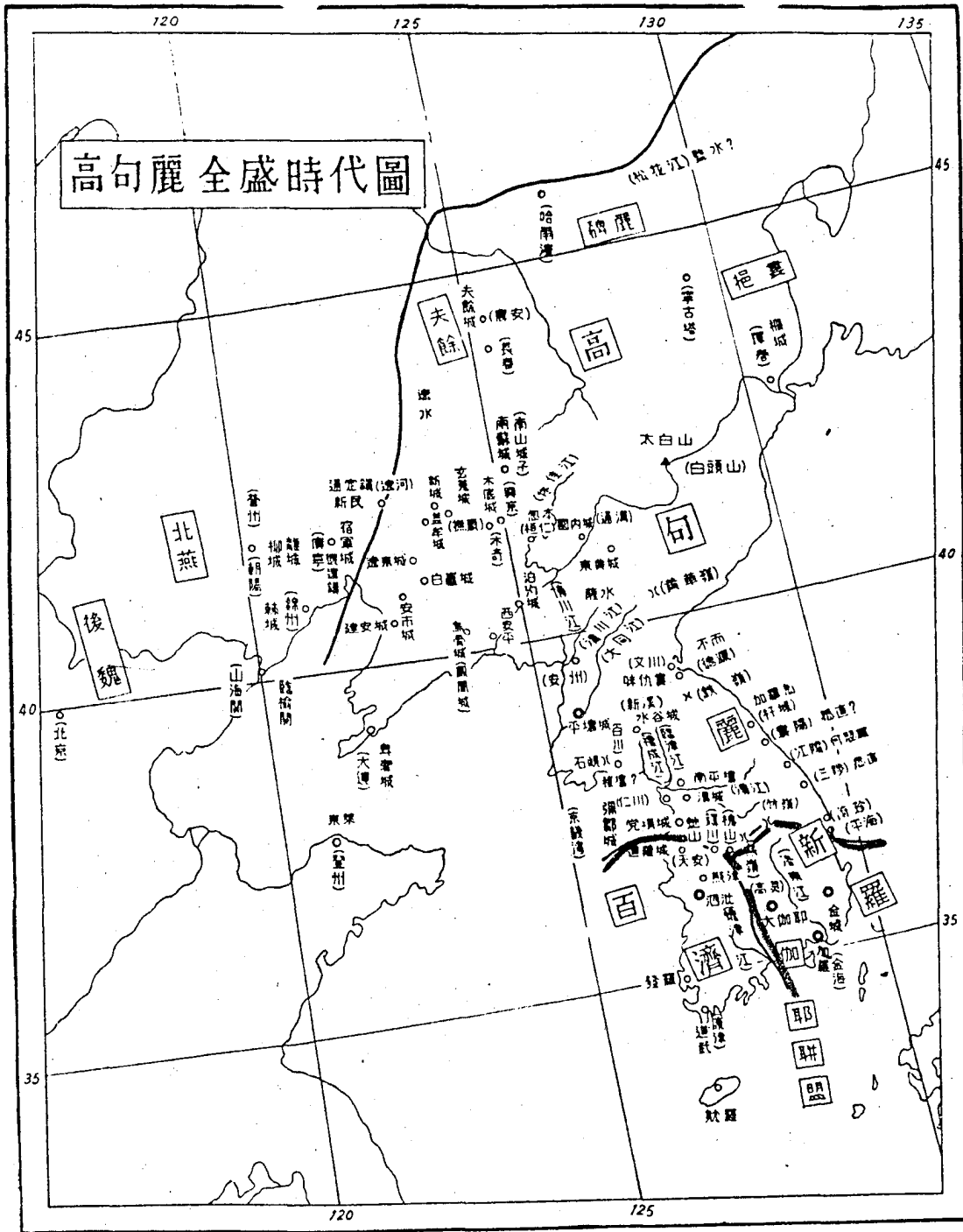
三國이 모두 착실한 經濟成長과 對內體制를 정비해 가면서 機會를 엿보아 서로 軍事侵略을 敢行하였다. 新羅에 의한 三國統一은 武力統一이었다는 것이 世人의 認識이다. 그러므로 三國間의 爭鬪過程을 살펴 본다는 것은 아주 重要한 일이다. 다만 그중에서 國運에 決定的인 影響을 끼친 몇가지의 大事件을 추려 三國間의 形勢를 살펴보고 百濟, 高句麗의 敗亡 背景과 그 原因을 細密히 追求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麗, 濟가 羅唐聯合軍에 의하여 사라진 후 三國 遺民의 回復運動과 이들이 合勢하여 唐軍을 물리치고 統一을 成就하는 時期까지를 考察의 對象으로 한다.

가. 高句麗의 大舉 南侵과 그의 南界

平壤遷都를 마친 고구려의 長壽王은 그 63年(475)에 드디어 三萬의 大兵으로써 南下하여 百濟를 侵伐하였다. 이에 앞서 長壽王은 道琳을 間諜으로 삼아 百濟에 보내어 蓋鹵王으로 하여금 豪華, 사치에 빠지도록 誘導하여 國力을 탕진케 한 후 侵攻을 敢行 하였던 것이다. 백제는 이 高句麗의 來侵으로 大打擊을 받아 나라가 亡하다시피 되었지만 王子 文周가 即位하여 도움을 熊津(公州)으로 옮기고 亂後를 收拾하게 되었다.

이러한 백제의 南遷은 곧 고구려의 南進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후 고구려의 版圖는 漢江全流域을 包含하여 그 以南으로 까지 擴大하게 되었다.



擴大된 고구려의 南界가 지금의 竹嶺, 烏嶺에까지 達하였던 것은 諸記事에 의하여 分明히 알려진 事實이며 竹嶺以南에 있어서는 지금 萊州, 奉化, 順興, 禮安등지와 嶺東에 있어서는 지금 江原道の 蔚珍, 平海는 勿論 慶北의 盈德에까지 미쳤고 嶺西에 있어서는 槐山, 鎭川, 稷山이 다 그 所有로 되었다. 當時 長壽王晩年の 고구려의 全版圖를 간단히 말하면 南은 牙山灣에서 烏嶺, 竹嶺을 지나 平海에 이르는 線으로써 百濟, 新羅와의 境界를 삼고 北은 舊 北扶餘의 地인 農安, 長春, 西北은 遼河, 東은 東海에 達하였다. 이때는 可謂 고구려의 全盛時代로서 一大帝國을 建設하였던 것이다. (高句麗 全盛時代圖 參照)

어떻든 大打擊을 받은 百濟가 漢江流域에서 錦江沿岸으로 遷都하게 된 것은 當時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事勢에 基因한 것이지만 이것은 三國間으로서의 한 劃期的인 重大事件이었다. 漢江流域이란 重要地帶가 百濟의 手中에서 고구려로 넘어간것은 百濟로서는 巨大한 損失이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限內에서는 百濟의 前日과 같은 盛時는 바랄 수 없게 됨을 뜻한다.

위와 같은 고구려의 武力에 의한 漢江流域의 장악은 두가지의 餘波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百濟의 熊津(公州) 遷都요 다른 하나는 百濟와 新羅의 接近現象이다.

百濟가 고구려에 의해 漢城을 侵奪당했으므로 遷都는 不得已하였으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熊津을 택한것은 까닭이 있다. 熊津은 北으로 車嶺山脈이 가로막고 또 그 自體에는 錦江을 띄고 있으며 東南으로는 鷄龍의 雄嶽이 보호하여 마치 舊都 漢城의 地理的 條件을 방불케 한 要塞라 할 수 있다. 그뿐만아니라 湖西, 湖南의 天惠的인 產物지대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어느정도의 國力을 기르고 회복할 수 있는 基

盤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遷都후의 백제는 內亂이 連發하다가 東城王의 即位로 부터 또다시 활발하게 되어 갔다.

나. 百濟, 新羅의 接近

이時期 羅濟의 接近은 結婚政策과 軍事同盟으로 具體化된다.

백제의 東城王은 新羅와의 結婚에 의하여 兩國의 友好를 유지하고자 5世紀初 신라에 婚姻을 請하였다. 羅王이 이에 應하여 伊滄 比智의 女를 백제에 보내었으므로 一種의 婚姻同盟이 成立되었다.

이 羅濟間의 婚姻에 대하여는 三國遺事에 실린 有名한 薯童說話가 있다. 一般的으로는 이때의 薯童이 백제 武王이라고 하지만 바로 東城王 자신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李丙燾 「薯童說話研究」 한국학보 제 1집)

한편 羅濟兩國은 北方의 高구려를 共同의 적으로 하여 相互協力下에 抗争을 계속하였다. 兩國중 一國이 高구려의 侵攻을 받으면 他一國은 軍士를 내 주었다. 例를 들면 신라, 炤知麻立于 6년에 高구려가 신라의 北邊을 侵犯하였을 때 백제 東聖王은 신라와 더불어 이를 母山城 (鎮川東쪽) 下에서 擊破하였고 羅濟 結婚의年에는 新羅將軍 實竹등이 高구려와 對決, 薩水原 (槐山, 春川)에서 抗戰하다가 後退하여 大牙城 (聞慶西)을 守備하고 있을 때 百濟는 軍 3千을 보내어 救援하였다. 또 그 다음해 高구려가 雉壤城을 包圍하였을때 신라는 백제를 도와 麗兵을 물리친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백제는 신라와의 親密을 도모하면서도 장래의 不義의 患을

방비하기 위하여 東城王 23年(501)에 신라와의 東側 境界인 炭峴(大田東 倉藏山)(文定昌씨의 異說이 있음)에 城棚을 쌓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北方세력의 南侵을 車嶺以北 또는 鳥嶺, 竹嶺以北에 그치게 한 羅濟兩國은 小康狀態를 얻는 同時에 안으로 國力을 培養해 나갔다. 이때 百濟의 國力은 어느정도 回復되었으리라고 推察된다.

그런데 百濟는 다음 聖王 16年(538)에 또 다시 國都를 熊津에서 그 西南쪽인 泗泚(지금의 扶餘邑)로 옮기고 國號를 一時 南扶餘라고 고쳤다. 이로서 漢城에서 熊津遷都후 4代 60餘年만의 再遷이었다. 아마도 前都보다 發展性이 있고, 恒久性이 있는곳을 擇하여 한번 雄大한 都市를 建設함과 同時에 그곳을 中心으로 한 새로운 抱負와 經綸을 펴 보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百濟, 新羅의 漢江流域 再奪還

泗泚遷都를 단행한 聖王은 안으로 學芸와 佛敎를 崇尚하고 밖으로 中國의 梁과 통하여 그文物을 수입하여 國內文化의 水準을 높이는 同時에 東으로 日本과 友好를 계속하여 佛敎를 傳하고 기타 專門技術을 차례로 보내어 日本文明에 기여한바도 많았다.

聖王의 中興的 抱負와 經綸은 또 한편 北伐, 北進을 計劃하여 저 漢江流域의 故土를 회복하여 名實相符한 中興의 大業을 實現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王은 29年(551) 마침내 신라 眞興王과 더불어 北伐을 敢行하여 고구려軍을 쳐물리치고 漢江流域의 故土를 회복하려 하였다. 百濟는 먼저 漢城 및 南平壤(北漢城)등 六郡의 地를 回復하고 新羅는 竹嶺以北 高峴(철원)以南 十郡의 地를 取하였다.

六郡, 十郡이란 대체로 백제는 南北漢城을 포함한 漢江下流方面을 占領하고, 신라는 漢江上流地域의 諸郡邑을 각각 奪取하였던 모양이다.

여기에서 신라의 漢江流域 占拠는 고구려에 있어서는 큰 損失이오, 발전의 絶頂에서 退縮의 길을 밟는 第一歩가 되는 것이다(고구려 滅亡 約 100年前)

強國 고구려가 왜 이때 漢江流域을 喪失했는가? 聖王(백제) 眞興王(신라) 兩王의 武威와 兩國의 實力도 대단하였겠지만은 고구려 내부에 紛亂이 있었던 점을 看過할 수가 없다. 즉 濟, 羅의 漢江流域 탈취에 앞서 5, 6年前에 고구려國內에는 安原王 末년에 王位계승을 둘러싸고 貴族사이에 큰 葛藤과 血戰이 演出되었다(자세한 것은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p. 438 ~ 9) 이는 결국 고구려의 貴族社會가 이미 氏族的 단결의 古俗을 떠나 個人의 세력伸張을 위하여 鬪爭하는 복잡한 境地로 접어들어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구려의 國內사정이 백제, 신라의 共同北進에 대하여 一大好機를 주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라. 新羅의 背信과 漢江全流域의 奪取

共同北進하여 고구려로 부터 漢江全流域을 탈취하는데 成功한 濟, 羅 三國間에는 그후 2年을 넘기지 못하여 돌연 새로운事態에 直面하게 된다. 聖王 31年(553), 신라는 기습적으로 백제의 回復한 南北漢城 등지를 탈취하여 自國의 州縣을 삼고 이를 新州라 하였다.

그동안 맺어진 兩國의 和親은 깨여지고 百濟中興의 企圖도 이로써 挫折되고 말 形勢에 놓이게 되었다. 患難에서 誼를 맺고, 利己에서 義를 저버리는 일은 古수를 통하여 흔히 보는 사실이지만 이때 신라야 말로 興隆段階에 있어 多方面에 걸쳐 進就의 氣象과 野心이 자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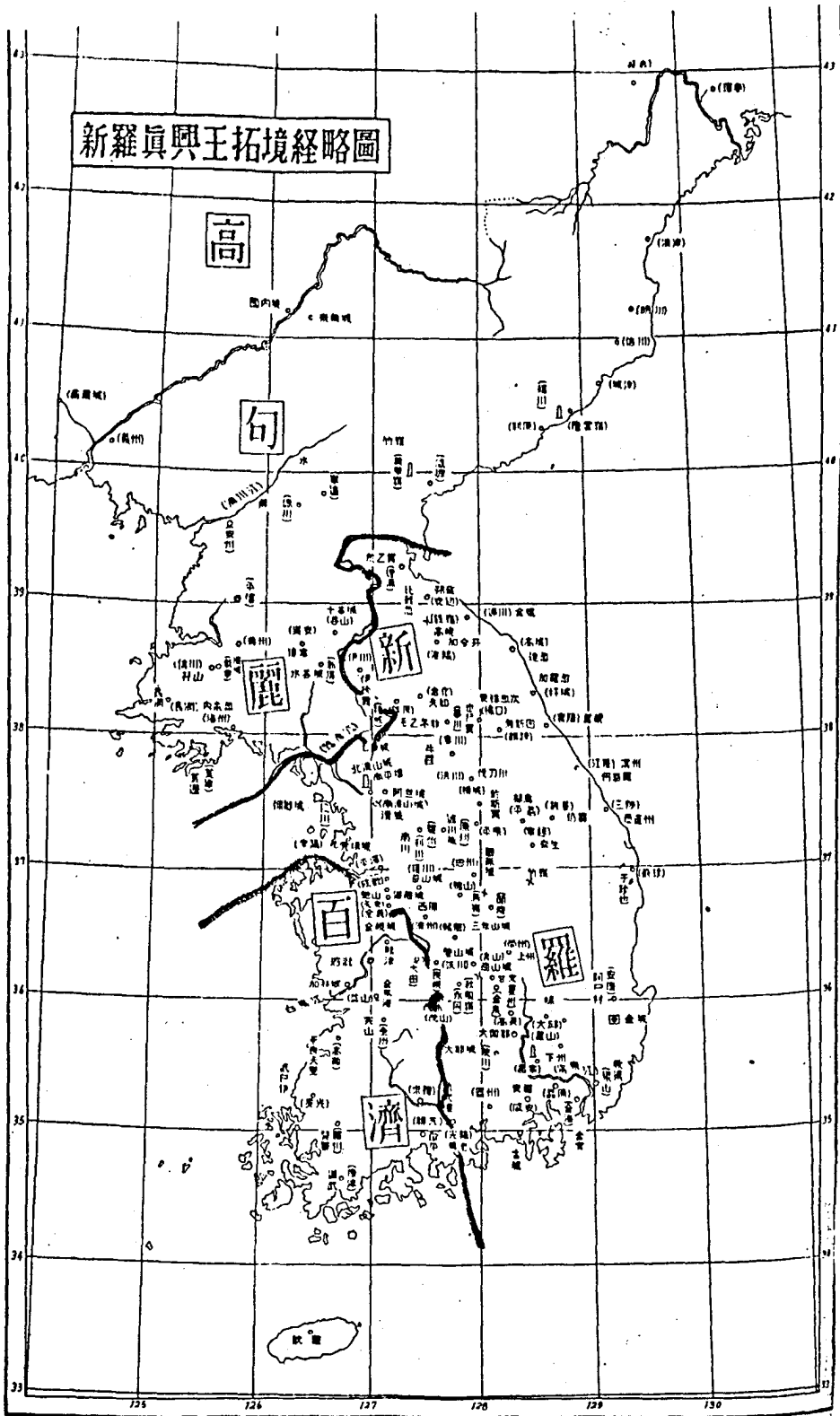
만만한 때였다. 또한 신라로서는 萬一 漢江의 下流地域을 아울러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北進의 길을 잃게되므로 이러한 背信行為를 敢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이러한 野心은 이미 共同北進 直前에도 發露된바 있으니 聖王 28年(550)에 백제가 고구려의 道薩城(天安?)을 치고 고구려는 백제의 金峴城(全義?)를 攻略하여 兩國의 兵士가 함께 기진맥진하여 疲勞해진 틈을 타서 신라는 伊滄 異斯夫로 하여금 군사를 내어 위의 두 城을 襲取한 일이 있었다. 事勢가 여기에 이르니 백제가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제의 聖王은 다음해(554)에 隣接세력과 聯合하여 신라의 管山城(지금의 沃川)을 攻略하다가 王은 沃川부근에서 신라伏兵의 奇襲을 받아 亂兵에게 殺害되고 모든 군사가 이어 大敗를 當하고 말았다. 이때의 狀況은 신라軍이 乘勝大捷하여 백제의 大臣級 4名과 卒 約3萬名을 斬하고 匹馬도 살아돌아가지 못하였다고 하니 그 數字의 正確性 與否는 次置하고라도 王의 戰死를 본 만큼 백제의 慘敗는 큰 것이었다고 하겠다.

백제는 여기에서 再起不能狀態에 빠졌고 濟, 羅兩國은 이로 부터 다시 仇讎의 관계로 突入하게 된다.

이때 신라의 北쪽에 있어서의 前後 획득한 地域은 대개 지금의 江原, 京畿 兩道에 걸친 全漢江의 南北流域으로서 西北은 臨津江沿岸에까지 미쳐 고구려와의 境界를 이루고, 西南은 대개 지금 平澤, 成歙등지로서 百濟와 接하게 되었다. 신라는 다시 一步를 내키어 東北 海岸 地帶인 咸鏡道 地方까지 깊숙히 侵入하여 556년에는 지금의 安東을 中心으로 比列忽州를 設置하게 되었다(新羅真興王 拓境經略圖 參照)

新羅眞興王拓境經略圖



마. 高句麗, 百濟二國의 新羅 侵攻

신라의 拓境事業에 있어 漢江 및 洛東江 全流域의 소유는 그 發展史上 重大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 신라의 北進과 西海岸지대의 奪取는 즉 麗, 濟 二國의 큰 원한을 산것이므로 이 두나라와의 충돌은 앞으로 그칠 사이가 없게됨은 免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신라는 이제 麗, 濟 二國으로 부터 背腹으로 敵의 匕首를 받는 격이 되었다.

金春秋의 聯合外交가 있기까지 濟, 麗 2國의 신라에 대한 攻侵狀況은 다음과 같다.

	西紀	百濟, 新羅, 高구려年代	事 件 內 容
1	577	百濟~威德王 24年 新羅~真智王 2	백제가 신라의 西 迦州郡을 侵犯하므로 신라는 伊滄世宗을 命하여 지금 善山北쪽에서 이를 격파. 內利西城(永同)을 築城.
2	579	濟~威德王 26 新羅~真智王 4	百濟가 熊峴城(大田)을 築하여 新羅의 黃澗, 永同方面의 길을 막았다.
3	602	濟~武王 3 新羅~真平王 24	百濟가 신라의 지금의 雲峰에 來攻하니 羅軍이 이를 大破, 貴山, 箒項이 戰死
4	003	高句麗~嬰陽王 14 신라~真平王 25	高구려가 신라의 北漢山城을 侵攻하므로 羅王이 親征 이를 擊退, 南川州(今利川)를 罷하고 漢山州를 設置

	西紀	百濟, 新羅, 高구려年代	事 件 內 容
5	608	麗~嬰陽王 19 羅~眞平王 30	신라가 고구려의 累侵에 못이겨 圓光을 시켜 隋煬帝에 請兵國書를보냄. 이해 고구려가 신라의 北境을 侵襲. 신라 牛島山城 喪失
6	616	濟~武王 17 羅~新平王 38	百濟가 신라의 母山城(今. 雲峰)을 侵攻
7	618	羅~眞平王 40 濟~武王 19	新羅의 軍主 辺品이 椴岑城을 회복하려 백제와 싸워 이김. 部長 奚論死亡
8	624	濟~武王 25 羅~眞平王 46	百濟兵이 新羅의 咸陽등 六城攻圍 或勝或敗
9	625	羅~眞平王 47 麗~榮留王 8	신라가 使臣을 唐에 보내어 고구려가 신라의 唐通路를 막아 往來 못한다고 呼訴
10	629	羅~眞平王 51 麗~榮留王 12	신라가 大將軍 龍春, 舒玄庾信을 보내어 고구려(百濟?)의 淸州地方을 쳐 勝利
11	633	濟~武王 34 羅~善德女王 2	百濟가 新羅의 西谷城 攻拔
12	636	濟~武王 37 羅~善德女王 5	百濟가 신라의 獨山城(槐山) 공격하다가 大敗
13	638	羅~善德女王 7 麗~榮留王 21	고구려가 신라의 北邊 積城을 侵拔

	西紀	百濟, 新羅, 高구려年代	事 件 內 容
14	642	濟~義慈王 2 羅~善德女王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百濟 義慈王이 大兵으로써 40餘城 攻取 ○고구려와 더불어 唐通路라고 党項城 攻取企圖 ○羅王이 唐太宗에게 危急告 ○이때 百濟將軍 允充이 大耶城(今陝川)을 攻陷, 都督 品積등이 戰死 品積의 妻(金春秋女)도 害를 입었다.

위 14 個項의 事件을 分析해 보면 66年間に 百濟의 신라侵攻이 7 回, 고구려의 신라侵攻이 3回, 麗, 濟合同으로의 신라侵攻이 1回, 신라의 先制공격이 2回이고, 신라는 外國에 請兵을 要請한것이 세차례나 된다.

이와 같이 濟, 麗 兩國이 신라에 대한 攻侵이 빈번하였으므로 新羅는 孤立狀態에 빠져 이에 대한 打開策으로 歷朝의 中國을 與國으로 삼아 濟, 麗 兩國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앞서 신라는 隋와 통하여 高句麗의 累侵을 호소하고 救援을 請하기로 하였으며 또 隋가 亡하고 唐이 서자 唐과의 通好를 두텁게 하여 거기에 借力하고자 하였다.

신라의 危機가 바로 이때이다. 이러한 困境에 빠진 신라에 대하여 危機의 拍車를 加한것이 上記(14) 642年의 諸事件이었다. 즉 百

濟가 신라 西邊의 40餘城을 攻取하고, 내키어 그 重鎮인 大耶城을 攻陷한 事件이라든지 또 前日의 宿敵이던 濟麗 兩國이 서로 악수하고 신라通唐의 要地인 党項城(水原南陽方面)을 取하려고 합과 같은 것을 신라로서는 거의 死活問題였다. 더욱 大耶城 戰役은 신라의 腹部에 匕首를 겨누는 것과 같았고 또 여기서는 州의 都督이오 金春秋의 사위인 品穧의 夫妻가 沒死한것도 悲극중의 비극이었다. 金春秋가 상식에 어긋나는 고구려에 들어가 請兵한것도 이때이고 계속해서 唐에 急報를 通告했으며 唐이 濟麗二國에게 신라를 치지말라는 書를 보내다가 들지않으므로 고구려 遠征軍을 이르게 安市城에서 失敗하고 回歸한것도 바로 이때다.

고구려와 唐의 충돌이 생김으로부터 백제는 신라에 대한 侵攻政策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고구려와 日本에 대하여 親密를 도모하는 同時에 羅唐의 連結을 견제하려 했다. 이때 신라의 孤立狀態는 極度에 達했던 것이다.

史家들은 이때 백제와 고구려가 망서리거나 늦추지 않고 신라를 계속 쳤더라면 後世의 韓半島의 版圖는 달라졌을것이라고 아쉬워 하기도 한다(文定昌 百濟史 p.329)

그러나 신라는 안으로 朝廷에는 王族 金春秋와 武臣 金庾臣등의 非凡한 人物들이 있을뿐 아니라 上下國民이 一致團結, 滅私奉公의 정신이 강렬하였고 밖으로 西에는 唯一한 與國인 大唐帝國이 興隆途上에 있었으므로 難局을 打開할 길이 막히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다.

바. 金春秋의 事大外交와 羅唐聯合軍에 의한 百濟의 滅亡

신라가 危機에 몰린 真德女王 2年(648) 金春秋(當時 伊滄)와 그의 아들 文王을 唐에 파견하여 友好를 도모하는 한편 百濟의 強暴을 호소하고 또 2年後에는 太平頌을 지어 王이 친히 비단에 써서 春秋와 그아들 法敏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唐高宗에게 傳하기도 하였다. 太平頌의 내용자체가 신라 특권계급의 事大思想을 드러낸 것의 하나였다. 또 唐의 衣官 着用 官制모방 法令의 制定등이 이를 立証한다.

이 무렵 真德女王이 돌아가서 그뒤는 男女間에 聖骨王族이 모두 그치었으므로 真骨王族의 一人인 金春秋가 衆望에 의하여 王位에 올랐다. 이가 곧 太宗武烈王인데 그후 이왕의 親唐政策은 더욱 拍車를 加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推測하고도 남음이 있다.

太宗武烈王이 등장한 2年後(655) 고구려는 百濟, 靺鞨과 聯合하여(海上을 통하여?) 신라北境의 30餘城을 侵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太宗은 곧 使臣을 보내어 唐에 救援을 請하였고 唐은 蘇定方을 보내어 고구려를 치게 하였으나 크게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돌아갔다. 다음해 唐은 또 薛仁貴를 보내어 고구려의 赤峰鎮을 쳤으나 또한 成功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때에 신라는 고구려, 百濟의 두 敵을 一時에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고 弱한 百濟부터 侵伐함이 順序的이요, 妥當한 戰略이라고 생각하여 太宗王은 唐에 사람을 보내어 百濟의 內情을 密告하는 同時에 百濟先伐의 戰略을 추진시켜 唐의 內諾을 얻어내고 말았다.

羅唐聯合에 의한 百濟侵伐의 戰略이 推進中이던 이때 百濟의 內情은

한마디로 형편이 없었다. 數次에 걸친 신라侵攻으로 國力이 지칠대로 지친 데다가 歷代王의 豪筆遊興의 生活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後妃, 妖女들이 政治에 干與하여 賢良한 臣下를 謀害하는등 内部的으로 부패自滅의 길을 걷고 있었다. 佐平 成忠이 義慈王의 荒淫逸樂을 諫하다가 獄中에 갇히혀 굶주려 죽은것은 王의 忠良除去의 代表的인 例가 될것이다.

이러한 백제의 內情을 신라의 太宗은 唐에 密告하고 侵伐을 모의했던 것인데 唐主 高宗은 신라와의 約束에 의해 西紀 660年 3月에 드디어 蘇定方, 劉伯英등에게 水陸軍 10萬名을 주워 出征케 하고, 신라로 하여금 이를 應援케 하였다. 蘇定方은 이해 6月에 지금의 山東省을 출발하여 黃海를 거쳐 東으로 向하고 武烈王은 利川에 이르러 太子 法敏으로 兵船 100隻을 이끌고 德積島에서 唐의 蘇定方을 맞게 하였다. 定方이 太子(法敏)와 약속하되 7月 10日로써 백제 南쪽에 이르러 羅唐軍이 聯合하여 濟都 泗泚로 向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危機에 백제의 義慈王은 크게 當황하여 群臣를 모아 戰爭의 대책을 의논하였으나 意見이 百出하여 쉽게 決定을 볼 수가 없었다. 流配人 興首에게 良策을 묻고도 이를 채택하지않은 것은 큰 失策이었다. 이때에 이미 신라軍은 炭峴을 넘어 泗泚로 向하는 길을 黃山(連山)으로 취하였고 唐軍은 白江에 들어와 그 左岸에 上陸하였다. 이 狀況下에서는 백제 勇將 階伯의 忠節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미 唐軍은 潮流를 타고 江을 거슬러올라와 신라軍과 合勢하여 都城을 向하여 進軍하였다. 백제는 최후의 防禦戰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失敗하고 羅唐軍이 泗泚城에 육박하니 義慈王은 太子 寺와 함께 公州城으로 難을 피하였다. 次子 泰가 스스로 王이 되어 城을 固守하였

으나 王子 隆과 太子의 子 文思는 항복하여 城民의 戰意는 크게 꺾
이였다. 이어 泰도 항복하고 泗泚城이 陷落되어 義慈王도 太子와 함
께 公州로 부터 來降하였다.

이리하여 百濟는 滅亡하게 되었는데 때는 義慈王 20年 西紀 660
年 7月 18日이었다. 百濟는 始祖로 부터 歷代 31王 曆年 678年
만에 杜稷을 잃게 되었다. 滅亡當時의 國勢는 五部(5方) 37郡
200城 통히 76萬戶(?)였다.

사. 高句麗의 最後

신라 泗泚城의 함락은 고구려의 前途에 커다란 暗影을 던져주는
것이였다. 唐은 백제가 降伏한 다음 해 661年 고구려를 도모하려하여
蘇定方등에게 35萬 大軍을 주어 出征을 命하고, 신라로 하여금 軍士
와 軍糧을 보급케 하였다. 蘇定方의 水路軍은 國都 평양城을 포위하
였으나 고구려軍의 굳센抵抗으로 큰 成果없이 嚴冬을 맞았다. 다음해
二月 唐의 別將 방孝泰의 軍은 평양부근 蛇水에서 淵蓋蘇文의 軍과 싸
워 全滅의 慘敗를 당하였다. 이 蛇水싸움이 唐軍에겐 致命的인 打擊
이 되어 蘇定方은 長期間의 평양城攻圍를 풀고 全軍을 回歸시켰다.
唐軍의 평양城 攻圍는 前後 6, 7個月에 걸친 隋唐이래 일찌기 보지
못하던 苛烈한 長期戰이었다. 앞서의 安市城의 攻防戰보다도 4, 5個
月이나 오래 계속되었다.

唐의 이번 遠征도 失敗에 돌아가고 말았으나 隋煬帝때와는 달리 國
内の 安定과 基業의 견고로 世界帝國으로 발전하던 때였다. 이와는
反對로 고구려는 신라 隋, 唐, 契丹등과의 오래동안의 對決과 戰鬥로

飢饉, 經濟力枯渴, 國民負擔과중 등으로 為政者에 대한 不平이 漸高할때였다. 여기에 英雄 蘇文이 死去하자 (665) 그의 子 男生, 男建兄弟간의 政權다툼으로 不和가 생기고 따라서 兩便에 黨與가 分立되어 政爭이 벌어지고있는 實情이었다. 兄弟間에 政權싸움이 일어난 다음해 男生은 두아우에게 敗하여 舊都 國內城(지금 通溝)으로 도망하여 그곳을 根拠地로 하여 그아들 獻誠을 唐에 보내어 援助를 請하였다. 唐, 羅 2國이 虎視眈眈 놀리고 있을때 고구려의 貴族社會가 이모양으로 腐敗하여 分裂를 일으켰으니 그 前途는 더욱 暗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唐은 고구려의 內亂을 好機로 하여 男生의 父子에게 慰勞와 官爵을 주는 同時에 諸將兵을 보내어 男生을 救援케하고, 이어 李世勣을 主將으로 삼아 大軍을 이끌고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重臣인 蘇文의 弟 淵爭土는 內外情勢의 不利함을 보고 12城 763戶 3,500餘人을 들여 신라에 投降하였다. 이렇게 고구려에서는 거듭거듭 內部的 離脫을 보게 되었다. 다음해 667년에 唐將 李世勣은 고구려의 西側 要塞인 奉天 東北의 新城을 攻陷하고 別將 薛仁貴등과 더불어 지금의 南山城子인 南蘇 興京 西쪽의 木底, 倉岩(?)의 3城을 攻取하고 翌年인 668년에는 北쪽의 扶餘城(農安부근)을 取하고 기타 滿洲方面의 諸城을 攻略하였다. 唐軍側의 作戰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먼저 압록강以北의 고구려 諸城鎮을 탈취한 후 主力大軍이 南下하여 平壤을 攻拔하려는 것이었으므로 唐의 主力은 압록江에 集結하여 고구려의 방비군을 격파하고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平壤城을 포위하였다. 이때 신라에서도 王弟 金仁門이 大軍을 거느리고 평양에 來會하여 唐軍과 聯合하였다. 唐羅聯合軍에게 포위 공격을 받는 平壤城의 困境은 想

像하여 남음이 있거니와 그래도 敵에 대한 분투와 苦戰이 月餘에까지 미치었다. 四方의 應援과 連結이 끊어진 외로운 평양城의 危急은 날로 더하여갔다. 首相 男建은 城門을 닫고 철저한 抗戰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王은 形勢의 궁합을 깨닫고 男産과 重臣을 시켜 白旗를 들고 唐營에 나아가 降服을 表하였다.

이때가 寶藏王 27年, 西紀 668年 9月 21日로 歷史깊은 평양城이 함락되던 고구려 最後의 恥辱日이었다. 始祖 失蒙으로 부터 28王 705年을 지났다 한다. 당시 고구려國內에는 5部 176城, 民戶 총계 약 70萬戶였다. (李丙巖 韓國史 古代 卷)

아. 百濟와 高句麗人의 復興운동

백제의 義慈王이 降服한 후 唐은 백제의 옛땅에 대한 本格的인 통치를 위하여 최고의 통치부로서 熊津都督府를 두었다.

그러나 백제의 臣下와 將軍 및 兵士들은 各地에서 百濟의 復興運動을 일으켜 羅唐軍을 상대로 치열한 戰鬪를 展開하였다. 그중에서도 黑齒常之가 3萬名の 軍士로 응거하던 任存城(大興)은 羅唐聯合軍으로서도 쉽게 攻略하지 못한 백제復興運動의 中心地가 되었다. 이에는 王族인 福信과 僧, 琛을 中心으로 응거하고 있었는데 나당군으로 부터 200餘城을 收復하여 한때는 옛서울인 泗沘城을 포위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이때 劉仁願이 거느린 萬名の 唐軍과 7千名の 신라軍에 의하여 後退한 백제군은 泗沘城 南쪽 錦城山에 주둔하여 기회를 보아가면서 여러城을 공략하니 백제人으로서 여기에 加擔하는者가 늘어나 20餘城이나 더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泗沘城內의 唐軍은 外

部の 연락이 두절되어 危機에 빠아있었는데 신라의 太宗이 親征하여 前記 20餘城의 하나로 생각되는 叡禮城을 攻陷하니 이때부터 다른城에 모였던 백제群衆에서 항복하는자가 늘어났다.

그후 백제군은 다시 錦江 東쪽 地方을 占領하고 泗沘城과 熊津方面의 唐軍 신라軍과 연락을 차단하여 孤立狀態에 빠뜨린 唐軍을 逐出하려는 計略을 세웠던것 같다. 치열한 復興鬪爭에 견디다 못한 劉仁願은 本國인 唐에 援兵을 請할 정도까지 되었다. 이번 唐에서는 孫仁師를 將으로 7千의 군사를 보내서 백제내에 주둔한 唐軍을 도우기까지 하였다. 이때 백제 復興軍사이에는 龜裂이 생겨 福信은 道琛을 죽이고 난 뒤 자기는 豐王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이후부터 부흥군의 拠点인 周留城이 함락되고 豐王은 고구려로 亡命하였으며 드디어 백제 부흥군의 최후의 거점인 任存城마저 함락하여 4年間이나 계속되던 백제의 復興運動도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동안 4年이란 歲月을 통하여 맹렬한 活動을 계속하여 一時 적의 活動 阻止 또는 혼란상태에 빠뜨리게 하였던만큼 그들의 愛國的 의분과 民族的 鬪爭意識은 매우 왕성하여 백제의 마지막 페이지를 裝飾하였다.

고구려人 역시 위에 말한 백제人의 경우처럼 의분에 불타 到處에서 國家부흥운동을 일으키는 派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人物은 劍牟岑이었다. 그는 고구려 遺民들을 모아 唐의 官吏를 죽이고 王族인 安勝을 王으로 推載하고 신라에도 670年 사람을 보내어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신라는 安勝을 지금의 益山의 금마저에 있게하고 安勝을 고구려 王으로 封하여 食糧과 物品을 供給해 주었다.

신라가 고구려의 復興운동을 적극적인 表示로 도와 준 理由는 고구려

의 遺民들로 하여금 唐의 세력을 逐出하려는 遠大한 計劃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고구려와 신라와의 相反된 행동은 羅唐間에 자연히 충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충돌은 작은것이기는 하였지만 이는 唐의 韓半島에 대한 支配욕과 이를 事前에 분쇄하려는 신라의 對策으로 빚어진 것이다. 이제 羅, 唐은 同床異夢하는 관계로 變하여 友好關係는 크게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唐은 군사를 발하여 고구려 부흥군을 칠뿐더러 신라와도 자연 크게 충돌하여 갔다. 安勝은 그후 報德王의 封爵을 받고 (文武王 14, 紀元 674) 文武王의甥姪을 아내로 맞는등 신라와의 관계를 깊게 하였으나 이에 앞서 고구려 遺民의 投降이 계속되어 감을 어찌하라! 고구려 民衆은 二分되어 一派는 羅人과 合作하여 唐人과 싸워 唐의 세력을 몰아낸 후 신라의 國民이되었고, 一派는 靺鞨(만주族)과 合流하여 오랫동안 抗唐運動을 계속하면서 渤海國을 創建하였다.

자. 羅唐戰爭과 統一實現

羅唐軍에 의해 百濟가 滅亡하고(660) 高句麗가 敗亡(668) 하였다고 해서 신라의 三國統一의 大望이 實現된것은 아니었다. 唐의 韓半島에 대한 凶計를 보면 첫째, 신라를 鷄林大都督府로 하여 신라王을 鷄林州大都督으로 任命하고 백제땅에 熊津大都督府를 設하여 直屬 管轄하였으며 둘째, 羅, 濟同格으로 會盟을 강요하고 셋째, 고구려의 옛 땅을 唐의 支配下에 포함시킬뿐 아니라 기왕의 백제와 고구려에 代身하여 이제 唐이 暗暗裏에 신라에 위협을 加하는 것이었다. 이와같

은 唐의 作態는 신라의 三國統一의 大業이 有名無實하게 될뿐아니라 더 나아가 三國을 그대로 分離, 전제시키면서 唐의 支配와 干涉을 받게되는 危機에까지 直面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凶計를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참아오던 신라는 唐에 대하여 敵愾心을 表面化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唐의 세력을 몰아내고 名實相符한 韓半島統一을 이룩하여 主人公으로서 君臨할 決心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羅唐戰爭의 必然性이 제기된다. 抗唐의 方法은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直接的인 武力鬪爭으로 唐軍과 싸워 高句麗, 百濟의 옛땅을 支配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百濟와 高句麗人들의 對唐抗爭을 도와 唐의 軍事力을 弱화시키는 方法이었다. 後者에 대하여는 前項 百濟, 高句麗의 復興運動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본 바 있다.

실제로 展開된 羅, 唐戰은 667年 1月 웅진 南쪽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勝利를 거둔 신라군은 계속해서 百濟의 加林城(林川)을 함락시키고 唐軍 5千여명을 참하였다. 그러나 唐은 戰略을 바꾸어 百濟 復興軍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한편 摠管 薛仁貴를 文武王에게 보내어 抗議하는등 外交를 통해 신라의 攻勢를 무마하려 하기도 하였다.

671年 8월에 신라는 唐軍이 주둔하고 있는 옛날의 泗沘城을 함락시키고 그곳에다 所夫里州를 설치하는 同時에 都督도 任命하였다. 그러자 唐은 高侃에게 4萬의 軍事力을 주어 侵犯케 하였으나 이역시 大敗를 면치 못하였다. 그후 唐은 또다시 李謹行을 安東鎮撫大使에 임명하여 공격해 왔지만 신라는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 麗, 濟의 옛땅을 收復하여 새 州, 郡을 設置하여 갔다.

675年 9月만도 큰 싸움이 있었고 676年에도 곳곳에서 血戰하였으

나 戰鬪는 대체로 신라軍에게 有利하였다.

羅, 唐 戰爭의 決定的인 戰鬪는 676年 11月 所夫里州의 伎伐浦(長項)에서 일어난 海戰으로서 大小 22回의 血戰끝에 唐軍 4千名을 射殺시키는 大勝을 거두었다. 이로써 신라는 制海權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이 戰鬪후 唐軍은 신라와의 戰爭을 포기한듯 677年(文武王 17) 마침내 韓半島 支配를 目的으로 설치한 安東都護部를 新城 즉 만주의 撫順方面으로 옮겨 갔다. 이는 신라의 持久的 抗戰에 屈伏하는 政策轉換이었던 것이다.

이에 戰爭은 멎고 平和를 되찾았으며 領土는 縮小되었으나 統一은 成就된 것이다. 이는 오로지 신라를 核으로 하여 百濟와 高句麗의 遺民까지 힘을 합친 굳센 自主의식의 成果였다.

4. 新羅 三國統一의 否定要素와 肯定要素

가. 歷史學者의 所論

伎伐浦(長港) 싸움은 다시 말해서 對唐抗爭을 마무리 짓는 귀중한 結果를 낳게 했고, 唐은 평양에 설치했던 安東都護部를 撫順으로 옮기어 新羅와의 충돌에 終末을 告했다. 함은 위에서 말하였다. 이리하여 新羅는 대체로 大同江과 元山灣을 굽는 線 以南의 땅을 占有하게 된 것이다. 三國을 統一하였다기 보다는 半島統一에 그치고만 것이다. 그러기에 歷史를 專攻하는 學者들의 입에서도 흔히 「만약 신라가 아니고 高句麗가 三國을 統一하였다면 우리 歷史의 발자취는 많이 달라졌을는지 모른다」는 말들이 泰然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무차별할 정도로 原因을 파 헤치는 科學으로서의 歷史學에서는 이와 같은 假定法을 使用한 이른바 偶然史觀에 承服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歷史家의 입에서 조차 高句麗의 滅亡에 대하여는 同情的이고 아쉬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國史의 體系를 滿洲 南部의 全域에서 일어난 諸王權의 興亡까지 포함시킨다면 이 지역을 喪失하게된 高句麗의 滅亡은 곧 民族發展의 退縮을 뜻하게 되는 까닭이다.

몇분 歷史學者들의 신라 三國統一과 高句麗 滅亡의 意義에 대한 所見을 引用하여 보고자 한다.

李丙燾博士는 高句麗의 滅亡이 우리 國史上에 끼친 影響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記述하고 있다. 「高句麗의 滅亡이 우리國史上에 어떠한 不幸을 가져왔는가는 以後 歷史를 통하여 잘 알 것이다. 未久의 渤海의 興起로 因하여 滿洲의 東部와 北部는 前과 같이 回復하게 되었

지만 중요한 西南部分만은 唐의 支配下에 들어 갔다. 統一신라와 渤海와는 전혀 沒交渉狀態에 있었다. 그래도 渤海의 存在는 半島國家에 대한 防波堤로서의 意義를 가졌던 것이다. 渤海가 契丹에게 滅亡된 후의 滿洲는 전혀 外民族의 起伏興替에 맡겨져 버렸다. 高麗와 朝鮮朝에 와서 우리의 領土가 多少 伸張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半島國家의 테두리에서 더 進出하지 못하였고, 外國의 侵略과 支配를 종종 받는 不利한 地位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날 까지도 우리가 弱少國民으로서의 悲哀과 苦惱를 느끼고 있는 까닭이 아니냐, 만일 高句麗가 反對로 百濟와 新羅를 併合하여 글자 그대로 三國을 統一하였더라면 우리의 國史는 혹시 反對의 코스를 밟아 갔을지도 모르겠다」(同氏 韓國史 古代편)

北韓 史學家들의 見解는 더욱 그 意義에 대하여 否定的인 면이 많다. 「신라에 의한 統一 또는 신라에 의한 統合이라 하지만 우리들은 60年代이후 부터는 그렇게 表現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위 신라에 의한 統一이후의 領域은 大同江以南으로 三國時代의 高句麗의 領土를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高句麗의 南部에 있었던 一部の 地域만을 統合한 結果가 된다. 그리고 北方에서는 7世紀末에 高句麗를 滅亡한 渤海가 建國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나라의 統一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完全히 統一國家로 볼 수 있는것은 高麗가 시초가 된다」고 하면서 신라統一의 意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신라 三國統一의 의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以前과 같은 評價는 할 수가 없다. 오히려 肯定的인 면보다는 否定的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唐의 侵略軍에 의하여 高句麗, 百濟의 文化財가 많이 파괴 喪失되고 朝鮮의 民族文化發展에 커다란 支障을 주었기 때문

이다. 朝鮮人民의 生命, 財産도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보여진다. 그
러므로 우리 民族史의 發展上 크게 의의를 진었다고 말할 수 없다.
肯定的인 面이 있다면 現在 우리는 7世紀末 이후의 신라를 <後期新
羅>라 稱하는데 후기신라의 經濟, 文化의 發展上 위 三國의 특히 고
구려와 백제의 經濟와 文化가 적지않은 기여를 하였다는 정도이다」
(高句麗의 故地를 たづねて 東北大学 訪朝訪中國編 1981, 東京 寧樂
社刊)

一般的으로는 國史教育에서 우리는 신라의 金春秋야말로 三國統一의 民
族的 英雄으로 指稱되고 있다. 그러나 史家에 따라서는 金春秋가 우
리의 歷史를 誤導하였다고 酷評을 가하기도 한다.

백제 義慈王이 그 2年(642) 大耶城을 攻陷한 것은(신라의 危機)
8月이었고, 淵蓋蘇文이 革命을 이끈것은 그해 10月이었는데 金春秋
가 고구려를 訪問한 것은 그무렵이었다. 이때의 狀況을 文定昌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金春秋가 祖國의 危急을 救하기 위하여 고구려에 들어가 請兵한것
까지는 大義 當當했다. 그러한 春秋는 蓋蘇文으로 부터 뜻하지 아니
한 試鍊的인 提案을 받았으니 즉 「三國이 同族相殘을 止揚하고 大同
團結하여 外賊과 對處하자」는 것이다<三國이 同盟하여 唐과 對決하자>
한 이 提案은 우리民族史上 처음 듣는 音信이오 三國이 기어코 達成
해야할 理想的 歷史的인 命題요 道標였던 것이다. 하물며 이때의 情
勢는 金春秋만 同意하면 그것을 容易하게 達成할 수 있는 與件이 구
비되어 있었다. 民族의 앞날이 어두웠던지 春秋의 그뜻이 작았음인지
그는 干載一遇의 이 民族의 弘福을 拒否해 버렸다. 金春秋는 地만 알
고 天을 몰랐다. 그는 歷史의 空間에 선 指導者가 취해야 할 바 時

의 義와 責務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것 같다. 韓半島의 東南구석에 위치하여 고구려의 西北方族에 대한 방패役割의 그늘아래서 倭만을 對敵해 온 신라로서는 漢族의 食指와 그 의욕이 어떤 것인가를 몰랐던 것 같다>) (文定昌, 百濟史, p. 307)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大多數의 學者들은 신라의 三國統一에 대하여 커다란 意義를 부여하고 있다. 고구려에 의한 三國統一이 되지 못하였음을 못내 아쉬워 한 李丙燾博士도 신라의 半島統一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統一事業이라도 達成하여 半島의 主人公이 되었다는 것은 도리어 奇蹟的이고 警異的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幸이건 不幸이건 韓半島內의 民衆이 비로소 한 政府 한 法俗, 한 地域內에 뭉치어 單一國民으로서의 文化를 가지고 오늘에 이른것은 실로 이 統一에 기초를 가졌던 것이다. 이런 點으로 보아 신라의 半島統一은 우리 歷史上에 있어 큰 意義를 갖고, 또 큰時期를 劃한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李丙燾, 韓國史 古代編, p. 625)

어쨌든 신라가 大同江과 元山灣을 굽는 線以南에서 統一을 마무리 지었다 하더라도 唐의 侵略을 武力으로 물리치고 獨立을 爭取하였다는 사실은 커다란 意義를 지니는 것이다. 當時 唐이 百濟와 고구려를 滅亡시키고 신라까지를 征服하여 滿洲와 半島의 全部를 그들의 直屬領土로 編入시키려는 野心은 漢四郡의 設置 못지않은 民族的 危機였던 것이다. 萬一 그렇게 되어 唐의 政治的 支配 밑에서 社會와 文化의 正常的인 發展이 이루어 질 수 없을것임을 明白한 일이다. 그러므로 신라는 唐의 侵略에 抗拒하고 政治的 獨立을 지키는데 成功하였다. 이것이 곧 統一신라의 社會와 文化가 발전하는 基礎가 되었고, 나아가서 韓國民族의 獨自인 歷史發展의 터전이 되었다.

물론 신라에 의한 三國統一은 不完全한 것이었다. 過去 三國의 活動舞臺에 屬하던 滿洲의 넓은 地域이 그 領域에서 벗어났고, 거기에는 고구려의 遺民들이 渤海를 建國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라는 누구나 異口同聲으로 말하는 바와 같이 半島를 統一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歷史的 的의를 지니는 것은 무엇보다도 獨立된 기반위에서 韓國民族의 形成을 위한 土臺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統一신라가 渤海와 함께 南北國의 형세를 이루고 있었고, 두 나라는 서로 날카로히 對立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統一신라의 領土와 住民 및 그들이 이루어 놓은 社會와 文化는 韓國史의 主流를 形成하기에 이를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뭐니 뭐니 해도 신라의 三國統一은 커다란 民族史的 意義를 가진다고 보겠다.

여기에서 위 歷史者들의 所論과 本稿 (3)의 三國間 爭鬪過程을 綜合하여 신라 三國統一을 오늘의 視角에서 바라보면서 그 意義에 대하여 否定要素와 肯定要素로 区分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가 한다.

나. 否定要素

첫째, 무엇보다도 領土가 엄청나게 縮小되었다는 점이다. 신라統一으로 因하여 이民族이 弱小化한 度는 領域에 있어서는 $\frac{1}{5}$ 이요, 人口에 있어서는 $\frac{1}{2}$ 이라고 한다.

「三國統一아래 喪失된 民族의 領域」

南北滿洲	847,000 平方 km
遼寧省	68,000 "
遼北省	22,000 "

松江省	85,000 平方 km
嫩江省	77,000 "
安東省	63,000 "
吉林省	95,000 "
合江省	129,000 "
黑龍江省	208,000 " (위 自由中國 中等 교과서)

保有面積 220,000 平方 km ~ 韓半島全城 (文定昌, 百濟史 所収, p.309)

둘째, 신라의 三國統一은 平和統一이 아니고 武力統一이었다는 비난이다. 事勢야 어찌되었던 戰爭의 慘禍는 비참한 것이다. 고구려 最後의 날에 다음과 같은 記事가 있다. 「唐, 羅軍은 城(고구려 평양城)에 올라 門樓와 羅閣에 불을 질러 사나운 불꽃이 四處에 일어났다. 華麗했던 宮殿巨室과 歷代의 宝物典籍은 모두 이때 敵兵에 의하여 灰土化되고 뿐만아니라 歷代의 王陵까지도 唐軍에게 發掘당하여 一切의 副葬品이 그들의 戰掠品으로 化하였던 것이다. 慘憺한 光景에 싸인……」(李丙燾 韓國史, 古代편, p.524)

百濟 최후를 장식한 階伯장군이 決死隊 5千을 거느리고 出發함에 앞서 國家의 危機와 羅唐軍의 行패를 豫見하고 「살아서 奴婢가 되느니 보다는 죽음만 같지 못하다」하여 自己의 妻子를 모두 죽이고 出戰하였다 한다(前掲 韓國史 古代편 p.511) 落花岩에서의 3千宮女가 白馬江에 몸을 던졌던 것은 또 얼마나 悲慘한 이야기인가

正史는 아니지만 李光洙作 「嘉實」은 統一期의 신라, 고구려의 戰爭 社會를 背景으로한 小説이다. 作中에 나오는 몇가지의 對話에서 當時 戰爭의 참상을 알아 본다.

「來日 용춘장군, 유신장군이 우리 들을 거느리고 낭비城을 간다고 가

서 戰勝해 가지고 오라고 잔치하는 것이라네」

이는 징발된 兵卒들이 휘황찬란하게 불이 켜진 王宮을 바라보면서 주고 받는 對話다. 金春秋의 아버지 龍春과 金庾信이 낭비성 攻略에 나서려는 前夜인 것 같다.

「여러 사람 불렀다는데요 제 길 하루나 便할 날이 있어야지, 젊은사람은 다 죽고, 이제는 늙은이까지 내다 죽이려나, 언제나 싸움을 아니하고 사는 世上이 온담」戰場에 징발되는 老人의 푸념이 아닌가

「나도 스므살에 군사에 뽑혀서 서른살에야 집에 돌아오니 父母가 돌아가시고…… 老人은 억지로 울음을 참는다」

이는 陣中の 兵舍에서 兵卒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의 한토막이다(李光洙作 「嘉實」 1923.2. 韓國短篇文學全集1卷 所収)

셋째, 後世사람들은 신라의 三國統一은 自主的이 아니고 唐軍을 끌어 드려 백제, 고구려를 滅亡시킨 事大主義的이라는 酷評을 서슴치 않는다. 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衣官, 服制의 襲用, 太平頌의 進上, 數次에 걸친 唐軍의 救援要請등에 관해서는 수차 言及한 바 있다.

事大主義는 무엇을 물고왔는가 「大同江 以北地域의 失地」라는 엄청난 損失을 招來케 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征伐을 目的으로 唐에 救援兵을 要請할적에 이미 太宗武烈王과 唐太宗사이에는 大同江 以北地域을 唐에게 讓渡한다는 言約이 成立되었던것 같다. 「…… 따라서 신라는 前日 武烈王과 唐太宗間에 약속한 바 있는 大同江 以南地域을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一旦 對唐抗戰은 絶望지었다」(李瑄根 大韓國史, p. 326) 이래서 신라로 하여금 「唐나라 개」라는 表現이 나오게 된다(前掲 李光洙作 「嘉實」)

신라가 事大主義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더욱 예

민하다. 요즘 「베스트 셀러」로 가장 많은 讀者層을 가지고 있는 어느 小說의 한 句節을 소개한다.

「중국 有史 이래의 최강국 唐나라, 그것도 최성기 貞觀의 治世에 唐太宗과 이 民族의 存亡을 걸어놓고 한 판의 勝負를 벌이고 있을 때 凶暴한 황소의 두 뿔을 잡고, 揮身의 힘을 다해 싸우느라 추호도 여유가 없을 때 김유신, 김춘추라는 쥐같은 감보가 巨人的 발 뒤꿈치 아킬레스腱을 사생결단을 하고 물어 버린 거죠, 그날 이 民族은 끝난 거죠, 그날 2千年을 連綿히 되풀이 해 온 굴욕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날 이후 이땅에서는 巨人들이 항상 쥐새끼들한테 물려 죽은 불멸의 傳統이 생긴 거죠, 그날부터 外國놈들한테는 적소리도 못하면서 同胞들끼리는 사생결단 죽고 죽이는 처절한 風土가 생긴 거죠, 어떻게 신라가 三國統一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의 全 國土를 90% 이상을 倭놈들에게 진상해 드리고…………」(李彰雨作 「옛날옛날 한옛날」 pp. 148-9)

다. 肯定要素

신라의 三國統一의 意義가 바로 肯定要素가 된다. 이에 대하여는 앞에서 累說한바 있기 때문에 重複이 되겠지만 그 첫째는 民族의 統一이라는 民族史的 意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血緣과 言語를 같이 한 單一民族이 四方으로 흐터져 1千年 가까이 對立과 不信과 戰爭을 일삼아 오다가 하나의 政府 같은 法俗, 同一地域속에서 平和를 되찾아 生을 營為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統一新羅期の 저 찬란한 民

族文化를 꽃피우게 하는 기틀이 되기도 한다.

事物에는 반드시 長點과 短點을 아울러 지니기 마련이다. 한가지의 長點이 아홉가지의 短點을 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라統一에서 이 民族의 統合이라는 長點하나가 모든 短點을 덮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唐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滅한후 신라 까지를 征服하여 滿洲와 韓半島의 全部를 그들의 直屬領土로 편입시키려는 野心을 분쇄하였다는데 신라統一의 커다란 肯定要素가 있다. 唐高宗은 백제를 討伐하러 나서는 蘇定方에게 「백제를 討滅한 餘勢로 신라를 占領하라」고 指令하였음이 분명하다. (定方 獻偽, 天子慰藉之曰, 何不因而伐新羅—三國史記 金庾信傳중)

蘇定方은 백제를 討滅한 직후에 신라侵伐을 획책했다. 크게 놀란 金春秋가 自國의 兵士들에게 백제人의 옷을 입혀 백제復興軍에 投入하여 唐軍과 싸우게 하므로써 그 虎口를 모면했다. (前掲 文定昌, 百濟史 p. 309) 만약 唐의 凶計대로 進行되었더라면 이 民族에게는 一大危機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니 신라의 三國統一의 意義는 여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5. 新羅의 三國統一이 南北韓 平和統一에 주는 教訓

위에서 三國間의 國勢를 살펴보고 또 三國間의 争鬪過程을 考察한 것은 결국 우리가 오늘 達成하려는 統一에 이바지 될 수 있는 教訓을 導出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선 첫째 新羅 勝利의 原動力에서 취할바를 찾아야 하고, 둘째는 大國이었던 高句麗와 文化王國인 百濟의 滅亡에서도 教訓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 新羅의 勝利가 주는 教訓

韓半島의 東南구석에 偏在하여 立地조건이나 그밖의 모든 興件이 매우 不利하고도 困難했던 신라가 마침내는 統一의 勝利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도대체 그 歷史的 要因과 原動力이 어디에서 造成되고 發揚되었던 것인가?

① 統一에의 굳센 意志와 使命意識에의 재빠른 定立을 들어야 할 것이다. 新羅人들은 그때 그때의 勝敗에 구애됨이 없이 定立된 理念 아래 온國民이 合心前進의 끈질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意志表現의 첫째는 「新羅」라는 國號에서 찾을 수 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 22代 智証王 當年の 기록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四年 冬十月에 群臣이 上言하기를 始祖 創業以來 國名이 未定하여 或稱 「斯羅」라 하고 或稱 「斯盧」하며 或言 「新羅」인바 臣等은 써 하되 「新」字는 德業日新이오, 「羅」字는 網羅四方의 義니 則 그

를 國號로 삼음이 마땅할 것이요……」라 進言하니 王은 「從之라」고 하였다 한다.

이상의 內容을 좀더 쉽게 풀이 해 본다면 德業 즉 國家의 大業을 날로 새롭게 하여 散之四方 흩어진 民族을 「網羅統一해보자」는 뜻으로 「新羅」 두 글자의 國號자체가 이미 民族의 統一을 위한 國家的인 意志, 使命意識을 가장 簡明하게 表示하고, 또 이를 基本國策으로 定立시킨 것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新羅」라는 두 글자가 뜻하는 그대로 智証王은 이미 낡은 制度를 改革하여 나라의 面目과 體制를 새롭게 하는데 힘을 기우려 多方面으로 三國統一의 基盤을 造成하여 나갔다. 智証王 4年은 西紀 503年에 해당한다. 三國統一 達成의 約 170餘年前에 이미 國策으로 統一志向의 意志를 定立했던 것이다.

② 둘째는 皇龍寺의 九層塔에 담겨진 新羅人들의 統一念願이다. 皇龍寺는 지금의 慶州 九皇里에 세워졌는데 現在로는 그 절 터 위에 커다란 주춧돌만이 여러個 남아있을 뿐이다. 이 절은 신라의 高僧 慈藏의 建議에 의해서 真興王 27年 西紀 566年에 14年間에 걸쳐 建立되었다고 한다.

慈藏은 唐나라에서 歸國하자 善德王께 아홉層의 높은 탑을 皇龍寺에 세울 것을 建議했다. 앞서 真興王이 宮을 짓고자 工事중 地中에서 黃金빛의 龍이 나타났으므로 절(寺)로 바꾸어 지었다고 傳해오는 由緒 깊은 皇龍寺였다. 이 皇龍寺에 높은 탑을 우뚝 세워서 그안에 唐에서 가지고 온 佛舍利를 나누워 모셔놓고 新羅주위에 있는 아홉나라가 스스로 저마다 新羅안으로 하나로 뭉쳐지기를 佛像께 빌자는 것이

었다(그아홉나라를 塔의 아홉層에 각각 이름붙여서 제 1층은 日本, 제 2층은 中華, 제 3층은 吳越, 제 4층은 托羅, 제 5층은 貂遊, 제 6층은 靺鞨, 제 7층은 丹國, 제 8층은 女狝, 제 9층은 穢貂이라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이름은 後世사람들에 의하여 붙여진 것이고, 當初에는 다만 三國이라는 3數에 의해서 3, 3은 9(3×3=9)에서 나온 9數일 것이다(三國의 高僧 8人~護國佛敎의 理念~著者 安啓賢) 그것은 또 신라를 中心으로 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다같이 하나로 뭉치기를 祈願하는 것이기도 했다. 신라興亡의 절박한 현실의 갈림길에서서 慈藏은 온 國民이 이 國防塔을 中心으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三國統一에 매진하여 줄 것을 부르짖으려는 것이었다.

九層塔이 建立되는 過程에는 많은 奇談이 서려 있거니와 徐羅伐 어느 곳에서도 바라 볼 수 있는 높은 塔이 善德王 14年 西紀 645年 에 落成되었고 이塔이 이룩되자 慈藏은 八關會를 베풀고 이어서 女王에게 請하여 特赦令을 내리게 하고 많은 罪人을 釈放시켜 民心을 쇄신시켰다고 한다.

護國佛敎의 理念과 함께 新羅人들의 統一에의 처절한 念願을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統一意志의 세번째로 꼽아야 할 것은 신라花郎들의 國家觀의 확고한 定立이다. 그들은 「上為國家하고, 下為知己者死라」고 하는 信念을 간직하고 勇敢하게 실천해 나갔다. 위로는 國家를, 아래로는 同志를 위해서만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花郎들의 國家觀이요, 人生觀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荷非其義면 雖千金之利라도 不動心이라」는 氣質을 뽑냈다. 大義와 名分에 어긋나면 千萬金을 주어도 마음을 굽히다던가 誘惑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의 價値觀이자 日常生活의 信條이기도 하였다(이에 該當하는 좋은 例로는 <斯多含>의 이야기가 있다. 前掲 李垣根 大韓國史 1卷 p.234)

그러했기에 그들은 國家를 위하여 큰 功을 세우고도 티끌만한 報酬와 反對給付도 바라지 아니하였다. 大我인 國家를 위해서 小我인 나의 生命을 鴻毛처럼 내던질 수도 있었다. 그어느때 어디서나 花郎들의 價値觀과 死生觀은 大我이면서 大義인 國家, 民族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지극히 崇高한 바탕위에서 全國의 靑少年들을 一系不亂하게 組織, 訓練시켜 나갔다.

花郎과 郎徒들이 集團으로 修養하고, 訓練할 때에는 「道義로 相曆하고, 歌樂으로 相悅한다」하였다. 딱딱한 形式에 흐르지 않고 멋진 人間教育을 實施한 것이었다. 나아가 그들은 「山水間에 娛遊하되, 無遠不至」라고 하였으니 내고장의 名山과 大川을 기꺼이 답사하고 探訪하되 지리의 遠近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愛國心の 밑바탕이 되는 鄉土愛, 國土愛의 정신은 키워진 것이다. 말로만 장려한 것이 아니라 實踐을 통해서 한것이었고 強要가 아니라 自進自行토록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花郎의 確固不動한 理念과 鐵의 組織은 신라에 의한 三國統一의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德業一新하여 網羅四方하겠다는 「國號」와 신라속에 三國을 統一하겠다는 「國防塔」으로서의 九層塔의 建立, 花郎의 「國家觀 價値觀」등은 백제, 고구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新羅人들의 統一意志의 代表的인 것이었다.

2) 護國佛敎와 國民思想

麗, 濟二國에 比하여 後進的 社會였던 신라가 兩大國의 政治, 軍事面의 重圧에도 능히 버티며 統一을 爭取할 수 있었던 精神的 기반은 佛敎政策에 있었다고 본다. 法興王 15年(528)의 佛敎公許부터 佛敎를 통한 國家觀의 宗教的 醇化는 신라의 비약적 發展과 統一成就에 또 하나의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原始的 雜色信仰에 휘말려서 矧피를 못잡고 迷信속에서 배회하던 신라의 國民思想이 비로소 高次元의 宗教를 찾아 信仰을 같이 하고 共同의 정신적 安息處를 찾게된 뒤에 이어 「圓融會通으로 會三歸一하자」(모나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서로가 모여서 意思를 소통하므로써 散之四方한 겨레가 하나로 돌아가자)는 基本方向까지 設定할 수 있게 되었다.

新羅佛敎의 特性을 든다면 麗, 濟二國은 신라보다 더 일찍이 佛敎가 들어 왔으나 신라와는 그 受容態度가 달랐다. 즉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王室이나 支配層을 막론하고 外來宗教인 佛敎를 受容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異議도 없이 쉽게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強烈的 갈등이 일어나 論議가 紛紛하였다. 결국 한사람의 죽음의 奇蹟을 보고 나서야 佛敎를 悔改하는 마음으로 받아 들였다. 즉 異次頓의 殉敎後 눈물을 흘리며 悔改하면서 佛像앞에 엎드려 國王과 大臣과 將軍과 青年兵士가 하나의 求心點 즉 佛心을 키워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比하여 고구려의 佛敎는 思想的 研究나 진지한 信仰보다는 形式的인 宗教生活의 導入에 그친 感이 농후하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얼마후 最高實力者 淵蓋蘇文의 뜻에 따라 道敎로 交替되고, 佛敎가 더 이상 받을 부칠 수 없게 되자 高僧들은 신라로, 백제로 혹은 日本으로

로 亡命하는 길을 떠났다.

백제에서의 佛敎는 어떻하였는가, 백제의 民衆은 藝術的 審美性을 지닌 百姓들이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는 佛敎가 한편으로는 고구려적인 形式主義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思想的 探求나 倫理的 實踐보다는 藝術的 側面에서 重點的으로 展開시켜 나간 느낌이 든다.

신라佛敎는 本質的으로 政治에 超然하였던 百濟佛敎와는 相異한 것이며 이러한 佛敎의 公許는 絶對主義的인 王權의 樹立이 前提가 되어야 이루어질 性質의 것이었다. 그래서 신라佛敎는 國家守護를 위한 最高의 理念的인 바탕을 이루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佛敎의 彼岸思想과 輪廻思想에서 본다면 「價値있는 죽음이 바로 國家를 위한 죽음이라는 思惟가」 신라人的 生活信條로 作用하였던 것이다.

둘째 圓光과 花郎 五戒정신, 신라에서 佛敎의 公許이래 圓光, 慈藏, 元曉등 탁월한 精神的 指導者들이 輩出되었다. 그들에 의한 佛敎정신의 普及은 신라國民全體의 精神적무장을 강화해 주는 結果를 가졌다. 그 行跡에서 들어나는 것은 신라人들이 단순히 傳達된 지식에 滿足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自己自身이 自覺的으로 體證을 하기를 願하는 끈질긴 求道的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花郎精神으로 表現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花郎은 佛敎의 產物은 아니다. 그러나 花郎精神의 形成에는 佛敎가 크게 役割하였음을 누구도 否認못할 것이다. 花郎은 바로 自覺的 求道者들이었던 것이다.

圓光法師가 花郎인 貴山과 笥項에게 世俗五戒를 주었다는 것은 有名한 이야기다. 「佛敎에는 本來 菩薩戒라는 것이 있으나 그것을 그대로 다 實踐한다는 것은 젊은 花郎에게는 不適當하므로 새로 그들에게

맞는 五戒를 지어 준다」는 說明을 붙였다. 그러한 그 世俗五戒를 佛敎의 菩薩戒와 無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菩薩戒이다(李箕永 所論)

元來 菩薩이란 大衆佛敎의 人間理想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宇宙와 世留와 人生, 國家와 家庭과 나, 그 모든것에 一貫되는 永遠한 真理, 너없는 내가 있을 수 없고, 나없는 내가 있을수 없는 聯關關係(緣起)를 깨닫고 그 聯關關係를 忠實하고 원만하게 해 가는자가 바로 「菩薩」이다. 그것을 佛敎의 術語로는 「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고 한다(위로는 菩提 즉 完全한 理解와 通達을 成就하고 밑으로는 衆生을 教化한다) 즉 自己完成을 現實參與를 통해서 實踐하려는 자가 菩薩이다. 現實參與란 단순히 現實을 傍觀하는 태도가 아니다. 언제나 自己를 내세우지 않고 全體를 살리려고 自己를 희생하는 가운데서 自己가 진정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자가 菩薩이다. 僧侶건 在家信者건 그 修道를 完成시켜 佛道를 통한 理想世界를 現出시킬려면 반드시 이 菩薩戒를 實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元曉의 信念이기도 하였다(菩薩戒에는 十重戒와 四十八輕戒가 있다는 것이 徑典의 列挙方式이다. 十重戒- 1. 殺生 2. 劫盜 3. 無慈行欲 4. 妄語 5. 酷酒 6. 談他過失 7. 自讚毀他 8. 慳生毀辱 9. 瞋不毀謝 10. 毀謗三寶)(四十八戒는 十重戒를 다시 細分하여 구체적인 잘못을 警戒하는 條目들이라 한다)

위에 列挙한 十重戒는 모두 사람과 사람 모든 衆生들 사이의 關係를 圓滿하게 하는 要諦를 말한 것이다. 圓光法師가 花郎을(貴山 箒項) 맞이 했을때 그의 뇌리에는 祖國 신라의 형편이 떠올라 있었을 것이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三國이 하나의 民族으로서 統一되어

야 할 重大한 課題가 눈앞에 있음을 想起하면서 바로 그것을 達成해
야 할 젊은이들임을 認識했던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들과름대로의 卑
近한 具體的인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것이 바로 저 有名한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有信, 臨戰無退, 殺生有
擇의 五戒精神이다.

3) 新羅 指導者들의 力量: 歷史의 發展過程에 있어 劃期的인 大業을
이룩하는데는 그 일을 主宰하는 指導者의 人物問題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 그時代의 契機性(與件)問題도 중요하지만 人物이 중요하다는 것
은 「時代란 것도 上位에 있는 사람이 만든다」(栗谷先生이 宣朝에게
進言한 말)는 先賢의 말에서 보듯이 三國統一 成就에 있어서 신라의
指導者의 力量如何는 빼놓을 수 없는 考察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統一期 신라의 指導계급을 代表하는 重要人物로는 太宗 武烈
王 金春秋와 그의 아들 法敏 文武王, 그리고 金庾信將軍을 드는데 누
구도 異議가 없을 것이다.

金春秋: 春秋는 신라 第 29代 太宗 武烈王으로서 真智王子 伊滄 龍春
의 아들이다. 그母 天明夫人은 真平王의 딸이고, 王妣 文明王后는 舊
加羅 王族인 金庾信의 누이였다.

일찌기 善德, 真德의 두 女王을 섬겨 활약하다가 真德女王 死去후
有力한 후보자로 추대되어 真骨出身으로는 처음 王位에 올라 在位 8
년을 보냈다. 그의 體貌, 風采가 英偉하고 識見이 높고, 言辯에 能하
며 어려서 부터 濟世의 뜻이 있었다 한다. 그러나 大王은 王位에 오
름을 세번이나 辭讓한 三讓之德을 갖춘 聖君이라고 한다(三國史記 新
羅本記, 姜舞鶴著 「金春秋의 思想과 政治戰略」 p.62)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라 56代의 君王, 고구려 28代, 백제 31代 모두 115名의 君王중에서 王位를 세 번이나 辭讓했다는 例는 없다. 偉大한 業績을 남긴 君王은 허다했으나 거의가 王位를 놓고 겨루고 다투는 英雄들의 性品을 지녔다는 점에서 볼 때 春秋의 三讓之德을 높이 評價된다. 天下의 權座인 王位는 예나 이제나 그만큼 嚴肅하고 두려움을 갖는것이 오른 태도이기 때문이다.

金春秋의 활약은 外交面에서 화려했다. 나라 안의 軍事는 모두 金庾信장군에게 맡기고 自身은 어떠한 危險도 무릅쓰고 東方의 列國을 巡訪하여 大義名分을 說得했다. 그는 善德女王 11年(642) 敵對관계에 있는 고구려에 身上의 위험과 險路를 무릅쓰고 請兵次로 使行하였다. 이때가 백제에 의하여 大耶城이 攻陷되고 品積의 夫妻가 沒殺되어 신라로서는 危機였다(品積의 妻는 金春秋의 딸)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禍를 당할번 하다가 요행이 回歸하게 되었다.

真德女王 元年(647)에 倭國에서 보내온 使節과 獻物에 대한 答禮次로 또 金春秋가 파견되었다. 이때 倭王은 春秋의 翁모와 談論에 반하여 그를 質子로 삼으려고 까지 하였다 한다.

648년에는 國使로 그의 아들 法敏과 함께 唐京에 使行하였다. 이때도 勿論 請兵이 目的이었지만 文物制度에 대한 많은 見聞을 얻었다. 그후 太平頌을 지어 바치기도 하고 王 在位중 급기야는 唐兵誘入에 成功하여 百濟, 高句麗를 滅亡케 하고 三國統一의 기반을 닦았던 것이다.

法敏 文武王:백제 의자왕의 降伏을 받고 돌아온 武烈王이 익年 病으로 別世하고 太子 法敏이 이어 即位하니 이가 文武王이다. 儀表가 영특하고 聰明하여 智略이 많고 前에 使臣으로 唐에 使行한 일도 있

있고 武將으로서 金유신등과 함께 唐軍과 連合하여 百제를 쳐서 滅한 大功을 세웠다. 그뿐만아니라 唐의 蘇定方을 명하여 大兵으로써 高구려를 칠때에도 唐과의 약속에 의해 即位初 喪服中에도 불구하고 北行하여 途中에서 百제의 復興軍을 만나 大勝하기도 하였다. 百제, 高구려 滅亡후는 對唐抗爭을 指揮하여 三國統一을 完遂한 것이 바로 文武王이다.

金庾信將軍 : 金春秋의 併唐外交와 金庾信의 武威는 三國統一의 原動力 중 중요한 하나이다. 金庾信의 기개를 잘 표현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660年 7月 金庾信이 苦戰 끝에 「黃山 별싸움」을 勝利로 이끌었을 때 蘇定方の 唐軍 역시 伎伐浦에서 百제軍을 大破하고 新羅軍에 앞서 약속地點에 도착하여 新羅軍과 合流했다. 이때 蘇定方は 新羅軍이 約束期日보다 늦었다 하여 督軍 金文穎을 軍門에서 參형하려고 하므로 金庾信은 그들에게 「대장군은 黃山 별의 激戰을 보지도 못한 채 다만 期日이 늦었다 하여 罪를 論하려 하는가? 나는 罪없이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굳이 그래야 한다면 먼저 唐軍과 決戰한 다음에 百제를 격파할 것이다」하고 외쳤다. 이때 金庾信은 軍門에 서서 鐵鉞을 잡고 있었는데 크게 노하여 「머리털이 곳곳이 일어서서 마치 삼(麻)을 심어놓은것 같고, 허리에 찬 寶劍은 저절로 躍動하여 칼집에서 튀어나오려는 것 같았다」한다. 이에 金文穎의 罪를 묻지 않기로 하였다(前掲 李垣根 大韓國史 I pp. 392 ~ 3)

그는 絶世의 武威와 함께 智謀 겸비한 장수였다. 그뒤 本格的인 統一戰爭에 突入하면서 그의 活躍은 더욱 눈부신바 있었다. 79歲로 世上을 떠났는데 그의 功을 기려 新羅 興德王은 金庾信을 興武大王으

로 追封하였다.

新羅에 의한 統一完遂는 다른 與件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最高指導者인 太宗武烈王과 그 後繼者인 文武王 그리고 그들을 補佐한 金庾信 그외에 竹旨등의 無수한 名臣의 힘이 컸던 것이다.

고구려의 執權者인 蘇文의 好戰的인 性格과 冒險的인 政策 또 그 후계자들의 骨肉相爭하는 庸劣이 결국 나라를 亡치고 百濟의 武王 및 義慈王의 好戰行爲와 그 放蕩이 自滅의 禍를 초래케 한데 대하여 신라의 武烈王, 文武王, 金庾信의 뛰어난 智略識見과 力量이 얼마나 對照的인 가를 確然히 알 수 있다.

이로써 보면 時代의 與件보다도 人物 즉 指導者들의 影響力이 얼마나 큰 比重을 차지하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4) 漢江流域과 党項城(水原, 南陽)의 確保

新羅統一은 武力에 의한 統一이다. 軍事에는 戰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有利한 地點을 確保해야 한다는 것은 兵家의 상식이다.

濟, 羅가 共同北進하여 고구려로 부터 漢江流域을 탈취하였고, 이를 다시 신라는 奇襲하여 百濟가 領有했던 漢江下流地域을 攻侵하여 自國의 州縣으로 하여 新州로 삼은 것은 553年이었다. 신라의 拓境사업에 있어 漢江流域의 確保는 物的, 人的 確保로 三國爭霸場裏에서 雄飛의 날개를 돌리게 하는 주요한 原因이 된다. 이에 더하여 漢江流域의 占有는 고구려와 百濟의 連結을 斷絶시키고 신라가 직접 西으로 中國과 통하는 唯一한 門路가 된다. 그러므로 新羅는 南陽灣에 城을 쌓고(党項城) 이 地域을 끝까지 지켜 나갔다. 이것이 後日의 統一사업에 큰 기반이 된 것이다.

이 以前의 신라의 對中交通은 고구려 혹은 백제를 經由하는 同時에 두나라의 使行에 附隨하는 不便을 가졌던 것이니 이것이 신라로 하여금 大陸文化 섭취와 기타 모든점에 있어 後進性을 免치 못하게 한 所致였다. 그러나 漢江流域의 淸州로 南陽灣에 黨項城이라는 要塞를 쌓기까지 하였으니 이곳을 통하여 中國方面과의 政治的 交涉, 文化的 交流를 自由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신라는 특히 고구려의 侵入을 防備하고 漢江流域을 確保하기 위하여 諸要所 지금의 光州, 利川, 春川, 安東등지에 강력한 軍團(停)을 設치하여 固게 守備하였던 것이다.

굳센 고구려의 힘으로도 容易한 漢江流域의 失地를 挽回치 못하게 하고 길이 신라의 掌中에 넣어 그로 하여금 최후의 覇業을 達成케 한 것을 보면 이方面의 防備에 얼마나 힘을 기울렸고, 그地理가 얼마나 戰略上 有利하고 重要하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 平原王의 사위인 장군 溫達이 이지역을 收復하고자 出征하여 羅軍과 阿旦城下에서 싸우다가 戰死하였는데 그 城이 바로 지금 漢江 廣壯津 北岸의 峨嵯山城 그곳이다. 溫達의 戰死는 결국 치열한 漢江 線 突破作戰에 있어서의 失敗를 의미하는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신라 人의 이方面 防備의 不動의 태세와 漢江의 地利를 또한번 認識하게 된다.

漢江流域의 占拠와 黨項城의 要塞는 바로 新羅의 勝機가 되었던 것이다.

附記 1. 이 地勢의 利와 관련하여 王建이 後三國을 統一할 때에 後百濟 全元의 領域인 錦城(지금의 羅州)을 攻略經營하게 된 것이 無視 못할 利點이었다. 후백제의 吳越과의 通交을 끊을 수 있었고, 나

중에는 狹攻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後三國 形勢圖 參照, 자세한 것은 文秀鎮, 「高麗太祖의 後三國 統合過程에 대한 再認識」 pp.68-9)

附記 2 : 百濟는 有事時에 「炭峴」이라는 地點을 重要視했다. 炭峴은 百濟 史上 恨 많은 곳이다. 佐平 成忠과 佐平 興首의 獻策을 받아 들 여 炭峴을 지켰더라면 百濟가 亡하지 아니하였을는지 모른다. 佐平 興首는 「炭峴我國之 要路也, 一夫當揜, 萬人莫當」이라 하였다.

(그位置에 대하여는 文定昌, 百濟史 pp.231 ~ 233)

5) 聯唐策의 成功 : 다시 말해서 신라의 外交의 成功이다. 非自主의 事大主義였다고 비난하지만 신라로서는 不得已했고 唯一한 救國方案이 었다. 萬一 聯唐策에 成功을 거두지 못했다면 신라는 濟, 麗에게 滅亡을 당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가 統一을 成就하던 그 무렵에 民族統一은 이루지 못하고 戰亂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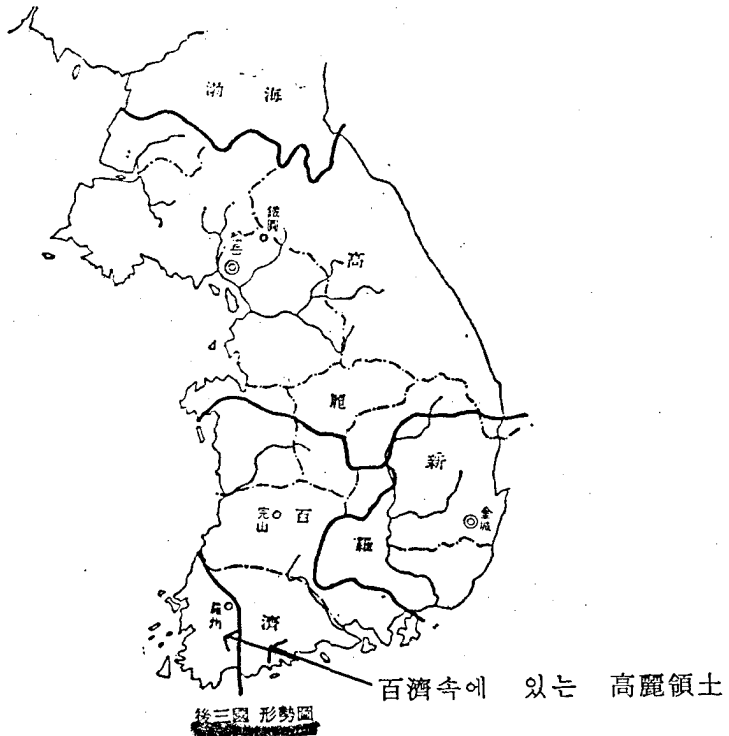
이는 신라의 利益과 唐의 凶計가 맞떠러졌던 것으로 위에서 많이 言及한바 있으므로 略하기로 한다.

나. 百濟의 滅亡이 우리에게 주는 教訓

백제가 바다 건너 倭에게 많은 文物制度를 傳授하고 一時나마 遼西地方의 一角에 까지 勢力을 뻗었다는 것은 前述한 바 있다. 실로 百濟는 文化王國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平和時代가 아닌 三國의 鼎立이라는 殘忍한 힘의 對決에 있어서 찬란한 백제文化의 長點은 도리어 脆弱性으로 바꾸어 졌다는 點을 우리는 留意할 必要가 있다. 東洋哲學에서는 歷史에도 季節이 있다고 한다. 陰과 陽의 季節이 그것이다. 三國정립은 분명히 陰의

後三國 形勢圖 - (百濟속에 있는 高麗領土)



季節이며 이 陰의 季節에는 당연히 陰의 文化가 꽃피어야 하는데, 陽의 柔弱한 文化가 支配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國勢에 까지 打擊을 주었으며 이는 두가지의 敗亡原因으로 등장한다. 첫째는 백제 帝王 즉 지도층의 豪奢, 遊興이요, 둘째는 이로 말미암아 종종 고구려와 신라로 부터 僞計에 陷入되었다는 점이다.

1) 百濟指導層의 豪奢와 遊興

백제 帝王의 豪奢와 방탕은 일찌이 辰斯王으로 부터 시작된다. 辰斯王은 「宮室을 重修하고, 못을 파고, 山을 만들며 기이한 새를 기르고, 기花妖草를 심다」(前掲 百濟史, p.504) 이러한 宮室의 사치는 向後 250年間 여러 王들에 의하여 傳統的으로 반복되었다.

백제 최후의 王은 義慈王이요, 그 前王은 武王이다. 武王은 그號와 같이 武勇의 人으로 신라와 싸워 國力을 소모시키고 안으로는 豪奢와 遊興에 耽樂하여 民力과 財力을 度外視하였다. 義慈王 역시 父王인 武王의 遺傳이라고 할 수 있을만치 豪奢를 일삼았다. 본시는 「雄勇膽略」의 人으로 孝友에 있어서는 「海東曾子」라는 稱을 들고 있었는데 신라와 자주 싸워 이긴후로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豪華로운 生活에 눈뜨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義慈王은 혹은 亭園을 만들고 혹은 勝景을 찾아 宮女, 倖臣들과 더불어 밤낮 宴樂에 파묻치어 政治는 後妃와 妖女들이 간섭하여 忠良한 신하들을 謀害하는등 内部으로 부터 自滅의 길을 걸어 갔다.

義慈王이 荒淫에 빠져든 것은 신라의 大耶 40餘城을 빼앗은 후부터 시작된것 같은데(642年) 그때 신라 40餘城으로부터 많은 財寶와 美女와 樂師들을 끌고 왔을 것이다. 백제王들이 外地로 부터 搬

入해 온 수많은 財貨들을 소비하는 곳은 주로 豪遊와 宮城, 亭子, 寺屋, 塔, 佛像등의 建造였다. 그러한 중에서도 佛에 관한 모든 投財는 巨大하였으나 아쉽게도 沒理性的이었다. (신라佛敎와 對照的) 梁武帝가 百姓들의 財貨를 착취하여 수많은 佛寺, 塔, 佛像등을 建造해 놓고 印度의 高僧 達磨에게 「朕의 功德이 어떠하냐」하니 達磨는 「아무런 功德도 없다」고 答했다는 故事가 생각난다. 佛의 참된 功德은 실로 濟衆, 救苦에 있음을 그들은 잊었던 것일까!

義慈王의 淫荒과 失政을 가장 잘 전해 주는 것이 扶餘에 建立되어 있는 「唐平百濟碑」의 다음 句節이다.

「밖으로는 곧은 臣下(成忠, 興首, 夫餘 福信등)를 버리고 안으로는 요망스럽고 귀신 부르는 계집의 말만을 믿는다.

刑罰이 加해지는 相對는 오직 忠良한 臣下들이오, 寵臣은 아침 잘 하며 요행을 말하는 者들에게 먼저 내린다. 上下는 怨恨을 품고, 베 짜는 지어미는 슬픔을 머금는다」 「外棄直臣, 內信妖婦, 刑罰所及, 唯在忠良, 寵任所加, 必先諂倖, 標梅繕怨, 梯軸銜悲」 扶餘 唐平 百濟碑,

<前掲 百濟史, pp. 338 ~ 9>

2) 偽計에 빠지는 百濟 諸王

- 道琳의 間諜史話: (李丙燾 韓國史 I, p. 425)
- 宝延의 軍事探偵과 漢氏美女의 內應(文定昌, 百濟史, p. 253)
- 善花公主에 의한 國力消耗
- 신라의 天山懸令 租未坤의 백계 佐平 任子の 집 중사리

(前掲書 p. 339)

紙面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약하기로 한다.

다. 高句麗의 敗亡이 주는 教訓

三國中 가장 先進的이고 老大國인 高句麗가 敗亡한 첫째 原因은 그들 執權層의 분수없는 好戰性으로 因한 國力消耗요, 둘째는 執權層 内部의 分裂을 들 수 있다.

1) 고구려 末期에는 時代的 與件도 그리 좋지 못한 데다가 執權者인 蘇文方이 너무도 好戰的이어서 強敵(唐) 小敵(신라)과의 충돌을 누차 誘致하여 國力을 얼마나 消耗시키고 또 그 獨裁의 驅使로 一般國民들이 얼마나 苦痛과 不平을 품었던가 상상하여 남음이 있다. 野心 만만한 唐太宗은 蘇文의 구데타後 몇번이나 戰意를 表한 바 있으나 左右에서 諫하는 臣下있어 隱忍自重하고 있는중 新羅로 부터는 여러차례 救援의 要請이 있었다. 이에 唐太宗은 두차례나 使臣을 고구려에 보내어 신라를 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蘇文은 듣지아니할 뿐더러 二次로 온 唐使를 窟室속에 가두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때 蘇文은 唐의 入寇를 自招한것 같으나 政治家로서는 冒險的이고 無謀한 태도라고 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의 與件으로 보아 再次 強敵을 誘致하여 大消耗戰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智略이 있는 賢明한 태도였다고는 말할수 없다. 이때 形便으로서는 첫째 外交面에 있어 百濟와 紐帶를 긴밀히 하는 한편 고구려는 물론 백제로서도 신라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도록 說得工作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強大國인 唐에 대하여는 可及的 宥和政策을 써서 그 感情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그 餘暇에 國力과 民力을 培養하는데 注力했어야 했을 것이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好戰性은 及其也는 敗亡을 自招한다. 「칼은 칼

로 亡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2) 위와 같은 고구려의 好戰的 生態는 무엇을 가져 왔는가? 過去 6, 70年 동안 新羅, 隋, 唐 契丹 등의 新興세력과 싸워 거의 寧日이 없었다. 게다가 年年 飢饉은 계속되어 百姓은 塗炭에 빠지고 國家의 經濟力은 枯竭되었으며 따라서 백성의 부담은 무거워져 為政者에 대한 不平은 漸高하였을 것이다.

雪上加霜으로 榮留王末年(642)에는 指導層 內部에 심한 龜裂이 생겼다. 즉 이때 大人의 職에 있던 蘇文이 구태타를 일으켜 王과 大臣 등 反對黨을 모조리 虐殺하고 새로 王(寶藏王)을 세워 莫離支가 되어 國政을 獨裁하였다.

蘇文이 살아있을때만 해도 唐軍을 몰아낼만한 餘力이 있었지만 蘇文이 죽고 그 長子 男生이 뒤를 이어 國政을 맡자 男産, 男建 두 아우와의 사이에 政權타툼으로 不和가 생겼다. 마침내 男生이 敗走하여 唐에 歸附하는등 內部分裂의 주태를 연출하였다. 이때 男建이 스스로 大莫離支가 되어 軍士를 내어 兄을 쳤다 하는데 眞實性 如何는 어쨌던 兄弟間의 政權타툼으로 不和가 생기고 따라서 兩便에 黨與가 分立되어 政爭이 苛烈되었던 것만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唐은 고구려의 內變을 好機로 하여 男生의 父子에게 慰勞와 官爵을 주는 同時에 諸將兵을 보내어 男生을 救援케 하고 이어 李世勣을 主將으로 삼아 大軍을 이끌고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重臣으로 蘇文의 아우인 淵淨土는 內外情勢의 不利함을 보고 12城 763戶 3,500餘人을 들여 新羅에 投降하였다.

이렇게 고구려에서는 거듭거듭 內部의 離脫을 보게 되었다. 어쨌던 고구려의 自招한 悲運은 後繼指導者들의 庸劣로 加速化하였던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6. 結 語

위와 같이 對立과 武力侵攻이 極甚하였던 約 200年間の 三國사이의 形勢와 半島統一이 成就되는 過程을 多方面에 걸쳐서 考察하여 보았다. 人間 勝利나 國家의 興亡 盛衰에 대한 理致는 예나 이제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신라에 의한 半島統一은 대체로 1千3百여년전 일이 된다. 썩 옛날에 있었던 歷史事實에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은 現在 追求하고 있는 統一의 基本方向에 대하여 正當하다는 確信을 가질 수 있는 점과, 그 때에 比하여 未洽한 점이 있다는 事實이다. 신라統一의 否定要素로 꼽히는 統一로 因한 領土의 縮小, 平和가 아닌 武力統一, 自主的이 아닌 事大主義등은 오늘의 우리에게 엄청난 教訓을 던져 주고 있다.

平和, 自主라는 우리 統一政策의 基本方向에 대하여 또 한번 確固한 信念을 갖게 된다. 신라의 聯唐策은 오늘로 말하면 集團安保, 國際外交에 該當한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 當時 못지 않게 重要하다. 그러나 자나 깨나 잊어서 안될것은 철저한 自主意識이요, 民族의 主體性의 堅持요, 철저한 主人意識이다.

신라時代의 朴堦上은 日本의 포로가 되어 日本國王으로 부터 그의 臣下가 되기를 권고 받았을 때 「나는 故國의 개, 돼지는 될망정 너의 나라 臣下는 될 수 없다」했고, 高麗時代의 康兆는 契丹 성왕에게 잡혀가서 部下가 되라 하니 「我是 高麗人」이라고 했다. 安重根先生이 倭의 감옥속에서 쓴 글씨는 언제나 「大韓國人 安重根」임을 明示해 놓았다. 얼마나 民族의 主體性을 지녔던 先賢들인가? 그 당시로서는 不得已했을지는 모르지만 신라는 이점이 不足했다.

統一期の 唐나라의 태도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 自主意識을 더욱 切感케 하고 있다. 南北韓 統一이 強大國들이 선물로 갖다 줄 것도 아니고 歷史가 小包부치듯 보내 올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統一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땅에서 솟아오를 것도 아니다. 오로지 우리의 意志와 힘과 슬기에 의해서만 成就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하겠다.

신라人들은 무엇이 利가 크고 적음에 대하여 賢明했다. 그것은 漢江流域의 장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濟, 羅合同으로 高句麗로 부터 탈취한 후 背信行爲인 것을 알면서도 백제가 占有한 下流를 기습적으로 탈취하여 統一成就時까지 이 地域만은 뺏기지 않고 所有하였다. 옆구리에 있는 大耶城(狹川地方) 40餘城을 奪取되었어도 麗, 濟의 끊임없는 猛攻앞에서 漢江流域은 固守 不變하였다. 사실 三國間의 争鬪는 漢江流域 争取를 놓고 二百年間 싸운 것이다. 新羅人들은 勝機의 核이 무엇인가를 잘 가릴 줄 알았던 것이다.

오늘 우리가 新羅人들에게 분명히 뒤지고 未洽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統一에 대한 意志이다. 더 솔직히 말한다면 統一擔當世代의 統一意志가 薄弱하다는 말이다. 「平和統一이 꼭 이루어 진다」는 信念 그리고 우리의 主導로 争取된다는 意志가 더 한층 涵養되어야 할 것이다.

「德業日新하여 網羅四方」이라는 데서 新羅라는 두 글자를 따서 國號를 삼은 그 自體가 統一을 國策으로 삼은 것이며 皇龍寺에 九層塔을 세워 놓고(國防塔) 신라人들이 新羅를 中心으로 한 統一을 祈願하였다는 사실, 護國佛敎로 인한 國民思想의 定立, 花郎의 五戒精神과 그 組織 또 訓練方法등 얼마나 훌륭하였는가? 지금 우리에게 이에

該當할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 머리 숙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分斷이 深化된 오늘 이러한 國民意識과 자세가 自生的으로 發生, 定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역시 國家施策으로 오늘에 맞도록 創案 定立되고 教育되어야 할 것이다.



